

後·百·濟·王·都·全·州

후백제 왕도 전주

이도학 - 김주성 - 송화섭 - 강원종
조인성 - 김갑동 - 신호철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학총서 28

후백제 왕도 전주

초판 1쇄 인쇄_ 2013년 09월 02일

초판 1쇄 발행_ 2013년 09월 06일

발행처_ 전주역사박물관

주 소_ 전주시 완산구 축고개로 259

전 화_ 063-228-6485-6

전 송_ 063-228-6484

펴낸곳_ 흐름출판사

주 소_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4

전 화_ 070-4131-1139

홈페이지_ www.heureum.com

등 록_ 제2002-8호

© 2013, 전주역사박물관

ISBN 979-11-5522-023-8 94900

978-89-93003-88-8 (세트)

비매품

*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3016921)

後·百·濟·王·都·全·州

후백제 왕도 전주

이도하 - 김주성 - 송화섭 - 강원중
조인성 - 김갑동 - 신호철

『후백제 왕도 전주』를 발간하며

전주역사박물관이 전주학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천년이 넘는 시간의 더께 너머를 더듬고 돌아 보았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전주학 총서 『후백제 왕도 전주』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전주학 총서의 주인공은 서기 900년, 전주를 도읍 삼아 36년간 삼국통일의 꿈을 펼쳤던 후백제와 견훤입니다. 천년을 이어 온 전주 역사의 저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찬란한 후백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계승해 나가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모두가 ‘천년 전주’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의 시선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천년 전주’라면서도 전주가 자랑하는 전통문화 콘텐츠는 대부분 ‘조선 전기 문화’나 ‘근대 문화’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천년 전주’라는 말이 품고 있는 웅숭깊은 역사적 울림의 근원을 완전히 훑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최근 전주시는 후백제의 도성이었던 동고산성 일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적을 발굴하는 ‘후백제 왕도 9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공고히해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후백제 왕도 전주 시민강좌’와 ‘후백제 왕도 전주’의 총서 발간도 이러한 전주시의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아울러, 후백제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인문학 도시, 전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인문학의 중심인 역사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문화적 토양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주로 모여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백제 900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천년을 이어 온 ‘전주정신’의 뿌리를 온전히 찾아내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후백제 역사에 대한 연구와 발굴은 전주 발전에 알찬 자양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후백제 문화는 조선 문화에 견줄 중량감 있는 역사콘텐츠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성장과 발전만을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뿌리내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여서 함께일 때만 너른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비익조(比翼鳥)처럼 전주의 역사와 정신을 떠받치는 커다란 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고를 내주시고 본 강좌에 응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학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강좌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이동희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3년 9월

전주시장 송 하 진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학 시민강좌를 열며

『청장관전서』에 우리나라 3천 년 역사에 두 번의 큰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이 고구려가 망하면서 삼한의 책을 다 모아 놓은 평양의 서고가 불타 버린 것이요, 또 한번은 후백제가 망하면서 삼국의 책을 다 모아 놓은 전주의 서고가 불타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나옵니다. 후백제로부터 몇백 년 뒤인 조선 시대의 기록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견훤의 이미지와 달라 주목됩니다.

후백제의 역사는 상당 부분 왜곡되고 폄하되어 있습니다. 고려 왕건이 후삼국 시대의 승자가 되면서 이에 맞섰던 후백제와 견훤은 부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스트 3세는 후삼국의 역사는 마치 드라마 같다고 하였습니다. 왕건은 선인(善人), 견훤은 악인(惡人), 궁예는 추인(醜人)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주가 한 국가의 왕도였음에도 지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으로 자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그리 대단하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놓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전라도 인심이 사납다는 것입니다. 후백제는 때로 이 지역이 감당하기 불편한 역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민강좌는 후백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전주 지역사와 지역 정신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부터라도 후백제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전주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 이명연 전주시의회의장님, 전주학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강좌를 맡아 준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전주역사박물관장 이 동 희

후백제 왕도 전주 後百濟 王都 全州

주 제 : 후백제 왕도 전주
일 정 : 2013년 09월 07일~11월 02일(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주 관 :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문 의 :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6)

강좌 내용

구분	일 정	내 용	강 의 자
1강	09월 07일	후백제 진휼왕은 누구인가?	이도학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2강	09월 14일	건훤의 전주천도와 왕궁 위치	김주성 교수(전주교육대학교)
3강	09월 28일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송화섭 교수(전주대학교)
4강	10월 05일	현장 답사	조법중 교수(우석대학교)
5강	10월 12일	전주 동고산성	강원중 실장(전주문화유산연구원)
6강	10월 19일	궁예의 성장과 몰락	조인성 교수(경희대학교)
7강	10월 26일	왕건과 후삼국 통일	김갑동 교수(대전대학교)
8강	11월 02일	후백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호철 교수(충북대학교)

차례

『후백제 왕도 전주』를 발간하며 / 4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학 시민강좌를 열며 / 6

후백제 진훤왕은 누구인가? | 이도학 | 11

1. ‘진훤’의 음가(音價)와 출신지
2. 성장과 출향(出鄕), 그리고 웅심의 세월
3. 꿈과 희망의 소산, 백제의 부활
4. 정치·경제·외교적 안목
5. 진훤의 불교 시책
6. 영그는 통일국가의 꿈
7. 운명의 뒤틀림, 그리고 재평가 기다리는 진훤왕!

견훤의 전주 천도와 왕궁 위치 | 김주성 | 41

1. 견훤의 전주 천도
2. 왕궁의 위치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 송화섭 | 55

1. 서론
2. 後百濟의 全州 定都와 그 배경
3. 후백제의 대외 교섭
4. 후백제의 대외 문물 교류
5. 맺음말

전주 동고산성 | 강원종 | 89

1. 성벽의 축조

2. 성 안쪽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터
3. 성벽과 접한 건물들은 적의 화공으로 불살라졌다
4. 성을 돌보는 시설
5. 성을 드나드는 문
6. 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시설
7. 동고산성은 원래 '전주성'의 일부였다

궁예의 성장과 몰락 | 조인성 | 111

1. 머리말
2. 세력 형성과 건국
3. 신정적 전제주의의 추구
4. 맺음말

왕건과 후삼국 통일 | 김갑동 | 127

1. 왕건의 성격과 자질
2. 태조의 등극과 후삼국 통일
3. 통일 정책

후백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신호철 | 139

1.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2. 후백제왕 견훤은 누구인가
3. 후백제는 왜 몰락했는가
4. 후백제 · 견훤왕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5.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후백제 진훤왕은 누구인가?

이 도 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 '진훤'의 음가(音價)와 출신지
2. 성장과 출향(出鄕), 그리고 웅심의 세월
3. 꿈과 희망의 소산, 백제의 부활
4. 정치 · 경제 · 외교적 안목
5. 진훤의 불교 시책
6. 영그는 통일국가의 꿈
7. 운명의 뒤틀림, 그리고 재평가 기다리는 진훤왕

1. ‘진훤’의 음가(音價)와 출신지

1) 잘못 발음하고 있는 고유명사들

高句麗를 현재 ‘고구려’로 읽고 있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전운옥편』에 보면 ‘麗’ 자에는 ‘리’와 ‘려’ 2가지 발음이 있음을 밝혔다. 즉 ‘리’로 읽는 경우로서 “東國高麗” 즉 우리나라의 高麗를 읽을 때는 ‘고리’라고 했음을 명시했다. 음가(音價)를 많이 표시한 『용비어천가』에도 ‘高麗’라는 국호의 음을 “麗의 음은 리(離)인데 高麗를 말한다(6장)”라고 하였다. 즉 ‘고리’로 읽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는 사실 ‘고구리’와 ‘고리’로 각각 고쳐 불러야 옳다.

진훤의 소국 가운데 高句麗가 있다. 高句麗의 ‘高’를 ‘소’로 읽는 경우가 많았다. 高句麗가 소재한 경북 의성에는 금성산성(金城山城)이 소재하였다. 이 금성산성의 ‘金’과 高句麗의 ‘高[괴]’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에 보면 남양만 부근에 소재한 高句麗를 ‘조콜섬’이라고 일컬었다(49장). 여기서 ‘高’를 ‘조’로 발음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高句麗를 ‘조문국’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문국은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막연히 비정했던 고려와 후백제 간의 각축장이었던 조물성(曹物城)과 음운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조물성은 조문국이 소재했던 경북 의성 지역으로 비정하는 게 자연스럽다. 아울러 高句麗는 ‘조문국’으로 읽는 게 온당해진다.

강화도 摩尼山에 관한 음가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산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올린 시무28조에 등장하는 ‘摩利山’이다. 10세기부터 보이는 ‘摩利山’ 표기는 적어도 13세기 중반 직후까지는 줄곧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 15세기 전반까지도 ‘摩利山’으로 표기하였을 뿐 ‘摩尼山’ 표기는 그다지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5세기 후반부

터는 ‘摩尼山’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摩尼山’으로 표기한 것이 그 이후의 역대 지리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데 『고려사』 묘칭전에는 ‘摩利山’의 별칭을 ‘頭巖’이라고 한 근거가 보인다. 摩利山의 ‘摩利’가 ‘頭’의 뜻임을 알려준다. 주지 하듯이 ‘頭’는 ‘마리’로 訓讀되었다. 비록 불교의 영향을 받아 후대에 ‘摩尼山’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래 순수한 우리말 산 이름인 ‘摩利山’의 소리 율김에서 연유한 만큼 ‘마리산’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므로 摩尼山은 ‘마니산’이 아닌 ‘마리산’으로 읽어야 옳다. 마리산은 우두머리 산악 곧 ‘頭岳’이요 ‘ 으뜸 산악’, ‘최고의 산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에 논란이 없지 않았던 玄菟郡과 樂浪郡 그리고 黏蟬縣의 ‘菟’·‘樂浪’·‘黏’의 음을 『용비어천가』에서는 ‘徒’·‘洛浪’·‘女廉의 半切’ 즉 ‘염’으로 각각 적고 있다. 『전운옥편』에 보면 ‘蟬’ 자는 음이 ‘진’ 밖에는 없다. 종전에 ‘蟬’을 ‘제’로 읽었던 것은 ‘제’로 발음 나는 ‘磳’자로 인한 착오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토가 아닌 ‘현도’로, 악량이 아닌 ‘낙랑’으로, 점제가 아닌 ‘염산’으로 발음하는 게 原音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준다. 玄菟郡은 『전운옥편』에서도 ‘菟’를 ‘도’로 발음해야 함을 밝히면서 “朝鮮郡名 玄菟”라고 특별히 사례를 명시하였다. 고조선의 옛 땅에 설치한 한사군(漢四郡) 군명(郡名)인 玄菟郡은 ‘현도군’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菟’를 ‘도’로 읽는 경우는 ‘약(藥) 이름’으로만 한정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도군’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현토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玄菟郡을 현행 옥편의 음가로써만 읽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고구려를 침공했던 위장(魏將) 毋丘儉의 경우도 ‘무구검’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사서에서 毋丘儉의 ‘毋’는 ‘貫’으로 읽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관구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애국 명장이나 위인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침공한 적장의 이름은 제대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 奈勿王의 ‘奈’는 ‘나’와 ‘내’ 모두 발음이 된다. 현재 통용되는 발음은 ‘내물왕’이다. 그러나 그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那密’로도 표기하였다. 신라 때 금석문에서도 ‘那勿’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奈勿王의 ‘奈’는 ‘내가 아닌 나’로 발음했음을 알 수 있다. 나물왕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 炤知王과 孝昭王 그리고 昭聖王과 知炤夫人에 보이는 ‘炤’와 ‘炤’ 자는 본래 음이 ‘조’였다. 그러므로 ‘조지왕’·‘효조왕’·‘조성왕’·‘지조부인’이 맞다. 沾解王의 ‘沾’은 본래 음이 ‘점’이므로 ‘점해왕’으로 읽는 게 온당하다.

고려 왕건의 막료였던 庾黔弼을 현재 ‘유검필’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黔’은 『전운옥편』에서 ‘검’으로 읽을 경우에는 ‘귀신 이름’의 뜻으로 한정하였다. 반면 ‘검’으로 읽을 때는 ‘검다’·‘많다’·‘뭇’·‘무렵’·‘가지런하다’의 뜻이 담긴 ‘黎’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 용례로서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黔首’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귀신 이름’의 뜻을 지닌 ‘검’으로 인명이 읽혀졌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검’으로 읽는 게 온당하다. 유검필 장군인 것이다. 고려의 명장 姜邯贊을 현재 ‘강감찬’으로 표기하고 있다. 『전운옥편』을 보면 邯에는 ‘한’과 ‘함’ 2개 음밖에는 없다.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전국 시대 조(趙)나라 수도 이름인 한단(邯鄲)의 그 ‘한(邯)’ 자인 것이다. 비록 속음(俗音)에 ‘검’이 있다고 둘러붙이지만, 문과에 장원 급제한 姜邯贊 가문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속음 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邯’의 본래의 뜻이자 지명인 邯鄲과 관련한 음가인 ‘한’을 사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강감찬은 ‘강한찬’으로 고쳐 읽는 게 맞다.¹⁾

근자에는 우리 사회에서 蒙古를 ‘몽고’가 아닌 ‘몽골’로 고쳐 읽고 있다. 중국인들이 비하(卑下)시킬 목적에서 우매할 ‘蒙’자와 목을 ‘古’자를 사

1) 이도학, 『역사가 기억해 주는 이름』, 서경문화사, 2007.

용한 데서 ‘蒙古’라는 이름이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황룡사 9층목탑과 같은 겨레의 유산을 불태워 버린 蒙古에 대해서는 내 몸처럼 끔찍히도 배려한 것이다. 침략자이자 약탈자인 관구검의 이름은 어떻게 누가 알려 줬는지 제대로 읽고 있다.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옛 국명을 비롯하여 영웅이나 위인의 이름은 엉뚱하게 일컫는 경우가 많다. 무감각과 무지 그리고 완고함의 소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가령 고구려 시조 이름은 당시의 금석문인 「광개토왕릉비문」이나 「모두루묘지」에 의하면 ‘추모(鄒牟)’이다. 고구려인들은 자국 시조를 ‘추모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중국 사서인 『위서(魏書)』에서 ‘朱蒙’으로 표기한 후에 이제는 朱蒙이 鄒牟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니 추모가 고구려 시조인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여기서 朱蒙의 ‘朱’는 ‘난쟁이(侏)’의 뜻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蒙’에는 ‘어릴’의 뜻이 담겨 있다. 조선 시대 때 어린이용 서적 이름인 『동몽선습(童蒙先習)』의 ‘蒙’이다. 그러므로 주몽이라는 이름은 ‘난쟁이 어린애’라는 비칭이 된다. 중국인들이 ‘추모’라는 고구려 시조 이름과 음이 닮았지만 나쁜 뜻이 담긴 ‘朱蒙’으로 표기한 것이다. 악의적인 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주몽’ 타령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蒙古를 ‘몽골’로 읽어야 한다고 채근했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게 국적 있는 교육인가?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다.

2) ‘견훤’이 아닌 ‘진훤’

후백제를 세운이 진훤(甄萱)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견훤’으로 읽혀 왔었다. 옥편을 찾아보면 ‘질그릇 甄’에는 ‘견’ 혹은 ‘진’으로 발음이 나와 있다. 그러나 『전운옥편』을 비롯한 앞선 시기의 옥편에는 한결같이 ‘진’ 음이 ‘견’ 음보다 앞에 표기되어 있다. 어쨌든 ‘견훤’이나 ‘진훤’으로 모두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진훤’으로 읽는 게 타당하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역사학자인 홍여하(1621~1678)와 순

암 안정복(1712~1791)은 자신이 저술한 『동사제강』과 『동사강목』에서 ‘甄’에 대한 음을 모두 ‘眞’이라고 했다. 또 조선왕조에서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동일한 기록을 남겼다. 『완산甄씨세보(完山甄氏世譜)』에도 “우리 성(姓) 글자인 ‘甄’의 음은 본래 ‘진’에서 시작했었다”라고 하였다. 『전운옥편』에서도甄을 성으로 사용할 때는 ‘진(眞)’으로 읽었다. 현재가 지은 구한 말(광무11년, 1907년)의 국사 교과서인 『유년필독(幼年必讀)』에도 ‘진훤(헌)’으로 표기하였다. 그 밖에 역사학자인 이병도(李丙燾)와 김상기(金庠基) 그리고 문경현(文暉鉉)의 저작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훤’으로 표기했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지 교과서를 위시하여 모두 ‘견훤’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진훤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을까? 이는 진훤의 출생 설화에 등장하는 지령이 이야기와 관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역으로 진훤이라는 이름에서 지령이 설화가 생겨났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나면 ‘진훤’을 그의 고향이었던 지금의 경상도식으로 읽게 되면 ‘진훤이’가 된다. 이는 지령이의 경상도 방언인 ‘지러이’와 음가(音價)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바로 진훤이라는 이름이 지령이를 연상시켰으므로 그 아버지를 지령이로 간주하는 설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설화는 관련 유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다. 부잣집 딸에게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사내가 찾아와 잠자리를 같이하고는 돌아갔다. 그러한 사실을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자 긴 실을 바늘에 꿰어 찾아오는 사내의 옷에 찢러 놓게 하였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딸이 하고 난 이튿날 실 끝을 북쪽 담장 밑에서 찾게 되었다. 그런데 바늘은 큰 지령이의 허리에 찢려 있더라는 거였다. 문경시가 읍읍 갈전 2리 곧 아차 마을에 전해지는 진훤의 출생 설화인 것이다. 이곳의 순천 김씨 고택 뒷켠에는 금하굴이라는 자그마한 동굴이 남아 있는데 지령이가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3) 진훤의 출신지

진훤의 출신지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모두 ‘상주 가은현(尙州加恩縣)’이라고 했다. 그런데 혹자는 상주를 지금의 상주시로 간주하여 진훤의 고향을 ‘상주’로 말하기도 한다. 비근한 예가 얼마 전까지 사용되었던 중·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라고 하겠다. 진훤의 출신지를 “본래 상주 지방 농민의 아들로서”와 “본래 상주의 농민 출신으로” 각각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상주 가은현’의 ‘상주’가 신라 전역을 구획해 놓은 지금의 도(道)에 해당하는 9개의 주(州) 가운데 하나임을 간과하였다. ‘상주’를 협의의 일개 도시 이름으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훤의 출신지는 상주라는 주(州) 안에 소속된 ‘가은현’이 되겠다. 이는 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문경시 관내의 가은읍을 가리키는 통일신라 때 지명이다. 옛 문헌에서 진훤의 출신지를 이룰테면 ‘경상북도 가은읍’ 식으로 기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경상북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경상북도’가 상주처럼 현재 도시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할 때 진훤은 엉뚱하게도 경상북도시(市) 출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는 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진훤의 고향을 국사 교과서에라도 제대로 기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²⁾

혹자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지령이 설화에서 진훤의 어머니가 ‘광주 북촌·光州北村’의 부잣집 딸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고향을 지금의 광주광역시나 그 인근으로 단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삼국유사』 정덕본에서 더러 발견되듯이 ‘光州’와 글자가 비슷한 ‘尙州’를 오각(誤刻)한데

2) 이도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상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 『전통문화논총』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04.

서 기인한 것 같다. 그렇다면 도시 이름으로서 '상주 북촌'이 된다. 이는 상주 북쪽에 현재 문경시 가은읍이 접해 있는 사실과 부합되고 있다. 물론 광주광역시 주변에 '생룡동(生龍洞)'을 비롯하여 진훤왕의 출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지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들은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해석이 필요한 방증에 불과하다. 아마도 광주광역시 일원이 진훤의 초기 국도(國都)였던 데서 파생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후백제를 세운 진훤의 출신지가 문경시 가은읍 일대임은 확정적이다. 이는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양대 사서의 기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경시 가은읍 일대의 무수한 진훤 관련 전설과 유적에서도 뒷받침된다.

2. 성장과 출향(出鄕), 그리고 응심의 세월

1) 성장과 출향

진훤은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아차 마을갈전 2리에서 가난한 농민의 맏아들로 출생했다. 지금까지 '견훤'으로 알려져 왔지만 옛 문헌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진훤'으로 부르는 게 옳다. 이는 그의 생애 전반이 사뭇 잘못 알려져 왔음을 웅변하는 단적인 예이다. 진훤의 출신 가문과 관련해서 그 부(父)인 아자개의 출신 성격에 대해 기존에는 호족 출신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진훤의 성장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자개는 농민이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아자개는 889년에 상주 지역에서 발생한 원종과 애노의 농민 봉기를 계기로 상주 일원을 석권하고는 장군을 칭하는 호족으로 성장했던 것 같다. 이후 아자개는 기존의 성씨 가운데 이름 앞 글자인 '阿'와 근사(近似)한 이씨(李氏)를 성(姓)으로 모칭(冒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자개의 성씨가 이씨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호

죽 출신설을 내세우기는 어렵게 되었다. 왕건 정권에서도 개국 공신(開國功臣)들의 경우도 득세한 후에야 성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훤은 출생할 때부터 비범한 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온갖 날짐승이 날아와 아이를 보호해 주기를 수년 동안이나 했다고 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갈이를 할 때였다. 그 어머니가 새참을 갖다 주면서 진훤을 수풀 아래에 내려 두었더니 호랑이가 와서 젓을 먹었다고 한다. 이는 대로마제국의 시조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젓을 먹고 자랐다는 설화와 비교된다. 오히려 호랑이의 젓을 먹고 자란 우리 진훤 임금 설화의 격이, 로마제국 시조형제의 그것보다 높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이 설화는 진훤의 용모와 용기가 호랑이에 비견될 정도였기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을까?

진훤은 체격이 장대하였을 뿐 아니라 힘이 장사였기에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다. 일등 농군으로서의 자질을 타고났었기 때문이다. 국역(國役)을 지게 되는 15세 정남(丁男)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진훤은 많은 고민을 하였다. 척박한 향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무엇을 모색하기 위해 향리를 탈출할 것인가?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노정(路程)이라고 볼 수 있다. 진훤은 생애 첫 번째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더구나, 집안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맏아들의 경우는 현실 순응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랄수록 체격과 용모가 웅장하고 기이했으며, 뜻과 기상이 활달하여 범상하지 않았다”는 진훤은, 더 나은 삶의 방편으로서 용약 군인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의 소설 제목 『赤과 黑』은 제복의 색깔을 말하고 있다. ‘적’은 붉은 옷을 입었던 군인을, ‘흑’은 사제를 상징한다. 프랑스 사회에서 소시민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군인이 되든가 아니면 사제가 되든가 양단 간에 하나라고 한다. 농민의 아들 진훤은 군인의 길을 택했다. 훗날 그의 라이벌이 되었던 궁예(弓裔)는 검은 옷을 걸쳤다. 궁예

는 사제의 길, 곧 승려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양인은 머지 않아 모두 제왕이 되어 맞대결하게 되었다.

2) 준비된 왕, 순천만에서 세월을 낚다

진훤은 군대를 따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들어간 후 해안 지역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가 복무했던 곳은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만(順天灣) 일대로 필자가 최초로 새롭게 밝혔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진훤의 측근 인맥 관계이다. 진훤의 사위인 무진주 성주 지훤(池萱)은 지금의 광주 출신 호족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의 순천 출신인 박영규(朴英規)는 말할 것도 없고, 진훤의 어가 행차(御駕行次)를 맡았던 인가별감(引駕別監) 김충(金攄)도 순천 출신이었다. 인가별감은 어거 행차와 관련한 임무를 맡았던 만큼, 경호의 총책임자인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직책이었다. 김충은 죽어서 순천의 성황신(城隍神)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진례산(進禮山: 여수시 상암동)에 존재하였다. 그리하였을 정도로 김충은 위세 있는 인물이었다. 순천 김씨의 시조이기도 한 김충의 묘와 사당인 동원재(同源齋)는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에 남아 있다.

이처럼 진훤의 최측근 인맥이 지금의 광주와 순천 쪽이었다. 이 사실은 진훤의 초기 세력 기반과 거병 지역을 암시해 준다. 892년에 진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무주(武州) 동남쪽의 군현(郡縣)이 일제히 진훤에게 항속(降屬)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광주인 무주의 동남쪽은 순천과 여수를 포함한 지역권으로서 그 중심지는 순천이었다. 순천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939년에 세워진 대경대사비(大鏡大師碑)에 의하면 승려 여엄(麗嚴)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할 때인 909년에 무주(武州)의 승평(昇平)에 도달했다(此時天祐六年七月 達于武州之昇平)는 기록이 주목된다. 승평은 승주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남단(南端) 내

륙 교통의 요충지인 순천 또한 대중국 항로와 관련한 항구였음을 알려 준다.

즉 현재의 순천은 광주로 이어지는 철로와, 여수로 연결되는 철로의 분기점인 동시에 광양→하동→진주→창원→삼랑진으로 뻗어 가는 경전선의 시발이요 종착역이었다. 그러한 관계로 순천에는 현재 철도국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러니까 순천은 광주 및 나주·목포 지역과 지금의 경상남도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의 광주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다. 그런 데다가 순천만(灣)에서 중국 대륙을 왕래하는 선박이 정박한다고 해 보자. 그것을 둘러싼 해적 집단의 횡행과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군대의 주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해적 소탕 임무를 띠고 주둔했던 진훤의 군영(軍營)이 순천 해안가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의 초기 세력 인맥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³⁾

통일신라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던 국가가 당(唐)이었다. 신라의 대당(對唐) 교섭은 사신 파견과 같은 공적인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들의 내왕과 같은 사적인 차원에서 한층 활기를 띠었다. 이때 신라에서 입당(入唐)하는 통로와 관련된 항구로서는 당은 포(경기도 화성)와 회진(會津: 전라남도 나주)이 가장 비중이 컸었다. 그런데 841년 장보고가 피살된 지 반세기가 지난 9세기 말부터는 해적들이 횡행함으로써 당은포보다는 영산강 하구의 회진 쪽으로 출항이 많아졌다. 그러는 가운데 내륙에서는 도적 떼들이 곳곳에서 창궐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경주에서 내륙으로 회진항까지 가는 루트마저도 안전하지 못하였다. 신라 조정은 왕경(王京)에서 가깝고 또 그로 인해 비교적 해적들의 약탈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안전한 승평 즉 지금의 순천만 일대를 국

3) 이도학, 『진훤이라 불리다오』, 푸른역사, 1998, 85-87쪽.

제적 항구로 개항(開港)시켰다. 이와 짝하여 해룡산성이 승평항을 방수해주는 요진(要鎭)으로서 기능하였다. 진훤은 이곳에서 해적들을 소탕하는데 발군의 전공을 세운 관계로 비장(裨將)으로까지 속속 승진할 수 있었다. 한미한 농민 출신인 진훤이 비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가위 과격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만큼 신라 조정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지대하였음을 뜻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항로상의 사면초가를 뚫고자 하는 신라 조정의 절박한 입장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순천만과 이웃하면서 하나의 지형구 속에 자리 잡은 광양만에는 마로산성이 소재하였다. 마로산성은 당초 마로현의 치소(治所) 성(城)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 말 중앙 통제력의 이완을 틈타 이곳을 실질적으로 점거한 이가 순천 지역 호족 박영규 가문이었다. 마로산성에서 청해진에서와 동일한 당제(唐製) 도자기가 출토된 사실은 장보고 시대 이래로 이곳이 대당(對唐)·대일본(對日本) 교역의 삼각 거점이었음을 뜻한다. 박영규 가문은 대당·대일본 교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던 해상(海商)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박영규 가문의 교역 활동을 보호해 주었던 이가 신라 비장직의 진훤이었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해수문포도방경이나 중국제 도자기의 존재는 이곳이 대당 교역의 거점으로써 기능했음을 뜻한다. 진훤은 박영규 가문과의 세력 제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구축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박영규 가문의 상선이 입당(入唐)하면서 유학생이나 유학생들을 태우고 갔다. 그러는 가운데 진훤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맥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진훤의 세력 기반을 그 휘하의 공적 무력에만 국한시킨다든지 혹은 해적 소탕에서 발휘한 능력만으로 막연히 추측하였다. 그러나 진훤은 중국제 물품이 출토된 마로산성을 비롯한 그 일대를 세력권에 넣고 있었다. 신라가 일본에 수출하던 동경(銅鏡)의 존재까지 이곳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진훤의 경제적 기반은 대당·대일본 교역이나 그러한 해상들의 교역을 엄호해 주면서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진훤은 서남해안의 군소 해상 세력들을 제압·통제하는 한편, 해적들을 소탕하여 해상 무역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장보고 이후 50년 만에 진훤은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가장 강력한 세력가로 등장했던 것이다. 진훤이 전주(全州)로 정도(定都)한 900년에 신라의 대중국 기항지(寄港地)인 항주(杭州)에 도읍한 중원의 약소국인 오월국(吳越國)에 신속하게 사신을 파견한⁴⁾ 것도 순전히 해상 제해권 장악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진훤의 등장으로 해상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 나주 세력이 왕건과 제휴하였다. 그럼으로써 서남해안 제해권은 결국 진훤과 왕건이 양분(兩分)하는 추세가 되고 말았다.⁵⁾

진훤은 예하의 병력예다가 순천 지역 호족과의 혼인 관계를 통한 지역 세력을 흡수하였다. 나아가 그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횡행하던 해적 집단의 규합을 통하여 초기 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 진훤이 복무하던 승평항은 당나라를 내왕하는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이다 보니 인구와 재물이 몰려들었다. 자연 이 부근에는 도적 떼와 해적들이 횡행하기 마련이었는데, 진훤은 군인으로서 발군의 기개를 드러내었다. 잠을 잘 때도 창을 베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용기는 단연 다른 사병들을 앞질렀다. 그는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워 결국 비장으로까지 승진하게 된 것이다. 진훤이 일개 사졸에서 중견 장교를 넘어 사령관직으로까지 출세하게 된 비결은, 전적으로 성실한 그의 복무 자세 때문이었다. 창을 베고 잠을 잤을 정도로, 그는 유사시에 대비한 임전태세를 갖춘 늘상 긴장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먼저 발견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듯이 진훤은 항시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발군의 공로를 세울 수 있었다.

청년 장교 진훤은 이곳에서 마냥 세월을 흘러보내지는 않았다. 항구에

4) 『三國史記』 권50, 甄萱傳.

5) 이도학, 「신라 말 진훤의 세력 기반과 교역」, 『신라문화』 28, 2006.

드나드는 유학생이나 유학승 그리고 상인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큰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과의 교분을 통해 거대한 인맥과 부력(富力)을 착실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경세(經世)의 큰 뜻을 품고 있던 진훤은 불원간 닥칠 커다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진훤이 왕을 칭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도적 떼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케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선동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었지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옛 백제 지역 주민들의 잠들었던 혼을 일깨우는 정신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 지역 주민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백제의 재건'이라는 대명제(大命題) 속에 주변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명분의 선점(先占), 이것이 진훤의 급성장의 배경이 된다. 이는 그의 정치적 안목이 뛰어났음을 알려 주는 동시에, 오랜 기간에 걸쳐 거병을 준비했음을 뜻한다고 보겠다.

사실 천년 왕국이었던 신라는 기로에 서 있었다. 국가 권력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한 상황에 빠져 급속히 와해되어 가고 있었다. 조정의 부패와 사치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 등으로 인하여 농촌 사회는 파국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세금이 걷힐 리 없었다. 농민들은 촌락을 뛰쳐나와 유민이 되거나, 도적 떼가 되어 휩쓸고 다니는 형편이었다. 도처에는 굶주려 죽은 시체와 칼 맞아 죽은 시신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 권력의 붕괴에 편승하여 습격과 약탈만을 자행하는 도적들이 무리 지어 다녔다. 진훤은 이 무렵 사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냉철하게 성찰해 보았다. 신라 조정에 대한 대체 세력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도적 떼들이 휩쓸고 다니는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소수 귀족들의 수탈에서 농민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국가의 창건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3. 꿈과 희망의 소산, 백제의 부활

1) 거병과 청년 왕의 탄생

진훤은 지금의 경상북도 땅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출생지 전설에 따르면 본시 그 조상은 백제인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진훤은 백제의 재건이라는 장대한 포부를 구현하기로 했던 것 같다. 그런데 889년에 발생한 원종과 애노의 봉기와 신라의 방수군(防戍軍)인 진훤의 독립 시점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아자개가 그 봉기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아자개와 진훤은 상호 기맥을 통한 후에 일제히 봉기하였을 가능성마저 제기해 주고 있다.

진훤은 예하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의 순천과 여수 일대를 시발로 주변 고을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다. 한 달 사이에 5천 명의 무리를 모았을 정도로 그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존재는 일약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왕을 칭하면서 등장한 진훤의 그때 나이 26세였지만, 실제 거병(擧兵)한 시기는 이보다 3년 빨랐던 23세 때 일로 짐작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20대 청년 왕과 창업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의 첫 도읍지는 지금의 광주광역시 일원이 된다.

이후 그의 생애를 통해 한 위인의 빼어난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비전을 제시하며 난국을 헤쳐 가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진훤은 암울한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백제의 부활'이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가 단순히 농민 반란의 선동가나 수괴가 아닌 일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민심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시금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적 소탕을 통하여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항구에 근무하면서 유학생이나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탄탄한 브레인층을 확보하였다. 셋째 빼어난 정치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넷째 옛 백제 땅에서 ‘백제의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변 세력들을 휘하에 빠르게 포용하면서 정치 세력화시켰다. 다섯째 인구와 물산이 풍부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국가를 탄생시킨 진훤 정권의 전개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체제 정비기(889~900년),⁶⁾ 둘째 옛 백제의 영역 회복기(900~918년), 셋째 후삼국의 공존(共存)·정립기(鼎立期 : 918~925년), 넷째 통일전쟁기(925~936년)가 된다.

2) 국가 체제 정비기(889~900년)/

옛 백제의 영역 회복기(900~918년)

진훤은 지금의 광주광역시에서 세력 규모가 커지자 거점을 북상시켰다. 한반도 전체를 통괄하기에 유리한 전주에 도읍을 정했다. 그와 더불어 나라 이름을 당당하게 ‘백제’라고 선포하였다. 지금 이 왕국을 후백제라고 일컫고 있다. 그것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전주를 고도(古都)라고 부르는 이유는 후백제 왕국의 수도였던 데 기인한다.

전라북도 제일의 도시요 금강 이남에서 노령산맥 이북 사이의 정치와 문화 공간의 중심지가 백제 때 완산이라고 불리었던 전주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공간을 ‘완산문화권’이라 일컬을 수 있다. 필자가 최초로 제기한 용어인 것이다. 또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가 되었다.

후백제의 왕궁이 소재했던 곳은 중노송 2동 동사무소 앞의 ‘물왕말’ 일

6) 후백제 태동의 단초는 신라군 비장 출신의 진훤의 이탈과 독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시점은 889년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온당하다.

대가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초석들이 있었다.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 유항검의 묘소가 있는 중바위 윗편에는 왕궁을 용위하던 동고산성(東固山城)이 남아 있다. 이곳의 장방형 건물지를 발굴한 결과 전 면이 22칸에 달하는 대형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조족문(鳥足文) 기와가 출토되었다. 조족문은 백제와 관련된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나라가 망한 지 2세기가 훨씬 지났건만 백제를 부활시킨 장소에 그 문양 또한 부활하였다. 백제인들의 강인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진훤은 대왕(大王)을 칭하면서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반포하였다. 여기에는 '바르게 열고', '바르게 시작하고', '바르게 깨우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질곡과 파행의 칙칙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곧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연호였다. 이와 더불어 진훤은 신라보다 일렀던 백제의 역사를 재정립하겠다는 일종의 '역사 바로잡기'와 더불어 의자왕의 숙분(宿憤)을 푸는 것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진훤은 정치적 이데아로서 백제에 의한 국토 통일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비참하게 몰락한 백제왕조의 부활자로서 그 위상을 확립시켰다. 또 미륵의 대행자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하고 한 세상을 건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3) 후삼국의 공존(共存) · 정립기(鼎立期 : 918~925년)/ 통일전쟁기(925~936년)

(1) 가야고지로의 진출

진훤은 918년에 궁예를 축출하고 등장한 고려 건국과 왕건 정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한편, 왕건이 제시한 과거의 삼국을 복원하는 분할정립안(分割鼎立案)을 수용하였다. 이때 결호(結好)를 통해 설정한 후백제의 북경(北境)은 금강선이었다. 그런 관계로 과거 궁예 정권에 예속되었던 웅주(熊州)와 운주(運州) 등 10여 주현(州縣)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었

다. 이러한 결호에 따라 후백제와 고려 간에는 화평·공존이 7·8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진훤은 결호의 대상이기도 한 신라 영역을 좌시하지만은 않았다.

신라 영역 가운데 가야고지(加耶故地)는 신라에 대한 예속 강도가 약하였다. 진훤은 이곳에 대한 옛 백제의 영향력 복원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진례성(進禮城)을 비롯한 김해 일원을 장악할 목적을 지녔다. 결국 진훤은 합천(大良城)을 공함시킨 여세를 몰아 전격적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진훤은 신라 조정이 민첩하게 고려와 연합하는 동시에 고려의 신속한 개입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진훤의 가야고지에 대한 압박은 강주(康州) 호족 윤웅의 고려 귀부(歸附)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후백제 군대는 진례성으로 진격했지만 고려 군대의 개입에 따라 철군하였다. 그런 관계로, 고려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가야고지 호족들이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백제군의 집요한 가야고지에 대한 진출은 김해는 물론이고 부산 앞바다의 목마장(牧馬場)인 절영도에 대한 지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일본열도와의 교섭 루트를 확보하는 등 군사·경제적으로 다대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후백제는 중국 대륙의 오월(吳越)을 통해서는 한반도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런 한편, 후백제는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서는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면서 장보고 시절의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를 잇는 3각(角) 교역체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백제의 강주와 진례성 그리고 현재의 부산 앞바다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의 장악이 이루어졌다.

가야고지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924년과 925년에 후백제는 원신라 지역인 조물성(曹物城)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럼에 따라 양국이 최초로 정면에서 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원신라 지역과 가야고지가 전장화(戰場化)되었다. 그런데 양국 간의 결호 기간을 이용하여 지금의 경상남도 의령 지역을 기반으로 급속히 세력을 신장시킨 왕봉규(王逢規)라는 호족이 강주를 장악하였다. 후당(後唐)으로부터 천주절도사(泉州節都

使)·권지강주사(權知康州事)·회화대장군(懷化大將軍)의 관작을 받았던 왕봉규는 927년 4월 이후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종전에 인식했던 후백제가 아니라 고려에 의해서였다. 고려에 귀부한 강주 장군 윤웅을 제압하고 강주 지역을 장악한 왕봉규에 대한 보복은 고려의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왕봉규를 타멸시키고 고려 세력이 침투한 강주 지역을 놓고 후백제와의 각축전은 치열한 양상을 띠었다. 결국 후백제는 927년 5월에 강주를 장악하게 되었다. 진주 축석루 앞의 의암(義巖) 부근에서 출토된 926~931년 사이에 사용된 오월의 '寶正' 연호는, 이곳이 후백제의 영역권이었음을 웅변해 준다.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강주는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아울러 후백제는 정개(正開)라는 고유 연호를 적어도 901~910년까지 사용한 사실에 이어 오월의 연호를 채용했다. 그런데 문헌에는 후백제와 오월과의 관계가 928년 이후부터는 단절되어 있다. 그 공백을 최근에 축석루 부근에서 출토된 보정명(寶正銘) 기와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검 정변 이후에는 후백제가 후당의 청대(淸泰) 연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월과 후당의 연호 채용은 후삼국 각축전에서 중원 대륙이 접하는 비중이 상징적 의미 이상으로 작용했음을 웅변한다고 하겠다. 고려의 경우도 933년부터는 천수(天授) 연호를 폐기하고 후당의 '장흥(長興)'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⁷⁾ 후백제=오월, 고려=후당으로 이어지는 외교에서 양국은 933년 이후부터는 후당의 비중이 일층 증대되는 그 일변도의 외교를 숨가쁘게 전개했다.⁸⁾

7) 『高麗史』 권2,太祖 16년 조.

8) 이도학,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58, 백산학회, 2001.

4. 정치 · 경제 · 외교적 안목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진훤은, 내적으로는 호족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그들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신장시켜 나갔다. 그런 한편 호족들의 견제와 통제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 호족의 영내에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였다. 동시에 호족의 자제들을 상경시켜 볼모로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중앙군을 파견하였는데, 현지 호족 세력들의 지원 없이도 둔전(屯田)을 통해 그 주둔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그런데 진훤과 농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부정 일변도였다. 화곡(禾穀)과 인호(人戶)를 약탈하거나 양곡 운송을 습격한다든지 성(城)을 불태운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존재는 약탈자로서 집중 거론된 바 있다. 그런데 진훤이 농작물을 베어 간 것은 벽진군(성주군 벽진면)과 그 주변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단순 약탈로 간주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그 배경은 후백제의 신라계 호족 포섭을 방해하고 있던 이곳의 친고려계 호족 이충언의 존립 원천인 자량(資糧)의 소멸이라는 차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이충언의 지원으로 지금의 경상도 방면에서 활동하는 고려군의 병참원(兵站源)을 파괴한다는 전략에서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농민에 대한 약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양곡 수송의 습격도 “양곡을 운송하는 것을 습격한”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虛)를 찔러 강주(康州)를 습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호(人戶)의 약탈이나 성을 불태운 것은 고금의 일상적인 전쟁 양상이었다. 그러므로 진훤과 결부지어 그 성격을 운위하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이처럼 ‘약탈’을 일삼는 진훤 정권의 성격을 독자적인 체제보다는 신라 제도를 답습했으므로, 진훤이 전제적인 권력을 추구한 근거로서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신라적인 요소를 청산했던 궁예가 전제 권력을 구축했던 사실과는 정확히 대치(對蹠)되는 사안인 만큼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진훤의 경제적 안목은 둔전제의 실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농민

출신이었던 그는 혼란의 열악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신검(新劍)의 교서(敎書)에 적혀 있는 글귀이기는 하지만 “도탄에서 구해 주셨으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고”라고 하는 문구에 응결되어 있다. 즉 그는 농민들을 과중한 수탈과 질곡에서 해방시켰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둔전제의 시행과 관개(灌溉) 시설의 확충이었다. 「통진대사비문」에 따르면 진훤왕은 만민언(萬民堰)이라는 제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진훤 스스로가 둔전과 관개에 힘쓴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모든 백성들의 방죽’이라는 뜻의 만민언이라는 제방을 통해서도 그가 취한 일련의 시책의 무게중심이 농민과 관련한 농업경제의 증진에 두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합덕방죽과 나주에서의 둔전에 관한 전승은 우리나라에 둔전제를 본격 도입한 진훤의 농업 시책을 알려 주고 있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현지의 호족들로부터 군량이나 차승(車乘)을 차출받았던 왕건의 행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안목이 그가 웅강(雄強)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생각된다.⁹⁾

진훤은 외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진훤은 지금의 중국 절강성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오월국(吳越國)에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존재를 남중국에 알림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려는 의지를 과시했던 것이다. 또 이는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진훤은 북중국의 후당(後唐)뿐 아니라 지금의 요하 상류 부근인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흥성한 거란, 그리고 일본과도 외교적 접촉을 가졌다. 당시 후백제는 지금의 김해와 부산 앞바다까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개로 쓰시마와 통교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일본 측 문헌에 “전주왕(全州王)

9) 이도학, 「후백제 진훤의 농민 시책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2, 2002.

진훤이 수십 주(數十州)를 격파하여 대왕이라 칭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진훤은 인재 기용에도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였기에 그 주변에는 잘 짜여진 우수한 참모들이 포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참모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당나라에 유학 가서 3년 만에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최승우(崔承祐)라는 수재였다. 진훤이 국세(國勢)를 크게 떨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참모의 기용이었다.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가 막혀 있었지만, 출신보다는 사회개혁 성향이 강한 최승우같은 뛰어난 인재를 발탁·기용할 줄 아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 진훤의 불교 시책

백제 왕권의 상징이요, 미륵신앙의 본처(本處)가 익산 미륵사였다. 진훤이 익산을 중시한 데는 미륵사가 지닌 지대한 비중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혜거국사비문(惠居國師碑文)」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년이 지나 금산사(金山寺) 의정율사(義靜律師)의 계단(戒壇)에 나아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 용덕(龍德) 2년(922) 여름 특별히 미륵사(彌勒寺) 개탑(開塔)의 은혜를 입어 이에 선운산(禪雲山)의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단(壇)에 올라 설법(說法)하였다.

여기서 진훤은 미륵사에 개탑(開塔)했다고 하였다. 개탑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탑을 복구하고” 혹은 “전에 무너졌던 미륵사탑의 복구”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탑’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탑을 열었던 사실을 말

한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탑은 기본적 성격이 무덤인 것이다. 무덤을 연다는 것, 그것도 미륵신앙의 요람에 소재한 탑(무덤)을 열었음은 영불골 의식(迎佛骨儀式)이었다. 곧 불사리 신앙의 산물인 것이다.

진훤이 미륵사탑을 열었음은 불사리를 통한 미륵불의 출현이랄까 부활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륵사탑 안에서 때를 기다리던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함을 뜻하는 의식으로 보인다. 이때가 922년으로 미륵불을 자처했던 궁예가 몰락한 지 4년 후가 된다. 그렇다면 이는 진훤 스스로가 전륜성왕 사상에 입각해서 미륵사탑 안의 미륵불을 영례(迎禮)하려고 했던 의식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개탑’ 의례는 익산 금마산에서의 백제 ‘개국(開國)’과 짝을 이루는 일대 사건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이는 후백제의 연호인 ‘정개(正開)’의 이념을 구현하는 행위일 수 있다.

당시 진훤은 전륜성왕을 자처할 만한 배경을 충분히 구축했다고 판단되어진다. 920년에 진훤은 대야성(합천)을 함락시켰고, 구사성(창원)과 진례성(김해)까지 진격했을 정도로 그 위세는 낙동강 유역에 크게 떨치고 있었다. 921년에 진훤은 도선의 제자인 경보를 맞아 국사로 삼았을 정도로 불교 종단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절정을 구가하였다. 그러므로 진훤이 전륜성왕을 자처할 만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¹⁰⁾

진훤과 왕건은 서로 유력한 사원의 후원을 입기 위해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화엄종은 당시 남악과 북악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균여전(均如傳)」에 보면 화엄 교단 내부의 분열과 대립·갈등 양상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師)는 북악(北岳)의 법손(法孫)이다. 옛날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 2명의 화엄사종(華嚴司宗)이 있었다. 한 분은 관혜공(觀惠公)으로 백제 괴수(渠魁)인

10) 이도학, 「後百濟 甄萱 政權의 沒落過程에서 본 그 思想的 動向」, 『한국사상사학』 18, 2002.

진훤의 복전(福田)이었다. 또 한 분은 희랑공(希朗公)으로 우리 태조대왕의 복전이었다. 두 분은 신심(信心)을 받아서 향화(香火)의 원(願) 맺기를 청하였지만 원이 이미 달랐으니 마음이 어찌 하나이라. 내려와 그 문도(門徒)에 이르러서는 점점 물과 불처럼 되었으니 하물며 범미(法味)에서야. 각각 시고 짠 맛을 받았으니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관혜공의 범문(法門)을 남악이라 했고, 희랑공의 범문을 북악이라고 했다. 사(師)께서는 매번 남북의 종지(宗旨)가 모순되어 분간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시고 많은 갈래를 막아 한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위의 기록을 통하여 관혜는 진훤을 지지한데 반하여, 희랑은 왕건을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혜와 희랑 두 고승이 같은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정치적인 지지자의 차이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하였다. 해인사 안에서 후백제와 고려를 후원하는 두 세력이 생겨나 대립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후삼국 시대의 화엄종은 진훤을 지지했던 남악과 왕건을 지지했던 북악으로 갈려서 대립했던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립과 관련해 943년에 편찬되었다는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 말에 승통(僧統)인 희랑(希朗)이 이 절에 주지(住持)하여 화엄신중삼매(華嚴神衆三昧)를 얻었다. 그때 우리 태조가 백제 왕자 월광(月光)과 싸웠는데, 월광은 미숭산(美崇山)을 지켰는데 식량이 넉넉하고 군대가 강하였다. 그 적(敵)은 신(神)과 같아서 태조가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서 해인사에 들어가 희랑공(希朗公)에게 사사하였다. 사(師)께서 용적대군(勇敵大軍)을 보내어 왕건을 도왔다. 월광은 금갑(金甲)을 입은 군대가 공중에 그득 찬 것을 보고는, 그것이 신병(神兵)임을 알고는 두려워서 이내 항복하였다. 태조는 이런 이유로(희랑을) 경중봉사(敬重奉事)하여 전지(田地) 500결(結)을 시사(施事)하고 옛 사우(寺宇)를 거듭 새롭게 하였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백제 왕자 월광은 대가야국의 월광태자가 부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다. 해인사 입구에 현재 터만 남아 있는 월광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장인 미송산(고령군 쌍림면과 합천군 아로면의 경계에 소재)은 고령 읍내의 지산동 대가야 왕릉군을 굽어 보는 옆 산자락인데, 해발 733.5m의 정상에 축조된 둘레가 1,367m의 석축 산성이다.

이 성은 특이한 가야계 산성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산세가 험준하고 주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야가 넓게 잡히는 천연의 요새였다. 그러니 합천과 고령 지역을 에워싼 전투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돌하였는데, 희랑이 신병(神兵)을 보내어 왕건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겠다. 후백제와 고려가 합천 일원에서 빈번하게 군사작전을 펼친 것을 생각해 보면 허구적인 이야기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여하간 이 기록은 진훤과 불교 교단과의 관계, 또 그것이 후삼국의 쟁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시사해 준다. 불교 사상계의 장악이 소백산맥 안의 신라계 호족들의 항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은 의심할 나위 없다. 여하간 앞서 제시한 자료들은 진훤이 선종과 화엄종 모두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려 준다. 양종(兩宗)을 모두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산선문 가운데 무려 4개 파가 후백제 영역에 소재하였다. 즉 실상산파(實相山派 : 전라북도 남원 實相寺)와 동리산파(桐裏山派 : 전라남도 곡성 泰安寺), 그리고 성주산파(聖住山派 : 충청남도 보령 聖住寺)와 가지산파(迦智山派 : 전라남도 장흥 寶林寺)가 되겠다. 이는 고려 영역에 확실하게 소재한 선문도량이 수미산파(須彌山派 : 황해도 해주 廣照寺) 1개 밖에 없었던 사실과 크게 비교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선문도량 가운데 경보와 연결된 동리산파를 통해 진훤은, 유식(唯識)과 풍수지리사상을 포용하였고, 또 4개 선문의 단월(檀越)로서 그 사회·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겠다. 특히 전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실상산파의 경우 그 비중이 지대하였으리라고 믿어진다.

‘정개’리는 후백제의 연호를 사용했던 편운화상을 비롯한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것을 암시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구례 화엄사(華嚴寺)를 비롯한 지리산 일대의 사찰들도 진훤과 깊은 관련을 맺었음이 분명하다.

진훤은 기근과 수탈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고 절망에 빠졌던 농민들을 위무(慰撫)하고, 정국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써 불교 이데올로기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진훤의 신국가 건설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미륵신앙이 한몫을 하였을 것이다. 이 무렵 후백제 지역에서 조성된 불교 조각의 공통점은 통일신라 9세기 조각의 다소 침울한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달리 생기가 도는 밝은 미소의 온화하고 인간적인 불안(佛顔)이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신흥 국가 후백제의 약동하는 힘과 여유를 포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6. 영그는 통일국가의 꿈

진훤은 고려를 제압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진력하였다. 그의 생애는 대부분 전진(戰陣)에서 보냈는데, 후백제의 군사력은 고려를 갑절이나 앞질렀었다. 유계는 『여사제강』에서 “재력(財力)의 부유함과 갑병(甲兵)의 강성함은 (후백제가) 고려나 신라보다 나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가위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토대로 고려 군대를 연파하면서 진훤은 정국을 주도해 갔다.

진훤은 70 평생, 일반 사병들과 고락을 같이하였다. 또 갖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전장의 선두를 지키며 포효하는 한 마리 호랑이처럼 전진(戰陣)을 누볐었다. 이러한 대왕 진훤의 희생적 수범과 씩씩한 웅자(雄姿)는, 부하 사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도 남았다. 그는 병사들과 호흡을 같이 하

였기에 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훤의 생애에 있어서 감격적인 순간의 하나가 927년의 경주 입성이었다. 진훤은 경주 포석정에서 유희를 즐기던 신라 경애왕을 생포·처단하였다. 왕건과 유착되어 끊임없이 진훤을 자극하던 경애왕에 대한 응징이었다. 더구나 구원 나온 고려 군대를 대구 공산에서 포위·궤멸시켰다. 왕건은 신승겸이나 김락과 같은 막료들을 죄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을 정도로 혼줄이 났던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그 주변에는 ‘반야월’·‘안심’·‘파군치’·‘살내’·‘해안’ 등과 같은 공산 전투와 관련한 지명들이 전한다.

공산 전투 직후 진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나의 기약하는 바는 평양성 문루에 활을 걸어 두고 패강(대동강)에 말의 목을 축이는 데 있다!”라고 하였듯이 통일 군주에 대한 자신감이 어려 있는 것이다.

7. 운명의 뒤틀림, 그리고 재평가 기다리는 진훤왕

웅장한 포부를 지녔던 진훤왕이었다. 그렇건만 930년의 안동 병산 전투에서 왕건에게 결정적으로 1패함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안동시 북쪽의 안기동과 안막동 경계에 소재한 나즈막한 병산과 석산에서의 전투에서였다. 그러나 현장을 밟아 보면 두 산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다. 그러나 후삼국의 진운을 결정지은 전투가 안동에서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안동 시내의 삼태사묘(三太師廟)를 비롯하여 술한 관련 지명과 더불어,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차전놀이의 기원도 이 전투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후백제 왕국은 웅강함을 잃지 않았지만 왕위 계승 분쟁이라는 운명의 뒤틀림이 터졌다. 진훤은 역량 있는 넷째 아들 금강에게 대권을 맡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큰아들 신검 일파의 급습을 받아 김제 금산사

에 유쾌되고 말았다. 백제의 혼을 부활시킨 진표율사의 체취가 남아 있는 금산사에서였다. 그는 중국에 거래의 대통합을 위한 용단으로서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소아(小我)에 집착하지 않은 진정한 용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후백제가 멸망하고 난 직후 진훤은 70세를 일기로 지금의 논산 근처 어느 사찰에서 영육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접었다. 그의 능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의 야트막한 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자신이 힘차게 백제를 부활시켰던 전주 땅을 바라보고 있다. 또 그의 사당은 고향의 초입에 세워져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청계 마을이 되겠다. 170여 년 전에 세워진 사당 안에는 ‘후백제 대왕 신위’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진훤왕은 고향 어귀에서 동민들의 기억 속에 반추되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역사의 패자인 진훤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그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이고 잊혀져 가는 후백제 유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닐까?

그러나 이제 승부에 승부를 거듭하는 전쟁으로 숨도 돌릴 수 없는 난세를 헤쳐 가면서,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혁명가로 진훤왕은 재평가되고 있다. 그는 말세와 같은 암울한 세상에, 그것도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농민의 아들이라는 한미한 ‘웃’을 입고 태어났지만, 결단코 그러한 현실에 짓눌리기를 거부했던 혁명가로서 말이다.

참고문헌

- 이도학,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1998.
- 이도학,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 이도학, 「진훤의 출신지와 그 초기 세력 기반」, 『후백제 건훤 정권과 전주』, 전북 전통문화연구소, 2001.
- 이도학,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58, 2001.
- 이도학, 「후백제 진훤의 농민 시책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 62, 2002.
- 이도학, 「後百濟 甄萱 政權의 沒落過程에서 본 그 思想的 動向」, 『한국사상사학』 18, 2002.
- 이도학, 「궁예와 진훤의 비교 검토」, 『궁예와 태봉의 역사적 재조명』, 제3회 태봉학술제, 칠원군·칠원문화원, 2003. 11.28
- 이도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상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 『전통문화논총』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04.
- 이도학, 「신라 말 진훤의 세력 기반과 교역」, 『신라문화』 28, 2006.
- 이도학, 『역사가 기억해 주는 이름』, 서경문화사, 2007.
- 이도학, 「궁예와 왕건의 행적과 원주」, 『신라 말 고려 초기 원주의 역사와 문화』, 연세대학교근대한국학연구소 제18회 심포지엄, 원주 운곡회관, 2007.11.23: 「궁예의 복원경 점령」, 『동국사학』 43, 2007.
- 이도학, 「신라 말 후백제 진훤 세력의 성장과 남중국 교섭」, 『第9屆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연토회 논문집』, 절강대학교 한국연구소, 2008.
- G.Cameron Hurst III,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ersonalities in the Founding of the Koryo Dynasty(Korean Studies Forum, No 7, 1981; 이도학 譯, 「선인(善人), 악인(惡人) 그리고 추인(醜人)–고려 왕조 창건 속의 인물들」, 『우리문화』 1989년 3~4월호; 『한국고대문화 산책』, 서문문화사, 1999.

견훤의 전주 천도와 왕궁 위치

김 주 성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1. 견훤의 전주 천도

2. 왕궁의 위치

전주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코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전주이다. 두 가지 코드를 전주는 충분히 활용하여 전통 도시로서의 발전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 논고는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왕도는 궁궐을 중심으로 수도의 위용을 갖추기 위한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37년의 짧은 기간이라 왕도 구성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었다고 보는 견해와 그래도 왕도 구성을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계는 후자 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이다.¹⁾ 궁궐은 국왕의 권위 상징이다.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궁궐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웠을까. 도성에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 갖추어져야 한다. 성곽 내에는 궁궐을 보좌해 주는 관청과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관료와 주민의 거주지와 경작지, 도로체계,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사찰이나 성황당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도성 밖에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방어성과 지방과 통할 수 있는 교통체계와 신호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전해지는 사료가 너무 적어 버거울 수밖에 없다.

1. 견훤의 전주 천도

견훤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명확히 경상도 상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A-1)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本姓은 李씨인데 후에 甄씨라 했다. 아버

1) 전영래, 「후백제와 전주」, 『후백제 견훤 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지 阿慈介는 以農自活하여 후에 起家하여 將軍이 되었다.

(『삼국사기』 50 견훤전)

A-2)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咸通 八年 丁亥生(867)이다. 本姓은 李씨인데 후에 甄이라 하였다. 아버지 阿慈介는 以農自活하여 光啓中(885-887)에 沙弗城을 근거로 하여 자칭 將軍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

이렇게 명확하게 경상도 상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이 설을 제기한다는 것이 어렵다. 한편 『삼국유사』에 설화 형태로 실린 다음 기사가 떠오른다.

B-1) 옛날에 光州 北村에 어떤 부인이 살았는데 한 딸이 있어 용모가 단정하였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일 밤마다 紫色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찾아와 交婚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버지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의 옷에 찢러 놓아라”고 말하였다. 딸이 그 말대로 한 다음, 날이 밝아 그 실을 찾아보니 북쪽 담장 아래에서 큰 蚯蚓(지렁이)의 허리에 꿰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임신하여 男兒를 낳았는데 나이 15살이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

이 설화는 고기에 채록된 것을 일연이 다시 인용한 것이다. 이 설화에 의하면 견훤의 부는 광주 북촌의 큰 지렁이인 썸이다. 그 지렁이는 밤마다 귀인으로 상징되는 자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아마도 큰 지렁이는 광주 북촌에 살았었던 세력자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견훤의 아버지가 광주 북촌 출신이라면, 견훤 역시 상주 출신이 아닌 광주 출신이 되는 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견훤은 처음 세력을 확장시킬 때 공적으로는 ‘奎武公等州軍事’를 칭하였다. 군사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군대의 최고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주와 무주, 공주는 옛 백제 지역을 아우르는 셈이다. 통일 신라 시대에 이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대부분 경주 중앙인들이었을 것이다. 지방관에 대한 반감이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전화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견훤이 초기에 旬月之間에 무리를 5천이나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옛 백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통일신라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을 것이다. 경상도 역양을 구사하면서 옛 백제 지역민들의 정서에 호응한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즉 견훤은 광주 출신으로 옛 백제 유민의 정서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견훤은 광주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견훤이 900년 무주에서 전주로 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다. 신호철은 나주 세력의 이반으로 광주의 배후 지역이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어 전주로 천도하였다고 하였다.²⁾ 이 견해는 나주 세력이 왕건과 결탁한 시점이 903년이기 때문에 견훤은 900년에 전주로 천도하여 사건 전개 과정상 앞뒤가 뒤바뀐 셈이다. 이를 지적하면서 김수태는 통일 신라 시대에 전주에 군사력이 집중되었던 점을 부각시켰다. 즉 견훤은 군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신라의 군사 조직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주로 천도를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³⁾

군사조직 주명	23군호 단계				신군제 단계		
	6정	10정	5주서	만보당	39여갑당	9주정	10정
무진주		미다부리정		무진주 만보당	여갑당	무진주정 (무주정)	미다부리정
완산주	완산정	거사물정	완산주서	완산주 만보당	소경여갑당, 여갑당	완산주정 (전주정)	거사물정
비고	경덕왕의 군제개혁으로 소멸	군제개혁 이후에도 존속됨	경덕왕의 군제개혁으로 소멸	경덕왕의 군제개혁으로 소멸	행방미상		

2) 신호철, 『후백제 견훤 정권 연구』, 일조각, 1993, 51쪽.

3) 김수태, 「전주 천도기 견훤 정권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15, 1999, 271~272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세기 후반에 설치된 23군호 단계에서는 전주에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군사력이 집중되었으나, 경덕왕 대 이후에는 무진주와 완산주의 군사력이 동등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문기는 경덕왕 대에는 무주와 전주의 군사적 기반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⁴⁾ 견훤이 전주로 천도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에 892년 견훤이 무리 5천을 거느리고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는 왕이라고 했지만, 공적으로는 ‘奎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라고 했던 점을 다시 상기해보자. 무주를 장악한 견훤이 무주를 머리말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주를 앞세우고 있으며, 전주자사를 칭하고 있다. 그만큼 견훤은 일찍이부터 전주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견훤이 전주를 매우 중시했던 점은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백제는 한산, 즉 오늘의 서울에서 개국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고 인식했던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 그가 의자왕의 숙분을 풀고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의도했기 때문에 자신을 백제왕으로 칭했다. 금마산은 금마에 있는 어떤 산을 지칭했을 것이다. 금마는 전주와 인접해 있는 곳이다. 전주 동고산 정상에서는 금마가 그대로 보인다. 견훤은 무주를 점령했을 때부터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어 백제의 건국지로 여겼던 금마산이 바라보이는 전주를 중요시했다고 보여진다. 결국 견훤은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주를 일찍부터 중시하고 마침내 900년에 전주로 천도했다고 생각된다.

견훤이 전주를 일찍부터 중요시여겼던 것은 마한의 정통성을 넘어서고 조선 준왕의 남천을 염두에 둔 오랜 정통성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

4) 이문기, 「견훤 정권의 군사적 기반」,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117쪽.

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유도 국민의 자긍심을 키워 자발적인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보다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는 무주는 지역적으로 너무 남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다 삼한의 중앙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주로의 진출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주 호족의 반발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나주 호족은 903년 왕건과 결탁하고, 견훤은 900년 전주로 천도하여, 나주 호족이 반발하여 견훤이 전주로 천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상의 순서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견훤이 전주로 천도했기 때문에 나주 호족이 반발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견훤과 나주 호족은 일찍부터 대립되었던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주 호족도 당시 해상 세력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존재였다. 무주 옆의 나주에서 자꾸 탄지를 거는 녹록치 않은 형세를 견훤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2. 왕궁의 위치

왕도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심은 궁궐이다. 궁궐은 권위의 중심이며, 권력의 핵심부라고 하겠다. 먼저 견훤은 전주의 어느 곳에 궁궐을 만들어 경영했을까.

전주에 천도한 견훤은 왕궁을 어디에 세웠을까, 왕도는 어떻게 구성했을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주의 동고산성에 가면 거의 9부 능선쯤에 대형의 건물지가 노출되어 있다. 산꼭대기에 왜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었을까. 전영래는 이 건물을 왕궁터로 추정하였다. 전영래는 이 견해를 숙종 14년(1688)에 쓰여진 『성황사증창기』에 보이

는 ‘古基面北…移建坐卯 卽世所謂甄萱古宮墟也…’ 기록으로 보강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왕궁을 둘러싼 궁성과 외성·중성·내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조법종에게 이어져 상당히 유력한 견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정용은 이와 다른 주장을 제기하였다. 동고산성에서 서북쪽으로 오목대에 이르는 구간과 북쪽으로 기린봉을 지나 중노송동에 이르는 능선상에 내성과 중성의 성벽을 찾고자 한 그는 축성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를 표방하였다. 이어서 그는 현재 전주시청의 맞은편에서 고산으로 통하는 도로 사이에 있었던 고토성을 왕궁으로 비정하면서 고토성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자연 지형으로 보아 당시의 주요 건물과 취락이 입지하는 시가지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고산성은 고토성의 배후 방어성으로 추정하였다.⁵⁾ 최근 전라감영 부지의 발굴은 건훤 왕궁성에 대한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롭다. 전라감영지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4월 24일에 걸쳐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었다.⁶⁾ 발굴 결과에 따르면 조사 지역의 토층은 크게 4층으로 구분되는데, 3층은 고려 시대 유구였으며, 4층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유구로 석렬, 부석시설, 담장시설, 배수로 등의 유구와 건물지 1동 등이 확인되었으며, 다수의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와 ‘官’ ‘窰口’ 자명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이에 전라감영지가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⁷⁾ 이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종래 건훤의 도성을 생각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온 사실이 있다. 그것은 『완산지』에 실린 『향리기』의 구전이다. 이에 의하면

5) 성정용, 「후백제 도성과 방어체계」, 『후백제와 건훤』, 2000.

6) 발굴을 담당한 강원중이 약보고서 형식으로 「전주 전라감영지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전주학연구』 2, 2008을 발표하여 이를 참고하였다.

7) 강원중, 위의 논문, 175쪽.

C) 鄉里記言 舊傳州治坐東向西 不知何時沿革 改爲南向…南大川舊從梧木臺
 下流去 川道至今尙存 閭閻之中 掘地深尺 則往往皆沙礫 想是舊日水流處
 (『향리기』에 말하기를 구전에 의하면 주치는 서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인지 그 연혁을 알 수는 없으나, 고쳐서 남향이 되었다.… 南大川은 오래
 전에는 오목대 아래로 흘렀다. 그 물길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으니 閭閻의
 집을 한 尺 정도 파면 왕왕 모두 沙礫인 까닭에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
 라고 생각된다.)

이러 하여 州治가 서향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남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 그 시기를 후백제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로 추정했던 것이다. 이것
 은 고려가 후백제 지역을 반역향으로 규정하여, 전주의 지세를 바꾸어 놓
 으려고 했다는 의도와 맞물려 상당히 근거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러나 『완산지』에 의하면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향리기에 의하면
 그 시기는 南大川의 물길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은 남
 대천 즉 전주천이 오목대에서 대략 450m 정도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데 남대천은 원래 오목대 밑을 거쳐 흐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1942년
 에 편찬된 『전주부사』에서는 오목대를 휘돌아 직진하여 구철도를 따라 지
 금의 시창을 거쳐 덕진지로 다시 추천으로 흘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예전의 철길을 따라 흘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⁸⁾ 어느 시기엔가는 그렇게
 물줄기가 잡혀 있었던 시기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라감영지의
 발굴로 인하여 적어도 물줄기가 그렇게 잡힌 시기는 통일신라 이전의 일
 로 추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견훤의 궁궐터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모
 르지만, 적어도 오늘의 전주천 물길은 통일신라 시대에도 비슷했음을 확
 인한 셈이다.

동고산의 대형 건물지는⁹⁾ 견훤의 궁궐터라고 추정되어 왔다. 유구에 의

8) 『국역 전주부사』, 2009, 167~169쪽.

하면 전면 84.2m, 측면 14.1m로 기둥 자리는 236개, 전면 22칸 측면 4칸으로 총 188칸으로 간주로 보아 2층 이상의 건물로 추정 복원된다. 이 건물 유구에서 유일하게 막새류가 출토되어 ‘주건물지’로 명명되었으며, 궁궐 건물용도로 추정되었다. 이 건물지에서는 암막새도 출토되어 건물의 건립 시기를 추정하게 해 준다. 특이하게 무사가 ‘술州城’이라고 새겨진 명문의 좌우에 성곽을 상징하는 문양 안에서 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아무래도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당시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역시 ‘전주성’ 명문 좌우에 와운 사이에 서조(혹은 봉황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가 새겨져 있는 암막새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서조 문양은 경주의 월성과 안압지, 그리고 광주 무진고성에서 출토된 예가 보고되어 있다. 무진고성의 축조 시기는 880년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880년 이전 시기로 본다면 신라의 중앙 권력이 간여하여 축성되었을 것이며, 만약 880년 이후라면 중앙 권력과 무관한 호족 세력-건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에 의해 축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전주성과 무진고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官’ 자명 기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석이다. 즉 880년 이전에 축성되었다면 국가나 관과 관련된 방어 시설로,¹⁰⁾ 880년 이후에 축조되었다면 통일신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이 성을 축조하여 타 집단과의 구별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해석이다.¹¹⁾ 많은 연구자들은 전주성의 축조 시기를 신라의 중앙 권력과는 무관한 건훤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주성을 건훤의 궁궐터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추정도 최근의 동고산성 발굴 결과로 달리 보아야 할 상황이

9) 이 건물지에서 ‘전주성’ 명문이 발견되어 ‘건훤전주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서는 줄여서 전주성이라고만 하겠다.

10) 구문회, 「광주 무진고성 출토 명문와의 검토-9세기 후반 신라 지방사회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연구』 3, 국립민속박물관, 2001, 5쪽.

11) 『무진고성』 II,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162~163쪽.

되었다. 2004년 3월 8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산성의 남쪽 능선 정상부의 제5, 7, 11건물지, 남동편에 돌출한 능선 정상부의 제8건물지를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그 결과 건물지들이 성벽을 따라 장방형으로 축조되어 성 밖의 감시 및 성곽 수비의 기능을 겸한 목적으로 건축되었을 여지가 높다고 한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누각형으로 추정되고 있고, 숙식 및 조리를 위한 시설이 없는 점, 생활 용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건물들은 외부를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성곽의 수비적인 기능을 행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 건물지들이 자리한 능선은 ‘좁은목’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지점으로 전주에서 남원 방면으로 통하는 길목을 감시하거나 성곽을 방어하기에 좋은 입지를 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¹²⁾ 지금까지는 이러한 건물지들이 궁궐을 구성하는 부속 건물지로 파악되었다. 자연 주건물지인 대형 건물지를 궁궐로 파악한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대형 건물지에서도 역시 생활을 위한 온돌 시설이 보이지 않으며, 샘물이 하나밖에 찾아지지 않아 궁궐의 기능을 수행할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9부 능선에 위치하여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에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주가 통일신라 시대에 9주 중의 하나인 완산주의 주치였다는 점이다. 주치이기 때문에 당연 지방행정의 치소인 州司가 있었을 것이다. 州司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완산지의 남대천의 물길이 방향을 틀었다는 시기를 고려왕조 성립기라고 믿는 선학들은 노송동 방면에서 주치의 위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대천의 물길이 적어도 통일신라 이전까지는 오늘날과 같이 흘렀다는 것이 명확한 현 시점에서는 노송동 방면에서 찾기는 힘들게 되었다. 견훤이 노송동 방향에 토성

12) 김중문·강원중, 『全州 東固山城 建物址 4次 發掘調査』, 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2006, 64쪽.

을 쌓았다는 것은 전주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보강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송동 방향이 아닌 다른 쪽에서 주치소를 찾아야 한다. 아마도 주치소는 최근 발굴된 전라감영 자리 일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것은 1912년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격자형 토지 구획을 추출한 이경찬 견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경찬은 전주에서 드러나는 격자형 토지 구획은 적어도 9주5소경제가 완비되는 신문왕 5년(685)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³⁾ 이러한 격자형 토지구획을 만든 이유는 주치소를 중심으로 정연한 지방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된다.

통일신라 시대 전주의 주치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주산의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산은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시대 지리지에 의하면 전주의 주산은 건지산으로 나온다.¹⁴⁾ 그런데 고려 이규보는 ‘中子山이란 산이 가장 울창하니, 그 고을에서는 제일 큰 鎮山이었다. 소위 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불리우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동국이상국집 23권 記 南行月日記)이라 하여 中子山을 전주의 진산이라고 전해 주고 있다. 中子山은 승암산을 일컫는다. 이로 보아 고려 시대 전주의 진산은 승암산임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변하면서 진산이 승암산에서 건지산으로 변하였다고 하겠다. 전주의 古老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주 이씨의 조상묘가 건지산에 있기 때문에 건지산을 진

13) 이경찬은 격자형 토지 구획의 출현은 신문왕 대로 이해하였으나, 건훤의 왕궁성 위치를 전영래의 견해를 따라 동고산성 아래의 구릉지 일대로 파악한 결과 통일신라 시대의 주치소도 역시 동고산성 아래의 구릉지로 파악하였으며, 오늘날 전주감영 일대를 단순히 하천변의 저습지에 격자형 토지 구획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이경찬, 「전주의 도시 형성 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 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70-80쪽).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全州府 山川條 乾止山 在北六里 鎮山
湖南邑誌 完山誌 山川條 乾止山 自鎮安縣馬耳山來 爲府之鎮山.

산으로 삼았다고 한다.¹⁵⁾ 실제로 건지산은 전주의 북쪽에 있는 높이도 낮고 규모도 작은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전주 고지도에 의하면 건지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 높고 웅장하게 그려져 있다. 진산을 중요시했다는 관념의 표현일 것이다. 여하튼 고려 시대까지 전주의 진산은 승암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전주의 도시 좌향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뀐 시점을 고려왕조가 개창되면서 후백제의 통치 이념과 연결되었던 전주의 도성 구조와 체계를 변화시켰다고 이해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전주천의 물길이 서쪽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도시의 중심부가 노송동에서 객사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하였다.¹⁶⁾ 고려 시대까지 전주의 진산은 승암산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 견해는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에 나타난 차령 이남의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를 너무 의식하고 있었던 견해가 아닐까 싶다. 아마도 완산지에 보이는 도시 좌향의 변화는 도시 중심부의 이동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진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다. 통일신라 시대 전주의 진산이 승암산이었다면, 전주감영 부근에 있었다고 추측되는 주치소는 승암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향인 셈이다. 역시 건지산이 진산인 조선 시대에는 전라감영은 남향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주산을 놓고 보아도 통일신라 시대의 주치소는 조선 시대의 전주감영 부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전주천 물길 변화로 인하여 도시의 중심이 점차 서쪽으로 옮겨졌다는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은 전주부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완산지 『향리기』에 보이는 사료를 인용하여 전주천 물길이 서쪽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를 전영래가 받아들여 후백제 도성과 견훤의 왕궁터를 비정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다시 조범중은 이 견해를 받

15)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1993, 162~168쪽.

16) 조범중 「後百濟 全州의 都城 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9, 2003.

전시했다. 구 KBS 내의 일명 거북바위를 기준으로 사령체제를 설정하였다. 즉 견훤의 왕궁터를 노송동으로 비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기린, 봉황, 거북, 용으로 상징되는 지명을 찾아 사령체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견해는 후백제 시대는 풍수지리설이 상당히 발전하여 전형적인 4신도 신앙이 이미 고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령체제는 풍수지리설의 4신도의 방위 관념을 직접적으로 투영하지 않고 있다는 애매한 설명으로 사령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견훤의 왕궁터로 비정되는 노송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쪽 청룡에 해당하는 용머리고개가 노송동의 서쪽에 비정되기 때문이다. 또 봉황암의 위치가 현재 어느 위치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약점도 노출되고 있다. 한편 전주천 물길의 변화도 확실하지 않다. 천 년 전의 물길과 지금의 물길이 많이 달랐으리라는 점은 인정된다. 한백당에서 직진한 물이 오목대까지 흘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백당에서 직진한 물이 오목대를 휘돌아 구철도를 따라 흘렀다는 전주부사의 견해는 최근의 발굴 성과로 보아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백당에 부딪힌 물은 역시 직각으로 꺾여 지금의 전주천 물길과 거의 같은 방향 아니면 같은 코스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 금암동 지역의 지하에서 나오는 강돌이나 배를 매어 두었다는 지명은 전주천 물길이 아닌 모래내 물길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보아 전주천 물길의 변화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한 견해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전주부사에 나오는 견훤의 토성지로 전해지는 노송동의 인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각형의 커다란 석재와 천석 1만 개의 존재이다.¹⁷⁾ 전주부사에서는 이 돌을 왕성의 건축 초석으로 파악하였다. 노송동 일대가 중요시되었던 시기는 아무래도 견훤의 집권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석재의 용도가 꼭 왕성 초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17) 『국역 전주부사』, 782쪽.

확실하지 않다. 진안 방면을 방어하기 위한 토성을 축조했던 만큼 그곳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설과 관련된 초석은 아니었을까 싶다. 더 이상의 추구가 어려워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한다.¹⁸⁾

18) 이경찬의 연구에 의하면 전주의 격자형 토지 구획은 155m와 150m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중앙동과 노송동 부근의 격자형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기를 달리하면서 격자형 토지 구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위 논문, 60~69쪽).

후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송 화 섭 | 전주대학교 교수

1. 서론
2. 後百濟의 全州 定都와 그 배경
3. 후백제의 대외 교섭
4. 후백제의 대외 문물 교류
5. 맺음말

1. 서론

후백제는 892년 광주에서 깃발을 처음으로 치켜들었다. 통일신라 말 각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호족들이 발호하여 독립 정권을 출현시키는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신라의 방수군이었던 견훤은 광주에서 지방세력과 호족들을 끌어들이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백제의 부활을 자임하는 왕권의 출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백제의 영역을 장악하려는 의지와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견훤이 “新羅西面都統 指揮兵馬制置 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禦史中丞 上州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라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서한 데서 알 수 있다. 견훤은 스스로 자신은 신라서면도통으로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라는 직분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全州·武州·公州 등 백제 영역의 군사권을 관장하는 지절도독이며 全州刺史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전주 자사는 전주의 州知事를 뜻하는 것으로, 견훤은 전주에 도읍할 뜻을 품고 광주에서 호족세력의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전주에 도읍을 정하기 이전에 전남 권역을 완전하게 장악할 의도에서 광주에서 8년간 후백제 창업 기반을 조성한 뒤, 900년 전주에 정도하여 후백제왕이라고 칭호하고 중국과 대외 교류를 추진하였다. 대외 교류는 국가의 공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견훤에게 대외 관계는 매우 중시하는 정책적 과제였다.

2. 後百濟의 全州 定都와 그 배경

『三國史記』卷 第50 列傳 第10에 견훤이 스스로 말하기를

(A) 견훤이 서쪽을 돌아다니다가 완산주에 이르니, 주의 백성들이 열렬히 맞이하였으며, 견훤은 인심을 얻어 기뻐하였다. 좌우 관리들에게 내가 삼국 시초의 일을 상고하여 보건대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혁거세가 일어났으므로 진한과 변한이 따라 일어났다. 이때에 백제는 나라를 금마산에 창설하여 그 역사가 600여 년이 되었는데 총장 연간 당 고종이 신라의 요청에 따라 소정방 장군이 13만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신라의 김유신이 군사력을 정비하여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협력하여 백제를 격멸하였으니 지금에 내가 어찌 도움을 전주(완산주)에 정하여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후백제왕이라 칭하고 관제를 설정하고 사무를 분담시켰다.¹⁾

(A)의 내용에서 견훤의 역사 인식을 다음과 같이 추려낼 수 있다.

첫째, 견훤은 통일신라의 장수 출신으로서 一統三韓意識을 갖고 있었다. 마한이 신라보다 먼저 일어났고, 백제는 금마산에서 나라를 일으켰다는 역사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견훤이 단군-기자-마한-삼국통일신라 라는 고대사관²⁾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금마산은

1) 『三國史記』卷 第五十 列傳 第十 甄萱.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六百餘年.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庾信卷土 歷黃山至泗泚 與唐兵合攻百濟滅之 今子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2) 이만열, 「17·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의 歷史認識』 하권, 창작과비평사, 1976, 351쪽.

전라북도 익산 미륵산이며, 금마에는 백제 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저토성과 오금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위만조선에 쫓겨 내려온 기자조선의 準王이 남천하여 韓地에 이르러 韓王이 되었다는 한지를 金馬로 비정하고 있다. 견훤은 백제가 금마에서 나라를 일으킨 지 60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견훤은 마한이 일어난 금마에서 백제가 일어났다는 역사 인식은 일통삼한 의식에 기초한 것이며, 마한-백제-(통일신라)-후백제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³⁾

둘째, 후백제의 정통성은 백제의 국가 의식을 승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견훤은 백제의 멸망이 신라가 당군을 끌여들여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역사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견훤은 신라 정부가 서남해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견한 방수군이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용감한 기풍으로 군사의 선봉에서 서서 진두지휘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裨將이 되었다. 견훤이 서남해 방수군으로 총력을 기울이던 때에, 신라의 중앙에서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간신들이 정권을 농락하고 법령을 문란케하는 등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으며, 흉년, 기근, 질병으로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적 떼들이 별떼처럼 일어나는 등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견훤은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신라 정부에 매우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견훤의 적개심은 경주에 들어가 포석정에서 궁녀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경애왕을 처형하고 김부를 경순왕으로 옹립시키는 구국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견훤의 신라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경애왕을 처형하고 경순왕으로 교체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왕을 폐위하고 옹립할 정도로 견훤에게 막강한 군사적 장악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견훤은 全州 定都를 천명하고 있다. 견훤은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3) 조법중, 「후백제 견훤의 역사계승의식」,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주류성, 2000.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에 비분강개하고, 전주에 후백제의 도움을 정한 명분을 찾고 있었다. 견훤의 명분은 백제의 계승 국가인 후백제를 전주에 도읍하여 의자왕이 겪은 패망의 울분을 씻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견훤이 광주(또는 武州)에서 호족들을 규합하면서 백제의 귀속의식이 희박하였음을 피부로 느꼈기에 백제의 국가 계승을 전주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하였다.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며 백제부흥군들을 격멸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백제부흥군의 활동 무대가 충남 예산과 전북 군산, 부안, 김제였기에 전남 지역의 백제인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견훤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지역은 백제 시대에도 마한 전통의 세력 기반이 유지되었기에 마한의 귀속의식은 강한 반면 백제의 귀속의식은 매우 낮았다고 보아야 한다.⁴⁾ 이러한 지역적 정서 때문에 견훤은 백제의 국가 계승을 실현한 도읍지로 전주가 광주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견훤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지배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감히 공공연하게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지역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견훤은 후백제의 건국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감히 공공연하게 왕이라고 칭하지 못하고(猶不敢公然稱王) 자서하여 ‘신라서면도통 지휘병마제치 지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 행전주자사 겸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개국공’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한마디로 견훤은 백제의 부활을 꿈꾼 장수였는데, 그 꿈을 실현할 만한 곳을 전주로 꼽은 것이다. 견훤이 전남 지역에서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파악한 결과 백제 부활에 대한 호응이 낮은 반면에 전주 사람들은 견훤의 백제 부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에 “行全州刺史”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견훤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선언한 배경에 “견훤이 서쪽을 순행하다가 전주에 이르렀는데, 전주 고을 사람들이 열렬하게 맞이하자

4)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48쪽.

견훤은 인심을 얻어 기뻐하였다(蒼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蒼喜得人心)는 전주 민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에서 견훤이 전주에 후백제의 도움을 정할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견훤은 전주를 백제권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② 백제인들의 나라를 지키려 했던 백제부흥 전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③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 백제를 격멸시킨 것에 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견훤이 백제 의자왕의 율분을 씻겠다는 의욕은 백제의 국가 계승의식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견훤은 무진주에서 8년간 지방 호족들을 규합하면서 민심을 세심하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주에 도성을 조성하면서 백제의 국가 계승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백제의 도성인 소주城을 조성하면서 부여 부소산성의 건물을 조성하는 방식과 같은 형태의 외주 초석 밖에 석재로 담장을 두르는 건물 조성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⁵⁾

이와 같이 『삼국사기』 권 제50 열전 제10 견훤전에 나오는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견훤은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도읍하였다기보다는 전주에서 처음 후백제를 도읍했다고 보아야 한다. 견훤은 892년 광주에 독립 정권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8년간 지방 세력들을 포섭하고 국가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하였을 뿐 후백제를 건국하지는 못하였다. 견훤은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라 하였지만 감히 왕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 견훤은 왕의 칭호는커녕 국가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신라서면도통 및 지절도독이라는 신분을 자서하고 있다. 그런데 900년에 전주에 도움을 정하

5)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동고산성』, 2006, 66쪽.

고 후백제의 국호를 공식 선언하고 후백제왕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따라서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것은 遷都가 아니라 定都로 보아야 한다. 견훤왕은 후백제왕 즉위 원년에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독립국가 및 국왕으로 승인을 받고 오월국왕은 답례로 사신을 보내 檢校太保라는 벼슬을 제수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왕권의 권좌에 오르려면 외교적 승인을 인준받는 절차를 밟는 게 상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견훤이 왜 광주에 도읍을 정하지 못하고 전주에 정도하게 된 것일까.

견훤이 광주에 정도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요인은 대중국 해상 교류의 차단을 들 수 있다. 견훤은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인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등 해안 지역 군현 세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포섭하였다.⁶⁾ 그 동기는 대중국의 해상 교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순천, 여수를 무대로 해상 활동의 역량을 가진 박영규, 김충이 견훤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러나 여수와 순천만은 주변이 다도해여서 해상 교통망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대중국 해상 교통로는 영산강 하구에서 중국 항주만으로 건너가는 사단항로가 가장 좋은 바닷길⁷⁾인데, 이 영산강 교통로는 왕건 측근의 해상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광주에 세력 기반을 둔 견훤이 중국 오월국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는 영산강인데, 영산강 하구를 왕건 세력이 장악하고 해상 교통을 차단하니 견훤은 숨막힐 지경이었다. 견훤은 전라도의 내륙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해상제해권을 궁예-왕건 세력에게 빼앗긴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왕건의 해상 세력이 나주에서 진도군에 이르기까지 서남해 해역을 장악하

6) 문안식, 앞의 책, 29쪽.

7) 이중환의 『택리지』 팔도총론 전라도편을 보면, 영암 상대포구에서 출발한 배가 사흘이면, 태주 영파부 정해현에 이른다고 기술하였다. 전라북도 위도에서 영파부 정해현까지 약 7일이 걸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영산강 교통로는 훨씬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다.

자, 견훤도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함을 배열하여 목포에서 덕포진⁸⁾에 이르기까지 전후가 서로 잇대어서 수륙 양면에 종횡할 정도로 대항하였으나, 견훤의 군대가 크게 참패하였다. 『高麗史』 권 제일 태조세가편에 “이에 바람을 타서 불을 지르니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가 태반이었다. 500여 급을 참획하니 견훤이 조그만 배를 타고 도망쳤다”라고 기술해 놓았다. 견훤이 광주에 후백제의 세력 기반을 두고 동남해안 및 섬진강 유역의 해상 세력은 우군으로 포섭하였으나, 나주의 금성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영산강 유역의 해상 세력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때 궁예의 편에서 해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은 왕건이었다.⁹⁾ 영산강 유역에서 왕건과 결탁한 해상 세력은 오다린이었다. 오다린은 나주 목포에 대대로 살아온 호족으로서 서남해 해상권을 장악한 인물이었으며, 능창은 압해도 출신으로 水戰에 능한 장수였다.¹⁰⁾ 왕건은 서남해권의 해상 세력인 오다린을 포섭하여 나주와 영산강 유역의 해상 교통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900년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것도 대중국과 해상 교통망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나, 만경강 교통로보다 영산강 교통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에 영산강 교통로에 집착하였을 것이다. 견훤은 영산강 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더 이상 국력 소모를 방치할 수 없었다. 견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그 이듬해인 901년 8월에 대야성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금성(현 나주) 남쪽으로 옮겨 해안가 부락들을 공격하고 약탈한 후에 돌아갔다는 기록을 볼 때, 견훤은 영산강 유역의 장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909년 견훤이 오월국에 보내는 사신선을 왕건의 해상

8) 목포에서 덕포진은 영산강 하구 해역에 위치한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문안식, 앞의 책, 참조).

9)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10) 강봉룡, 「후백제 견훤과 해양세력」,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문화사업회, 2004.

세력이 나포하여 돌아오자 궁예는 매우 기뻐하고 흐뭇하여 포상을 하였다.¹¹⁾

견훤은 909년 오월국의 사신선이 왕건에게 나포당하자, 그 이듬해 910년 재차 대대적으로 나주의 금성을 공격한다. 『三國史記』 권 제50 열전 제 10 견훤전에 “개평 4년에 금성이 궁예에게 귀순한 것을 쾌심하게 여겨 견훤이 보병과 기병 3천 명을 이끌고 금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으나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¹²⁾ 견훤이 국력을 걸고 10여 일 동안 금성 산성을 공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견훤은 압해도 출신의 능창을 포섭하여 나주 금성산성을 차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왕건을 앞세운 궁예 측근의 해상 세력들을 꺾지는 못하였다. 견훤은 궁예를 상대로 909년부터 914년까지 6년에 걸쳐 영산강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끝내 탈환하지 못하였다.

3. 후백제의 대외 교섭

후백제 시대에 견훤이 대중국과 외교 교섭을 한 나라는 吳越國과 後唐이었다. 후백제는 주로 오월국과 외교 관계에 치중하였다. 오월국도 고려 보다는 후백제와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가) 드디어 후백제왕이라 자칭하였으며, 官制를 설정하고 事務를 분담시켰으

11) 『高麗史』 卷 第一 世家第一 太祖.

「以舟師次于光州塩海縣獲萱遣入吳越船而還齋喜甚優加褒獎」

12) 『三國史記』 卷 第五十 列傳 第十 甄萱.

「開平四年 萱怒錦城投千弓裔 以步騎三千圍攻之 經旬不解」

니 이때가 당나라 광화3년이요 신라 효공왕 4년이였다. 吳越國에 사신을 보내어 예방하니 오월왕이 답례로 사신을 보내고 동시에 견훤에게 檢校大保의 벼슬을 첨가하여 주고 기타 직위는 전과 같게 하였다.¹³⁾

(나) 개평 3년 왕건은 주사차로서 광주 염해현에서 견훤이 오월국에 파견한 배를 호위하여 돌아왔다.¹⁴⁾

(다) 정명 4년 가을 8월에 견훤은 또 사신을 오월에 진마하였다. 왕은 답사 방문하여 벼슬을 중대부로 올려 주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였다.¹⁵⁾

(라) 장흥 4년 여름 4월에 淮南僞客省 사신 許確, 百濟國 太僕卿 李仁旭이 와서 우리 선왕에게 제를 올렸다.¹⁶⁾

(가)(나)(다)(라)는 후백제와 오월국의 외교 관계가 민간 교류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신 외교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오월국은 중국에서 5대10국 시대에 강소성 일부와 절강성 일대의 영역을 차지하고 항주에 도읍을 정한 나라이다. 후백제는 후당과 한 번의 교류가 이뤄졌을 뿐이나 오월국과 외교 관계는 사신을 보내고 벼슬을 제수하는 등 국가 대 국가로서 예우를 갖춘 외교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가)는 견훤이 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하고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알렸으며, 오월왕도 답례로 사신을 보내 검교대보의 벼슬을 제수하고 있다. (나)의 개평 3년(909)에는 견훤이 오월국에 보내 배를 호위하며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는 견훤이 오월국에

13) 『三國史記』 권50 견훤전.

14) 『高麗史』 권제일 태조세가.

15) 『三國史記』 권50 견훤전.

16) 『吳越備史』 卷二 文穆王.

사신을 보냈고, 오월왕은 견훤에서 중대부를 가하여 제수하고 있다. (라)의 장흥 4년은 933년이다. 백제국에서 대복경 이인옥이 사신으로 와서 선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후백제의 존속 기간은 892년에서 936년까지 42년이었고, 오월국의 존속 기간은 907년에서 978년까지 70년이었다. 후백제는 900년부터 933년까지 오월국과 매우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토록 후백제의 견훤이 중국의 오대십국 시대에 오월국과 외교 관계를 집착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견훤은 백제와 중국의 외교 관계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백제는 웅진, 사비 시대에 중국 남조의 東晉, 梁과 외교적 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東晉(317~420)과 梁(502~557)은 수도를 建康(현 南京)에 두었고, 양자강 하구에서 바다 건너 한반도 금강 하구에 위치한 백제와 문물 교류를 전개한 것이다. 중국 남조에서 제작된 鷄首壺가 백제 땅 곳곳에서 발견되고, 동진불교가 백제에 전래되었고, 공주 무령왕릉의 전축분과 출토 유물은 남조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 온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¹⁷⁾ 백제가 중국 남조 국가 가운데 제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지만, 실질적으로 백제와 남조의 외교 관계는 웅진백제와 양나라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공주 무령왕릉과 그 출토 유물이 말해 준다.

梁의 수도는 양자강 하구에 위치한 남경이었다. 남경에서 출발한 배는 양자강 하구에서 가로질러 한반도 금강 하구로 매우 용이하게 건너올 수 있었다. 이 해상상로를 황해 남부 사단항로라고 명칭하기도 한다. 웅진백제가 중국의 남조 국가와 해상 교류를 한 흔적이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남조도자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양자강 유역에서 남조풍 도자

17) 권오영, 『무령왕릉』, 돌베개, 2005.

문화가 발달한 곳은 越州窯이다. 월주요의 중심은 항주이다. 항주 지역 곳곳에서는 전축 도요지가 발굴되었고, 도자편들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들은 한반도에 전래하여 고려청자를 발달시킨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백제 시대에 중국 양자강과 개통된 사단항로는 후백제 시대까지 지속되었다고 본다. 이 사단항로를 따라 중국 남조풍의 건축술, 천문역법, 시, 경학, 불학, 회화예술, 조선, 방직 기술 등 경제 문화 교류가 다양하게 되었다.¹⁸⁾ 오월국의 항주와 후백제의 전주는 양국 간에 다양한 문물 교류가 이뤄졌다고 본다.

견훤이 백제의 국가 계승을 천명하고 越國과 대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한 것은 대외 관계에서도 백제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 같다. 중국의 당말 오대에 10국 가운데 오로지 장강 유역의 오월국과 대외 관계를 맺은 데서 유추가 가능하다. 남조와 백제가 사단항로를 왕래하였듯이, 견훤도 오월국과 사단항로의 바닷길로 왕래하였다. 백제 시대 항주만에서 금강 유역인 군산만으로 열린 바닷길을 후백제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후백제에서도 절강의 영파, 항주에서 사단항로를 군산만에 당도하여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전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을 전주에 정하면서 전주에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만경강 하구 또는 군산만에서 사단항로를 따라 장강 하구의 항주로 건너가는 해상 교통로를 개척한 것이다. 전주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상 교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다.

견훤은 영산강 교통로를 이용하면 3일 만에 영파로 건너갈 수 있고,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면 7일이 걸릴 수 있지만, 영산강 교통로가 붕쇄되자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오월국과 통교한 것이다. 만경강 교통로는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에서 만경강을 통하여 서해상에서 사단항로를 이용하

18) 周裕興, 「백제문화와 중국 남조문화」, 『백제문화』 40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09, 130쪽.

여 중국 장강 유역으로 건너가는 바닷길을 말한다. 전주의 출항지는 德津 나루터이다. 덕진나루터는 전주의 南川¹⁹⁾이 무악산에서 흘러온 삼천천과 추천대에서 합수하여 可連山을 돌아 굽이치는 곳에 위치한다. 덕진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면 삼례 남쪽에서 고산천과 합수하여 한내로 들어가 만경강을 이룬다.²⁰⁾ 만경강의 옛 지명은 泗水川이다. 전주천과 만경강이 합수하는 한내의 위쪽에는 回浦大橋가 있다. 회포대교 지점은 고산천과 소양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에 潮水가 回浦까지 들어온다고 하였다. 回浦에서 春浦와 木川浦를 지나면 新倉津과 火浦에 이른다.

경보 스님이 921년에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임피의 포구가 화포의 신창진으로 보인다. 경보 스님의 귀환을 재구성해 보면, 중국 寧波 普陀山→小黒山→竹島(飛禽島)→群山灣 深浦港→火浦 新倉津→春浦→木川浦→回浦→德津나루터의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 덕진에서 작은 배를 타고 조수를 이용하여 만경강을 따라 화포의 신창진까지 가면 신창진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서 서해의 사단항로를 따라 중국 항주(또는 영파)로 건너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주가 비록 내륙에 위치한다 해도 만경강이 서해와 연결되어 있는 海港都市 또는 水路都市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에서 중국 항주로 출항하는 나루터는 덕진나루터이었으며, 만경강 하구인 화포의 신창진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群山島 또는 蝟島²¹⁾에서 사단항로를 타고 오월국의 수도 항주로 향하였을 것이다. 거꾸로 오월국에서 파견한 사신도 주산군도 보타산 또는 항주만에서 출발하여

19) 전주천은 남천(좁은목에서 남천교 구간), 서천(완산교에서 추천대 구간), 가르내(추천대에서 전마동 무근뜰)라는 하천명을 갖고 있다(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본 전주 백년』 하권, 25쪽).

20)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본 전주 백년』 하권, 24쪽.

21) 『大東地志』에 “蝟島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띄우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사단항로를 타고 북상하여 변산반도를 돌아 만경강 하구의 신창진을 경유하여 만경강을 따라 전주로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지형이 변화한 상태이지만, 조선 시대까지도 변산반도 안쪽에는 커다란 灣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만의 명칭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군산만으로 가칭해 볼 수 있다. 群山灣(가칭)에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하나의 커다란 만을 형성하고 있다. 금강은 웅진백제와 사비백제의 젓줄이라 할 수 있으며, 만경강은 익산과 전주의 수로 교통망에 속한다. 익산 미륵사와 왕궁평도 만경강 하구에서 春浦에 이르고, 다시 조수를 이용하여 만경강을 거슬러 올라가 回浦에 이르면 곧바로 兪州의 德津에 이를 수 있다.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는 같은 해역이다. 동진강은 태인, 정읍, 하오, 백산의 너른 평야의 젓줄이다. 정읍 고부에는 백제의 中方城인 고사부리성이 위치하는 곳이다. 이미 삼국 시대부터 군산만 일대의 해역과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백제가 해상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대일·대중국과 외교 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해안의 군사적 요충지가 격포와 위도였다. 격포에는 格浦鎭이 있었고, 위도에는 蝟島鎭이 있었다. 변산반도에서 바다로 돌출된 해안지형 岬머리에는 죽막동 수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죽막동은 개양할머니의 사당인 수성당과 향해 보호신인 개양할미의 처소인 해변굴(당굴 또는 여울굴)이 위치한다. 이곳 죽막동에서 1992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제사유적이 발견되어 변산반도가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군산만에는 군산도가 있다. 군산도는 여러 개의 섬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群島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송의 서공사신단이 고려 시대 개경으로 가던 도중 군산도에 이르러 사신 영점을 받는다. 그만큼 群山島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徐兢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선유도에 위치하는 五龍廟, 資福寺, 官衙, 群山亭, 崇山行宮, 民家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선유도에 이러한 국가적인 사신 접빈관을 조성한 것은 군

산도가 갖는 해양 지리적 입지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서궁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기술한 건물 유적이 그대로 산재해 있다. 중국 항주만과 주산군도 정해현 매잠에서 출발한 사신선이 소흑산도를 경유하여 서해의 海門인 변산반도를 통과하면 군산도에서 국가의 영접을 받고 있다. 군산도는 고려 시대 중국과 접경 해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변산반도와 고군산도가 서해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변산반도의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5~6세기경의 백제 시대 제사유물이 다량 출토한 사실이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의 관문 역할을 하는 변산반도와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앞바다에 위치한 군산도는 해상 교통과 해양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후백제 건훤은 군산만과 변산반도의 해양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였을 것이며, 오월국과 교통에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문물 교류를 전개하였다. 건훤은 백제 시대 이래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군산도와 변산반도를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후백제 시대에도 죽막동 해양안전기원처와 군산만의 중간 기항지 기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4. 후백제의 대외 문물 교류

1) 佛敎文化

후백제 불교문화는 통일신라 말 九山禪門의 맥락을 잇고 있다. 후백제와 유학 선승의 관계에서 후백제 불교문화의 성향을 찾을 수 있다. 9산선문 가운데 후백제 영역에 위치하는 산문은 實相山門, 銅裏山門, 迦智山門을 들 수 있다. 9산선문의 선승들은 신라 왕실 및 지방 호족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후백제 시대에 중국 유학 선승 가운데 銅裏山門의 慶甫

(868~948)와 曦陽山門의 兢讓(878~956)을 주목할 수 있다. 경보는 921년에 전주의 임피군으로 귀국하고 있고, 공양도 924년에 변산반도의 회안현으로 귀국하고 있다. 임피와 회현은 고대 국제 해상 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진동대사 경보가 임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光陽 玉龍寺 洞眞大師 寶雲塔碑文」에 등장한다.

(B) 마침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 天祐 18년(921) 여름 전주 임피군에 도착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를 못할 정도의 위험한 시기였다. 그 당시 주존인 도통 태부 건훤은 군대를 통솔하여 민을 보호하는 방벽이었다. 태부는 본시 선행을 쌓아 장군의 집안에 태어났으니 비야흐로 웅대한 뜻을 펴기 시작하였다. 비록 일단은 대사를 제포하였다가 석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님의 慈顔으로 접근하였으나, 존경하는 마음만 더욱 돈독하여졌다. 그리하여 찬탄하되 “우리 스님을 만나는 비록 늦었지만 弟子가 됨을 어찌 늦추겠는가” 하면서 모시는 태도가 정성스러우며 존경하는 마음 또한 돈독하여 전주의 남쪽 南福禪院에 주석하도록 초청하였다. (중략) 그러나 거절을 하고 백계산 옥룡사로 갔다. 과연 그곳은 수도할 수 있는 청정한 도량이었다. 그러나 다시 건훤의 청을 받아들여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남북선원에 주석하자 문도가 번창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오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대사는 스무네 해 동안은 거 생활을 하면서 후생을 지도하였으나 전혀 그 수행과 후학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B)에는 건훤이 경보 스님이 귀국하는 임피의 포구로 마중 나가 경보에게 후백제의 국사로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다. 건훤이 경보를 국사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전주 정도 이전부터 건훤과 동리산문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 준다. 경보는 건훤의 국사 초청을 거절하고 옥룡사로 돌아갔으나 다시 건훤의 간청으로 전주 남북선원에 주석하게 된다. 당시에 광양 옥룡사에는 道詵國師가 상주하고 있었다. 건훤은 무진

주에서 후백제의 세력 기반을 구축할 때에 銅裹山門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며, 옥룡사로 돌아간 경보를 간청하여 전주의 南福禪院에 주석시킨 것이다. 남북선원은 전주의 南福山에 위치한 선종선원이었다. 남북산은 현재의 完山七峰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현재 전주의 南固山城 안에 위치한 남고사가 남북선원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된다. 남고산성은 조선 후기의 성곽 명이며, 18세기 고지도에는 남고산성이 甄萱古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후백제 시대 견훤이 쌓은 산성 안에 남북선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경보대사가 남북선원에 주석하여 門徒가 번창하고 범문을 들으려고 오는 자가 헤아릴 수 없었고, 경보대사는 스무네 해 동안 은거 생활을 하면서 후생을 지도하였다고 하니 동리산문의 옥룡사계는 후백제의 견훤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²²⁾

견훤은 전주에 정도한 이후 실상산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실상사는 흥척국사가 개창조인데, 그의 제자인 片雲和尚 부도비에 正開 10년이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정개는 후백제의 연호로 추정하고 있다. 정개 10년은 910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견훤이 전주에 정도하면서 정개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운화상은 흥척국사의 제자로서 안봉사의 개창자이다.²³⁾ 편운화상은 흥척국사와 수철화상에 이어 실상사에 주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운화상은 생전에 견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 같다. 견훤은 선종산문의 고승들의 지원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당시 구선선문의 승려들은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있었고, 특히 중국을 다녀온 유학승들은 대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호족들은 선종사찰을 후원하고, 구산산문의 승려들은 지방 호족들의 정신적인 구심력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실상사의

22) 정동락, 「전라도 지역 선종불교와 실상사」,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전주대학교, 2012.

23) 조범환, 「후백제 견훤정권과 선종」,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0, 356쪽.

편운화상부도비에 후백제의 연호인 정개가 등장하는 것도 후백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인데, 아마도 실상사의 鐵佛도 편운화상이 실상사에 주석하고 있을 때 견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⁴⁾

견훤은 백제가 익산 금마산에서 일어났다는 역사 인식과 백제의 국가 계승 의지를 명확하게 한 배경에는 전북 지역의 미륵신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고 본다. 견훤이 반신라 정서를 강하게 가진 것도 농민들이 조세 수탈로 흩어지고 흉년 기근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도 사치하고 타락한 왕실에 적개심을 갖게 된 요인이었다. 견훤이 완산주 백성들에게 열렬하게 환호를 받은 것도 가혹한 조세 수탈과 흉년 기근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견훤은 미륵과 같은 존재로 비쳐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에서 미륵신앙의 전통이 익산 미륵사에서 김제 금산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견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익산 미륵사와 김제 금산사 모두 둘 다 농경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견훤이 신라에 불만을 가진 농민 정서를 알고 있었기에 백제 미륵사상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견훤은 전문성왕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는 풍요로운 미래지향적 이상향을 심어 주는 미륵사상을 왕권 강화에 활용하였을 것이다.²⁵⁾ 백제 말에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하면서 활용하였던 통치 이념을 재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朝鮮佛教叢書』에 실린 고려 초 「葛陽寺 惠居國師 碑文」에 “922년에 익산 미륵사탑을 복구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922년 견훤의 익산 미륵사탑 복구는 백제 미륵신앙을 부활시키고, 미륵신앙으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²⁶⁾ 견훤은 미륵신앙 신봉자요 투철한 미륵사상을 불교정책에 반영하

24) 정동락, 「전라도 지역 선종불교와 실상사」,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전주대학교, 2012.

25) 송화섭, 「韓國의 龍信仰과 彌勒信仰」,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教』, 흥운식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2000.

였을 것이다. 김부식이 『三國史記』에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약의적인 기록일 수 있다. 금산사는 후백제 견훤 정권의 왕실 사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⁷⁾ 금산사의 진표계 미륵신앙은 견훤이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였으며, 견훤도 금산사를 자주 왕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입증하듯 금산사 입구에는 견훤이 쌓은 것으로 알려진 甄萱石城의 성문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2) 海洋信仰

보타산과 변산반도는 사단항로의 바닷길이 열려 있다. 영파 정해현의 보타산은 양자강 유역에서 사단항로의 출발지이다. 예부터 보타산은 양자강 이남에서 국제 해상 교통의 중심이었다. 항주의 해상 교통로는 長江과 연결된 전단강(錢壇江)이 간선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는 오월국 수도 항주에서 출발하여 보타산으로 이동한 뒤 바람을 만나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바다 건너오는 바닷길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삼국 시대에 동리산문의 진동대사 경보는 진성왕 6년(892) 중국에 유학승으로 건너갔다가 30년 만에 경명왕 5년(921) 7월에 전주 임피군으로 귀국하고 있다. 후삼국 시대 임피에는 후백제의 국제 교역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보가 귀국한 臨陂의 나루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新倉津²⁸⁾로 추

26) 김수태, 「甄萱政權과 佛教」,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60-64쪽.

27) 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994.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제군 진도편에 “新倉津은 북쪽으로 20리이며, 전주의 땅과 통한다” 하였고, 같은 책 임피현 진도편에 “新倉津은 남쪽으로 20리이며, 泗水의 하류이고 金堤 萬頃과 통한다. 같은 책 전주부에 “무악산에서 나온 물과 합해서 삼례역 남쪽에 이르러 다시금 고산 응현의 물과 합쳐서 서쪽으로 흘러 회포가 되며, 潮水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沃野 二城을 지나서 新倉津이 되었다.” 같은 책 만경현 산전조에 “동진 신창진 두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북쪽에 몇 봉우리 산이 높이 솟았고, 낙명이라는 대가 있다. 신창진: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신창진은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신창마을로 추정된다.

정된다. 신창진은 현재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신창 마을이다. 신창 마을은 만경강변 마을이고 예부터 소금배, 새우젓배가 자주 들어왔다고 회상한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만경 강가의 신창리를 ‘새창이나루’ ‘새창이나루’ 등으로 불러오고 있다.²⁹⁾ 신창진의 언덕에 新倉院³⁰⁾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창진은 내륙과 해상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에 청하면에는 일본인 지주의 승부농장이 있었고, 신창진을 통해서 미곡 수탈이 이뤄졌던 나루터였다.

그리고 회양산문의 공양은 효공왕 4년(900)에 강희로 건너갔다가 경명왕 8년(924)에 전주 喜安縣 浦口로 귀국하였다.³¹⁾ 喜安은 변산반도 안쪽에 위치한 보안현 黔毛浦³²⁾를 지칭한다. 검모포는 현재 부안군 진서면 구진 마을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보안현에 속했다. 보안현은 통일신라 경덕왕대에 희안현에서 바뀐 지명이다. 희안현 포구는 곰소만의 검모포이고, 신창진은 군산만 만경강 하구에 위치한다. 신창진은 후백제 당시 중국 사단항로를 따라 건너온 배가 변산반도를 경유하여 만경강 교통로를 통해서 전주로 들어왔음을 보여 준다. 임피의 신창진은 후백제 당시 만경강 하구에 위치하여 국제 교역항에 속한 나루터였다. 전주 덕진에서 배가 출발하여 만경강을 따라 내려가 임피현 신창진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사단항로를 따라 항주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창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만경강(옛 泗水川) 하구에는 火浦³³⁾와 신창진의 나루

29)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철선 선생님의 증언.(2013.8.24) 유철선은 김제 청하 출신으로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음.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臨陂縣 驛院條.

31) 김문경, 「7~10世紀 新羅와 江南의 文化交涉」,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교섭』, 집문당, 1997, 139쪽.

32) 검모포는 현재 부안군 줄포면 구진마을이다. 구진은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곰소항이 이웃에 있다.

터가 형성되어 있었다. 바닷물의 조수가 만경강과 전주천의 합수 지역인 회포³⁴⁾까지 들어왔다 하니 서해에서 배를 타고 전주까지 들어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全州八景 가운데 東浦歸帆은 회포를 경유하여 덕진으로 돌아오는 뚝단배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표현일 것이다.

변산반도는 백제 시대부터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다. 변산반도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9세기경의 기와를 출토하고, 제사용의 도자,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대접, 접시, 盞, 盞托, 馬上杯, 盒, 盒 뚜껑 瓶, 馬形儀器 등은 사당 내에서 사용한 祭器들이다.³⁵⁾ 통일신라 말 중국의 사묘문화가 전래하면서 露天祭祀에서 祠廟祭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당은 당굴 옆 백제시대 노천제장에 세워진 것으로 노천제사에서 사당제사로 변모한 모습을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죽막동이 해양 제사유적으로 조성된 동기는 海邊窟이었다. 죽막동의 돌출 지형 꼬트머리에 위치한 해변굴은 개양할머니의 처소이고, 그 해변굴 옆의 제사터에 수성당을 조성한 것이다. 1992년 이 제사터에서 해양 제사유물이 다량 출토하였는데, 노천제사 터에 수성당(水聲堂)을 세워 개양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 온 것이다. 죽막동의 해변굴은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 범음동에 위치한 관음굴과 매우 흡사하다.³⁶⁾ 그리고 수성당에는 개양할머니가 봉안되었는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성당의 개양할머니는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키가 흰칠하게 컸다고 하며, 수성당 개양할머니는 白衣觀音菩薩의

33) 화포는 본래 佛居村의 지명으로 佛浦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획정 기간에 ‘불’을 ‘火’로 표기했다고 한다(디지털김제문화대전 화포리 자료 참고).

34) 회포라는 지명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곳에 回浦大橋(전주시 전미동 은평마을과 완주군 삼례읍 상신마을 사이에 놓인 교량)가 회포의 역사를 입증해주고 있다.

35) 국립전주박물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1994.

36) 송화섭, 「중국 보타도와 한국의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비교」,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2008

化身이었다.³⁷⁾ 개양할머니의 처소인 당굴은 해조음(海潮音)을 들을 수 있는 관음굴과 같은 곳이어서 당굴 옆에 수성당(水聲堂)을 조성한 것이다. 수성이 해조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며, 수성당은 곧 관음의 성지를 상징한다.³⁸⁾

죽막동 제사유적의 해양신앙은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의 관음신앙이 사단향로를 따라 전파해 와 정착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음성지로 조성된 海邊窟은 낙산사 흥련암 해변굴과 부안 죽막동 해변굴 두 곳이다. 낙산사의 해변굴은 의상대사가 당에서 돌아와 문무왕 11년(671)에 관음진신을 처음 모신 곳이지만, 죽막동의 해변굴은 백제 시대부터 해양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해변굴이 개양할미의 처소이고, 수성당이 개양할미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낙산사의 해변굴에 관음진신이 계시듯이 죽막동 수성당 해변굴에도 白衣觀音菩薩의 화신인 개양할머니가 상주하는 곳이다.³⁹⁾ 竹幕洞의 開洋할머니는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이며, 水聲堂은 사찰의 圓通殿, 觀音殿이 민속화한 것이다. 주산군도 보타산의 백의관음보살이 노파로 화신하듯이, 죽막동 개양할머니도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이다. 보타산의 단고도두 설화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듯이 개양할머니도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두 할머니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이며, 항해 보호신으로 활약한다.

보타산의 백의관음보살이 사단향로의 바닷길을 따라 변산반도 죽막동

37)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 제2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8.6.

38) 송화섭, 「변산반도의 관음신앙과 한중교류」, 『향토사자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1.

39) 『삼국유사』 권삼 낙산이성관음정취조신에 “관음진신이 일러 가로되 좌상산정에 쌍죽이 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기에 마땅하다. 의상대사가 그 말을 듣고 굴을 나오니 과연 대가 솟았다” 하여 해변굴 위에는 쌍죽이 막을 이뤘으며, 그곳에 낙산사를 창건한 것이다. 부안의 죽막동 수성당도 마찬가지이다. 해변굴 주위에 대나무가 막을 이뤄 죽막동이라 하였으며, 해변굴 산정(座上山頂)의 땅에 조성한 것이 수성당이다.

으로 건너와 수성당의 개양할미로 화신한 것이다. 보타산의 백의관음보살상은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소사는 15세기에 蘇來寺라는 사찰 명칭이 來蘇寺로 바뀐 것이다. 내소사는 고려 시대에도 존재하였는데, 백제 무왕 대에 창건한 사찰로 알려졌다. 그런데 내소사의 가람 구도를 살펴보면, 중국 보타산 普濟禪寺와 매우 흡사하다. 내소사는 선계산 관음봉 아래에 위치하고 대웅보전에 후불벽리면 벽화로써 白衣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다. 내소사의 원래 명칭인 소래사는 말 그대로 ‘蘇에서 온(來) 절(寺)’이다. 蘇는 지금 중국 항주, 남경 일대를 가리킨다.⁴⁰⁾ 보타산의 보제선사와 法雨寺에서 볼 수 있는 후불벽리면 백의관음보살도가 내소사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공양이 내소사 인근에 위치한 검모포로 귀환하고, 내소사 아래 石浦에 觀音像을 실은 石舟가 당도하는 것을 보면, 보타산에서 출발한 석주가 석포로 들어온다는 설화가 전해 오고 있다.⁴¹⁾

唐宋五代에도 보타산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사단향로는 제 기능을 하였다. 중국 남조문화가 백제의 군산만으로 건너오듯이, 오월국의 수도 항주에서 후백제의 군산만으로 건너오는 문물 교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 시대 승려 발정이 梁나라에 유학갔다가 귀국하려고 월주 계산의 관음도실에 들렀다가 귀국하듯이, 후백제 시대 승려 경보와 공양도 중국으로 유학갔다가 사단향로를 따라 변산반도와 군산만으로 귀환하고 있다. 이 사단향로를 따라 1123년에 서공사신단이 변산반도를 거쳐 군산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후백제 시대에 주산군도 보타산의 백의관음신앙이 변산반도와 군산도에 전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

40) 송화섭, 「한·중 관음화신설화의 비교 고찰」, 『역사민속학』 제3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41) 송화섭·김형준, 「한반도 서남해안 석주설화의 역사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8.

산반도의 내소사, 실상사 등과 군산도의 자복사 등은 신라 말 고려 초에 보타산 계통의 관음신앙이 발달한 항해안전기원의 관음도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말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무대로 해상 교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신라 상인들이 보타산에 건너가 귀로길에 관세음응험을 하였다 하는 기록이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 해도편에 실려 있다. 내용인 즉,

(C) 깊은 산기슭에는 소량이 세운 寶陀院이 있고 전에는 신령스럽게 감응하는 觀音이 모셔져 있다. 옛날 新羅 商人이 오대산에 가서 그 상을 조각해 본국으로 실어 가고자 바다에 나갔으나 암초를 만나 배가 붙어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암초 위에 觀音像을 도로 올려놓았다. 寶陀院의 승려 종악이라는 자가 전에 다시 맞아 봉안하였다. 그 이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 복을 빌었는데 감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였다. 吳越의 錢氏는 그 상을 城 안의 開元寺에 옮겼다. 지금 매잡에서 받들어 모시는 것은 후대에 와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신라 상인들의 관세음응험으로 보타산의 암초를 新羅礁라고 명명하였고, 암초에 도로 올려놓은 관음상을 조성한 곳이 不肯去觀音院이다. 불공거관음원은 신라 상인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위의 자료에 보타원이 불공거관음원일 수 있다. 이 보타산 보타원의 관음상을 오월국의 錢氏가 성안의 개원사로 옮겼다고 하였다. 후백제 시대까지도 보타산의 불공거관음원에는 항해하는 선박들이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처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월과 문물 교류를 한 후백제 시대에 보타산의 관음신앙이 변산반도에도 항해 보호신이 정착해 있었던 단계라 할 수 있다. 보타원의 관음상을 옮긴 오월국 전씨는 王家의 인물로 추정된다. 吳越의 錢鏐가 927년 7월에 사신 班尙書를 보내 왕의 詔書를 견훤에게 전하면서 고려의 왕건과 화해하고 우호 관계를 복원하라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⁴²⁾ 오월의 전씨가 보타원의 관음상을 성안의 개원

사로 옮긴 것은 그만큼 항해 보호신인 백의관음보살의 영험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장강 하구에 위치하였던 오월국은 錢鏐가 나라를 이끌고 있을 때 해상 교통이 활발하였고, 불교문화도 흥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월국과 후백제의 해상 교류는 영파, 항주에서 변산반도와 군산도 사이에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보타산 계통의 백의관음신앙이 후백제 해안 지역에 전파되었다고 본다.

3) 城隍信仰

전주 성황신앙의 기록은 1199년(신종2)에 이규보가 쓴 『東國李相國集』 「全州祭城隍致告文」에 처음 등장하여 고려 시대부터 전주성황제가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성황신앙이 고려 시대에 처음 전래한 시점은 고려 혜종조(943)에서 성종 15년(996)까지 50년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문헌상 성황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성종(981~997) 때 태조 아들 육(郁)이 사수현(泗水縣)으로 유배를 가서 자신을 현의 성황당 남쪽 귀룡동에 앉아서 묻어 달라고 유언하는 데서 나타난다.⁴³⁾ 또한 문종 9년(1055)에 선덕진 신성(宣德鎭 新城)을 새로 설치하면서 성황신사(城隍神祠)를 두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⁴⁴⁾ 고려 시대의 성황신앙은 시기적으로 성종 대 지방 통치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지방 호족들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시기에 중국의 祠廟制度가 전래하여 도교문화가 전래해 왔으며, 중국의 성황신앙도 동시에 전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견훤은 신라 경순

42) 하용강, 「錢鏐가 甄王을 증제한 사건에 대한 해석」,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2004, 297쪽.

43) 『고려사』 90 종실전.

44) 『고려사』 63 예지5 잡사.

왕이 고려에 투항한 후에, 華嚴寺의 觀惠에게⁴⁵⁾ 특명을 내려 합천 해인사로 출가한 범공화상을 전주로 모셔 왔다. 견훤은 범공에게 城隍山⁴⁶⁾에 城隍祠를 짓고 金傅大王 一家 5位를 배향해 놓고 제사를 주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동고산성 일대에서 전해 온다. 梵空和尚은 경순왕의 둘째 이들로써 마의태자의 동생이다. 동고산성은 全州城이며, 후백제 도성이 조성되어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견훤은 전주에 후백제를 정도하면서 군사적 요충지에 도성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주성에 관아 건물을 조성하여 읍치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승암산은 전주의 主山이다. 주산에 성황사를 조성하여 성황산으로 삼은 것은 고려 초에 전주에서 성황신앙이 발달하였음을 보여 준다. 후백제가 멸망한 936년 이전에는 사당에 5위의 목각상을 배향하였으나,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전주 지역의 토호 향리들이 김부대왕 일가 5위를 성황신으로 배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다음은 이규보가 찬한 전주제성황치고문(全州祭城隍致告文)이다.

(D) 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성황대왕(城隍大王)의 영전에 제사 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

45) 김수태, 앞의 논문, 69쪽 참조.

46) 성황산은 현재 승암산(또는 치명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고지도에는 성황봉, 성황대로 표기되어 있다.

47) 송화섭, 「후백제의 견훤정권과 전주의 성황신앙」,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0.

짓기를 '내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찐 노루나 매 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코끼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숭어·메기·잉어와 새벽 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고. 나의 약속이 이리하니,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원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⁴⁸⁾

(D)의 내용에는 전주부성의 衙吏들이 公俸을 받아서 酒饌을 갖춰 성황제를 지내는 일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 시청의 공무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성황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전주 성황제는 매월 초하루에 朔望祭儀였다. 또한 무릇 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후백제 시대 이후에도 왕도의 위상과 전통을 성황제를 통해서 유지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의 성황신앙이 후백제 시대에 정착한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견훤이 합천 해인사에 출가한 梵空和尚

48) 『東國李相國集』 第37卷 哀詞 祭文 全州祭城隍致告文

「謹以蔬菓清酌之奠致祭于城隍大王之靈予吏于茲蔬茹猶不續而有獵夫致一鹿于門予其由則曰此州自古每月旦使吾等貢一鹿若雉兔尤祭肉然後衙吏等愛公之俸備酒饌致祭于城隍此成例也予怒而鞭之曰汝何不稟於吾而爲是耶凡不拒乃州之苞饋飽而致山之麋麋豨免熊踏象白之肉海之鮫鱈鯉晨晝露鵠之崇積於前者不忍獨亨滋味其獻于大王宜矣豈以予蔬食之窮約月殺生物圖神之肥而積罪予躬耶」

을 모셔 와 왕도의 선원⁴⁹⁾에 주석케 하였으며, 범공화상 이후에는 전주의 아리들이 성황제를 승계한 것이다. 관가의 아리들의 전주 성황제를 주도한 것은 왕권을 가진 후백제 왕도의 권력 집단이 지내 온 성황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전주 성황제는 다른 지역의 성황제와 달리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성황제라는 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한다.

4) 陶器文化

최근 진안고원 초기 청자의 등장 배경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⁵⁰⁾ 군산대 광장근 교수는 진안고원 성수면 도통리 중평 마을에 분포하는 초기 청자가 후백제 시대 초기 청자 요지로 추정하고 있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유물은 완·발·접시·U자형 청자, 요도구인 갑발과 갑발 받침, 전축요의 부재인 벽돌이 수습되었다. 그동안 초기 청자와 후백제의 관련성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중평리에 분포하는 埴築窯와 초기 청자 유물이 중국 항주 일대에 분포하는 월주요의 전축요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중평리 일대에서는 초기 청자의 굽은 선해무리굽과 중국식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변형해무리굽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전면에 시유된 유약은 그 색조가 녹갈색 혹은 황갈색 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⁵¹⁾ 요도구인

49) 선원은 선종불교의 도량을 말하는데, 합천 해인사로 출가한 범공화상을 모셔 와 주석시킨 곳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의 동고사 자리가 '진불대왕절'이라고 전해 오는 것을 보면, 후백제 시대에 그곳에는 조그마한 선원 또는 작은 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동고사가 들어선 것은 일제시대 일이나 건훤이 범공화상을 모셔 와 김부대왕의 사당을 짓고 향사신석하는 일을 범공화상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범공화상에게 향사신석하게 한 것일까. 건훤의 입장에서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여 종묘사직의 역사가 끊긴 신라 복구가 목포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묘에 배향한 성황신상 5위에 마의태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50) 광장근, 「진안고원 초기 청자의 등장 배경 연구」, 『전북사학』 제42호, 전북사학회, 2013.4.

51) 아마도 중국 월주요의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직접 전래된 경우로 당시 오월과 후백

갑발은 초기 청자 요지에서 발견되는 발형·원통형·복발형이다. 증평 마을 양쪽에 산봉우리처럼 쌓인 유물도 대부분 갑발이 차지했다고 하며, 불에 탄 벽돌이 넓은 구역에서 확인되어 본래 전축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절강성 월주요는 해무리굽과 길이 40m 이상 되는 대형의 전축요로 상징된다.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건조된 그릇에 유약을 입혀 한 번만 굽는 단벌구이로 알려져 있다.

전주는 오월국과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오월국의 수도였던 항주는 중국에서 월주요의 중심지이다. 오대십국의 오월국은 越州窯의 후원을 토대로 번영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청자의 본향인 월주요는 해무리굽과 전축요로 상징된다. 후백제 전주성인 전주 동고산성에서 해무리굽 초기 청자편이 출토되었는데, 진안고원에서도 해무리굽 초기 청자편과 함께 전축요가 자리하여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은 진안 도통리 증평 마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에서 진안 도통리 계통의 초기 청자는 전주 동고산성, 익산 미륵사지, 고부 중방성지 등 후백제 영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증평리 초기 청자 분포지는 후백제의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오월국과 가장 긴밀한 해외 교류를 주도한 국가였다. 항주에 수도를 둔 오월국과 해상 교류에서 영산강 교통로는 왕건 세력들에 의해서 차단당하였지만, 전주에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오월국과 해상 교통을 원활하게 전개하였다. 견훤은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변산반도에서 항주만까지 개설된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사신을 보냈고, 오월국도 사단항로를 따라 후백제에 사신을 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후

제에서 생산된 초기 청자의 색상은 대체로 녹색이나 황갈색을 띤다. 그 이유는 대형 전축요에서는 녹색 또는 청색을 내기 위한 환원염 번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백제 당시 전주는 海港都市國家로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다. 후백제는 오월국에서 요청하여 양자강 하구에서 발달한 월주요 도자문화를 받아들여 초기 청자를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는 전라도 지역에 분포하는 선종불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茶文化을 중시했던 선종 산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靑瓷茶器 제작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견훤은 국사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오월국의 청자 제작 기술자를 초빙하여 진안고원 도토리 일대에서 청자를 굽게 한 것으로 보인다.

5) 飲食文化

전주는 한국에서 전통 음식의 명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왜 전주의 음식 문화가 명성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지 않지만, 전주가 조선 시대 전라도의 도읍지였다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주에는 조선 시대 행정의 중심 기능을 하였던 全羅監營이 있었고, 전주에는 삼남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常設市場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전주부성은 前朝後市의 도시구도에 따라 남문 앞에는 전라감영이 들어섰고, 남문 밖에는 市塵이 형성되었다. 현재 남문 밖의 시장은 남부시장을 가리킨다. 전주에는 사대문 밖의 시장이 있었지만 남부시장이 제일 규모가 컸다. 전주가 전라도에서 행정의 중심지였던 만큼 물류 유통과 거래도 가장 활발하였다.

16세기경 시장 형성과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에서 생필품 거래가 이뤄졌고, 시장에서 상인과 소비자들이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간이 음식을 팔고 사 먹는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시장 음식은 국밥, 국수 등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장국밥, 장터국수라는 음식 명칭이 생겨났다.⁵²⁾ 그래서 시장에는

52) 송화섭, 「전주음식의 DNA와 진화」, 『전북전통문화론』, 글누림, 2009, 47~88쪽.

장국밥을 파는 店幕, 酒幕들이 생겨났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전주비빔밥 등이 간이 음식으로 팔렸다. 1927년에 발간된 『別乾坤』이란 잡지에 전주의 특산 음식은 ‘탁배기국’이라 하였다. 탁배기국은 콩나물국밥을 말하는데, 전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콩나물비빔밥도 남부시장의 간이 음식에서 시작하였다. 전주비빔밥의 태동은 가미술으로 콩나물밥을 지어 큰 양푼에 퍼서 각종 나물을 넣어 비벼서 나눠 먹는 양푼비빔밥이었다.⁵³⁾ 전주비빔밥은 시장에서 간이 음식으로 발달한 백반음식의 일종이지 역사적인 전통 음식으로서 레시피를 갖는 음식은 아니다.⁵⁴⁾

전주의 대표 음식은 백반(白飯)이다. 백반은 시장음식이 아니라 가정음식이다.⁵⁵⁾ 백반은 밥, 국과 찌개와 반찬을 갖춘 밥상이다. 가정음식은 집안에 따라 약간의 특성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대체로 집안에서 식재료를 확보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백반은 자연식이요, 계절식이다. 백반상의 찬반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24절기에 따라 백반상에 오르는 음식은 월력(카렌다)과 같았다. 그러나 백반은 주식이 흰밥과 반찬이다. 따라서 벼농사 지대에서는 흰밥과 쌀을 가공하여 만든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쌀을 가공하여 떡, 술, 음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쌀로 떡가래를 만들어 떡국을 끓여 먹고, 찰쌀로 찰떡과 시루떡을 해 먹었고, 쌀로 막걸리를 주조하여 마시고, 쌀로 식혜를 만들어 마시는 감주문화도 발달시켜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전라도 지방의 음식문화를 향주, 영파, 온주, 주산군도 등 절강성 일대의 음식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절강성은 장강 이남 지역

53)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신아출판사, 2006.

54) 송화섭, 「전주음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전주음식의 상품화 및 세계화 전략』, 문화관광부, 전주시, 2005.

55) 송화섭 외, 『전주음식』, 민속원, 2008 참고.

으로 월주 지역이었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장강 이남의 東晉과 梁이 백제와 문물 교류를 하였으며, 당말 5대에는 양자강 하구 유역에 나라를 세운 吳越國이 후백제와 문물 교류를 하였다. 월주 및 오월국은 백제 및 후백제와 문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음식문화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영파, 항주 및 주산군도에서도 쌀을 가공하는 음식문화와 발효음식이 발달하였다. 절강대학교 백승호 교수는 장강 이남 절강 지역에서도 떡메치기로 찰떡을 만들고, 떡가래를 썰어서 떡국을 해 먹고, 쌀과 누룩을 섞어서 막걸리를 만들어 마시고, 찹쌀로 빚은 식혜, 쌀죽 등의 음식문화가 생활화되었고, 조개류 젓갈과 계장과 대하장 등 젓갈문화도 발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꽃계장을 담궈서 삭힌 후에 계장 백반을 먹는 풍속도 월주 지역의 음식풍속이라 하였다.⁵⁶⁾ 또한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고려인들이 무, 배추, 오이, 가지, 파 등 채소류를 양념하지 않고 소금에 절여서 찐지 또는 장아찌菹, 漬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였는데,⁵⁷⁾ 이러한 찐지는 항주, 영파, 주산군도, 온주 일대 주민들도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장강 이남 절강성 일대에는 쌀음식과 발효음식, 절임음식 등은 장강 이북 지방과 다른 남방계 도작문화권 음식이 발달하였다. 물론 기후 여건에 따라 도작문화가 발달⁵⁸⁾하고 자생한 음식문화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서남 해역의 음식문화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전파설에 무게를 두어도 좋을 듯하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남방계 도작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식문화에는 동남아시아 음식문화와 흡사한 게 많다. 동아시아 해상

56) 이 자료는 중국 절강성 절강대학교 백승호 교수의 자문을 받았음(2013. 8.22 중국 주산군도 심가문에서 구술받음).

57) 한국고문서학회,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창작과비평사, 2006, 151쪽.

58) 항주 인근 하모도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교역의 통로를 따라서 중국 강남지역의 쌀음식, 젓갈, 찐지 등이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로 전래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해류 이동과 푸드로드(foodroad)를 연계시켜 본다면, 절강성의 항주, 명주, 태주, 온주와 복건성 천주, 복주 등 동남 해역에서 발달한 음식문화가 백제 및 후백제에 전파하여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흰쌀밥과 국(羹), 탕(湯)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도 중국 강남 지역이다. 한국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항주, 명주 일대에서도 春節⁵⁹⁾에 떡국을 해 먹는다. 떡가래를 찢어서 국에 넣어 먹는 방식이 같다. 신년맞이로 떡국을 시식하는 의미가 같다. 전라도 음식문화는 동남아시아 도작문화권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강남 지역과 흡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전라도 음식문화는 동남아시아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 전주의 음식문화 역시 백제 시대 이후 후백제 시대 및 고려 시대에 강남의 음식문화가 전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후백제는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백여 년의 역사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건훤이 892년에 후백제의 세력 기반을 광주에 두고 8년 동안 국가 시스템을 갖춘 900년에 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하고 자신을 후백제왕으로 호칭하였다. 건훤이 후백제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대외 관계였다. 각 지방 호족들이 발호하던 후삼국 시대에 확실한 국가

59) 春節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대보름에 이르는 기간의 명절 풍속인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풍속이 매우 많다.

를 세우고 중국에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892년 광주에서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 오월국으로 바다 건너갈 수 있는 영산강 유역의 교통로가 왕건 세력들에게 차단당하여 대외 활동이 막혀 있었다. 견훤은 900년에 전주에 定都를 하면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오월국과 대외교류에 집중하였다. 오월국은 항주에 도움을 둔 5대10국 가운데 하나이다. 오월국 역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단명한 나라였지만, 장강 이남 월주 지역을 무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항주의 월주요, 사단항로의 해양문화, 통일신라와 당의 문물 교류, 당말 유학승들의 활동과 남종선 등이 오월국 문화가 후백제 땅인 전라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전주의 불교문화, 성황신앙, 도지문화, 음식문화 등도 후백제와 오월국의 문물 교류 과정에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덕진에서 만경강 교통로를 이용하여 서해의 사단항로를 타고 중국과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한 국제적인 해양 도시의 기능을 가졌었다. 후백제의 역사는 반백 년에 불과하지만, 견훤이 백제의 국가 계승을 전제하였기에 전라도를 영역을 차지하였던 후백제 문화는 큰 틀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도작문화권에서 역사문화 읽기가 필요하다.

전주 동고산성

강 원 중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1. 성벽의 축조
2. 성 안쪽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터
3. 성벽과 접한 건물들은 적의 화공으로 불살라졌다
4. 성을 돌보는 시설
5. 성을 드나드는 문
6. 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시설
7. 동고산성은 원래 '전주성'의 일부였다

전주는 천년고도로 역사적 정통성의 맥이 남아 있다

동고산성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전주시 완산구 교동과 대성동이 접하는 산줄기를 따라 성벽이 둘러져 있다. 산성은 삼태기 모양의 골짜기를 감고 있는데 둘레는 1,712m¹⁾이며 동서 축 314m, 남북 축 256m에 이르는 포곡식(包谷式 : 두 개 이상의 산봉우리와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산성으로 규모가 큰 편이며, 성안에는 평탄한 대지와 우물 등이 있다)이다. 성벽에는 북·남·동쪽에 익성(翼城 : 성벽에서 새의 날개 모양으로 돌출된 성벽)이 있다. 성문은 동·서·남·북의 4곳에 자리하거나 추정되며, 성 내부에는 주건물터를 비롯하여 약 13개소가 알려져 있다. 특히 주건물터에서는 ‘술州城’명의 막새기와가 출토되어 동고산성은 천년고도의 전주성임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림1. 동고산성 위치도

- 1) 이 둘레 수치는 2013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 본부로부터 3D 정밀 스캔 측량을 통한 성벽 둘레 제원이며, 기존에는 1,574m, 1,588m 등으로 측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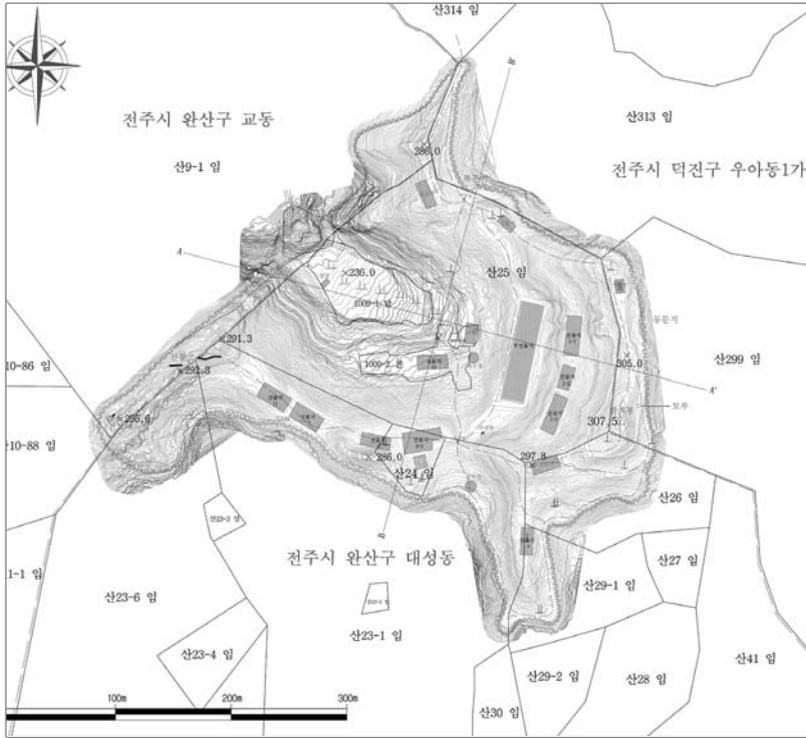


그림2. 동고산성 평면도

1. 성벽의 축조

동고산성의 성벽은 산줄기를 따라 쌓았는데 산줄기 정상부보다 아래쪽 경사면에 ‘ㄴ’ 자로 파낸 후 바깥쪽에 네모 형태로 깎아 만든 돌(건치석: 성돌의 바깥 면은 길이와 두께가 큰 반면에 뒤채움 쪽인 성돌의 안쪽은 바깥 면보다 두께가 얇아 마치 옥수수알 모양처럼 생긴 돌을 단처럼 쌓아 올리면서 돌로 뒤채움(네모 형태의 돌을 쌓은 석축 안쪽에 잡석이나 흙 등을 채워서 다지는 일)을 한 내탁식(內托式)으로 분류된다. 내탁식은 성벽의 바깥쪽에만 성돌을 쌓는 수법이며 이와 달리 성벽의 바깥쪽과 안쪽을 같이

쌓아 올린 형식은 협축식(夾築式)이라 한다. 내탁식은 산 경사면에 성벽을 쌓을 때 주로 사용되며, 협축식은 지형이 평탄하고 낮은 곳, 성문과 가까운 곳에 주로 사용된다. 동고산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되었던 남익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탁의 방식으로 성벽을 쌓았다.



그림3. 견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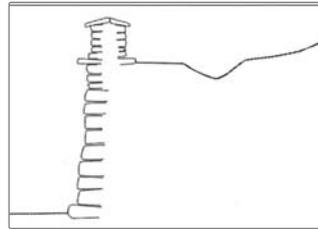


그림4. 내탁식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 동고산성은 한 차례 이상 성벽을 다시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문터로 추정되었던 곳의 발굴 조사에서 성벽의 통과선과 성벽의 축조 방식이 서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계곡부에 해당되는 추정 서문터에서 조사되었던 먼저 쌓은 성벽(1차 성벽)은 관관한 할석을 뉘여서 수평이 되도록 쌓아 올라가면서 점차 안쪽으로 경사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성벽도 계곡부의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지나고 있다. 후에 쌓아진 또 다른 성벽(2차 성벽)은 북문터, 동문터 주변과 남벽에서 조사되었던 성벽처럼 화강석이나 규암제의 돌을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성돌로 쌓았으며, 성돌의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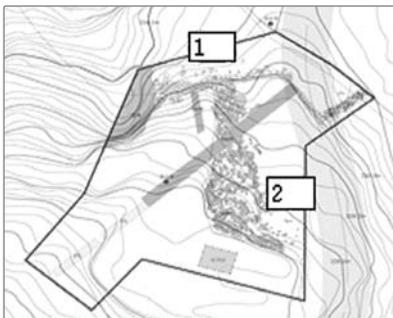


그림5. 서문터 주변 1차 및 2차 성벽



그림6. 서문터 주변 1차 및 2차 성벽(항공 사진)



그림7. 서문터 주변 2차 성벽 전경

기는 길이 40~60cm, 두께 25cm 내외이다. 성벽은 무려 1m가 넘는 길쭉한 기초돌을 놓은 후 그 위로 성벽을 쌓았는데 6~12cm 가량 되물려 쌓았다. 그리고 각각의 성돌 좌우를 수평으로 줄을 맞추고 위·아래의 성돌 사이의 줄이 서로 어긋나게 쌓아 그 모양이 '품(品)' 자형을 이룬다. 이러한 방식으로 쌓은 성벽은 후백제의 왕 견훤(甄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1차 성벽이 무너지고 난 후에 성벽을 다시 쌓을 당시 '관(官)' 자가 찍힌 기와들도 같이 묻혔는데, 이런 기와는 통일신라 말경에 제작된 것이다. 후백제 견훤은 통일신라 9주의 하나인 완산주(完山州, 전주)에 수도를 정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사실 중 하나로



그림8. 동고산성 2차 성벽 축조 모습



그림9. 정읍 고사부리성 백제성벽 축조 모습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벽쌓기는 후백제의 앞 시기인 백제의 성곽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예를 들자면 정읍 고부에 소재하고 있는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은 백제 시대에 중방성(中方城: 백제 때 지방행정 중심 도시로써 지금의 광역시와 유사하다)으로 네모나고 반듯하게 잘 다듬은 성돌을 ‘品’ 자형으로 쌓아 올렸다. 이러한 특징들은 백제의 옛 터전에 자리 잡았던 후백제에게로 그들의 기상(氣像)과 기술(技術)이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동고산성의 북문터 발굴 조사 과정에서 성벽 가장 아래쪽에서는 백제 시대의 토기편 등이 확인된 바 있어 동고산성은 통일신라 이전 시기에도 산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은 한 나라의 백성과 영토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 동고산성의 성벽쌓기에서는 되물림, 줄쌓기, ‘품’ 자형 쌓기, 그랭이기법 등과 같은 방법이 확인된다. 이러한 쌓기는 성벽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이라도 성벽이 무너진다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의 길이를 나누어 여러 사람 또는 고을 단위로 분담하여 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동고산성의 북문터 주변의 성벽에서는 위의 성벽쌓기와는 다르게 세로 방향의 ‘1’ 형태의 줄눈이 확인되며, 그 성벽 앞에는 성돌이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성벽을 쌓는 데 있어 분담 지역을 미리 정해 놓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동고산성의 성벽쌓기에 있어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성벽을 성 안쪽의 높은 지대보다 낮은 곳에 쌓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포곡식 산성의 경우 산줄기 가장 위쪽에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위에 회곽도(回郭道, 성벽을 따라 돌 수 있게



그림10. 북문터 주변 성벽의 분담선

낸 길)를 두어 순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동고산성의 포곡식의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줄기 경사면 아래쪽에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윗부분에 회곽도를 만들어서 2중의 순찰로를 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는 3~4m이나 최대 높이는 5.5m로 대부분 흩에 묻혀 있거나 무너진 부분이 많다.

산성의 서쪽에는 승암산(僧巖山 300m, 일명 중바위, 치명자산 등으로 불리운다)이 솟아 있는데 이곳에는 천험의 기암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벽을 따로 쌓지 않았다. 또한 승암산의 절벽은 산성의 남쪽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기에 익성(翼城)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익성은 승암산 자락의 남익성과 기린봉 방향의 북익성, 동남쪽의 동익성 등이 있다. 이들 익성도 성벽이 지나가는 곳이 산줄기 아래쪽에 있으며, 성벽으로는 토루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동익성의 안쪽에는 제 8건물터가 조사된 바 있다.

2. 성 안쪽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터

성안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 평탄한 대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성 안의 중심에 자리한다. 추정 서문터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서면 ‘왕터’라는 포도농장이 완만한 경사면의 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그 위쪽(동쪽)으로는 ‘성황사(城隍祠, 전주부성을 수호하는 성황신(신라 56대 경순왕(김부대왕), 경순왕비(제2부인), 마의태자, 태자매, 정후 허씨) 5위를 모신 사당이 자리한다.

이 성황사 뒤편인 동쪽으로는 높은 단이 만들어져 있으며 단 위에는 ‘주 건물터’라는 대형 건물터가 정비되어 있다. 그리고 주 건물터의 뒤편이 경사면 위에도 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단 위에는 3개의 건물터가 발굴 조사

되었다. 주건물터는 전면 22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면과 양 옆면에는 퇴칸(退間 : 건물의 벽 밖으로 덧달아 낸 칸) 또는 차양칸²⁾을 두었다. 규모는 길이 84.2m, 너비 14.1m이다. 벽기둥(內陳柱, 벽이나 기둥을 겹으로 두른 건물의 안쪽 둘레에 벌여 세운 기둥) 간의 거리는 3.6~3.9m이며, 퇴칸과의 거리는 앞면 5.1m, 옆면 4.5~4.7m이다. 그리고 벽기둥 사이에는 사잇기둥이 놓여져 있다. 이러한 평면 형태와 초석의 배치 상태로 본다면 2층 이상의 외관을 가진 건물로 추정되며, 단일 건물로는 대형에 속한다. 발굴 조사를 실시했던 고(故) 전영래 선생은 북한 평양에 있는 고구려시대 안학궁(安鶴宮)과 비교하면서 주건물터가 후백제 견훤(甄萱)의 궁전(宮殿)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왕이 살고 나랏일을 하는 궁전은 평지에 세워지는 게 일반적이고, 또 성벽 위의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머물며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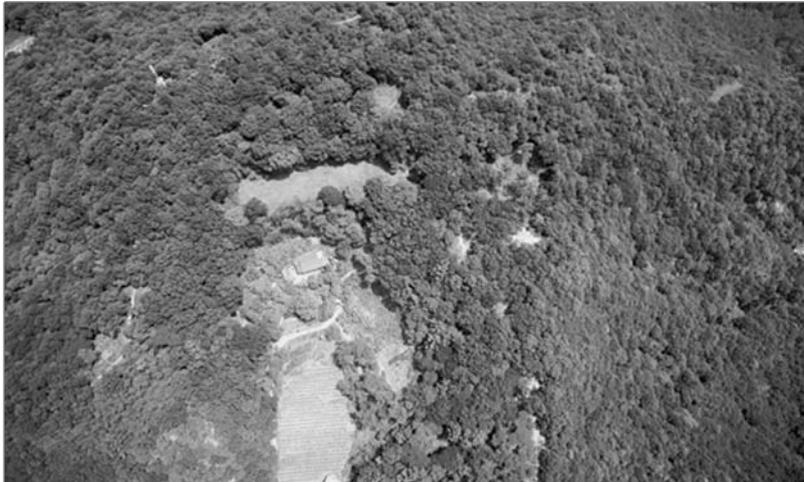


그림11. 성 내부 주건물터

2) 퇴칸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지지만 차양칸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랑으로도 보고된 바 있어 주건물터는 2층 이상의 마루가 있는 건물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면과 측면은 차양칸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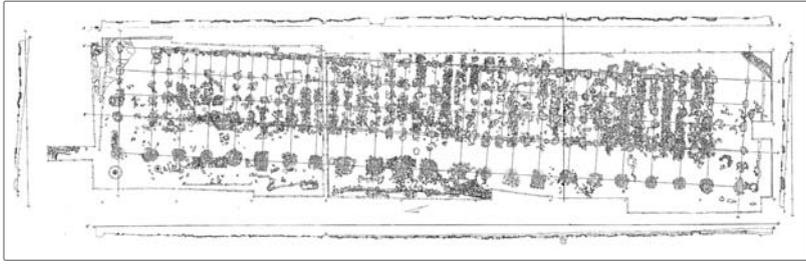


그림12. 주 건물터 실측 도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 건물터는 궁전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한편 주건물터에서 ‘전주성(全州城)명의 수막새와 암막새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주건물터의 위쪽 단에는 제1-1, 1-2, 1-3건물터가 자리하고 있다. 제1-1건물터는 ‘ㄴ’ 자형의 퇴칸이 달린 앞면 18칸, 옆면 5칸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당초문 수막새편 등이 발견되었다. 제1-2건물터는 앞면 5칸, 옆면 3칸의 건물이 있었던 곳이다. 이 건물터 뒷면 기둥 사이에는 고막이(庫幕: 기둥 사이의 하인방 밑을 막은 벽)가 있으며, 중앙의 3칸을 제단(祭壇)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황사’와 관련된 터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 숙종 14년(1688)에 쓴 「전주성황사중창기(全州城隍祠重創記)」의 기록에 의하면 ‘성황사를 동쪽 방향의 견훤궁터로 옮겨 다시 세웠다’고 한다. 현재의 성황사는 건물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옛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제1-2건물터의 불단과 같은 제단은 1688년에 옮겨진 성황사의 터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제1-3건물터에는 길이 34m, 폭 10.7m 규모로 뒷면을 제외한 3면에 퇴칸을 두른 앞면 14칸, 옆면 5칸의 건물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관(官)자가 찍힌 기와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3. 성벽과 접한 건물들은 적의 화공으로 불살라졌다

동고산성의 산줄기 중 남쪽에는 정상부를 평탄하게 깎아 만든 곳에 건물터들이 줄지어 있다. 이러한 평탄한 곳에는 작은 바위와 같은 주춧돌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데 바로 이곳이 건물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다.

동고산성 남쪽에 치명자 성당과 기암절벽을 이루는 중바위에 이르는 곳에는 제7건물터와 제11건물터가 조사되었다. 제7건물터는 길이 35.2m, 너비 8.8m로 앞면 16칸, 옆면 4칸의 건물이 있었던 곳이다. 건물의 네 면에는 차양칸이 둘러져 있으며, 초석을 놓은 기초가 긴 네모 형태의 줄기초 형식이다. 제11건물터는 중바위에 오르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길이 26.4m, 너비 6.8m로 앞면 12칸, 옆면 3칸의 건물이다. 제7건물과 마찬가지로 네 면에 퇴칸이 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고막이 시설을 하였다. 특히 제11건물터는 불에 타 건물의 크기를 줄여서 다시 만든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성벽과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 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2004년 건물터의 발굴 조사가 끝났지만 지금도 초석(주춧돌이라고도 불리우며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과 기와 조각들이 두루 널려져 있다. 이곳에서 산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제5건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동의 건물



그림13. 7건물터



그림14. 11건물터

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5-1건물터는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길이가 7.86m, 너비 6.06m이다. 제5-2건물터는 앞면 9칸, 옆면 3칸으로 길이가 19.8m, 너비 7.5m이다. 이 건물의 동쪽에는 익사(翼舍 : 건물의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 건물)가 있다. 건물의 남쪽에는 차양칸이 있으며, 건물 중앙의 남쪽에는 건물의 출입구와 관련된 담병석 2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어서 성벽은 위 건물터를 따라 이어지다가 남쪽으로 허리가 꺾이어서 돌출하는 익성(동익성)이 자리한다. 이 익성의 안쪽에는 정상부를 평탄하게 깎아 만든 대지에 전면 8칸, 옆면 4칸의 제8건물터가 조사되었다. 이 건물터에도 네 면에 차양칸을 두르고 있으며, 초석에는 기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주좌(柱坐 : 기둥을 받치도록 약간 높게 새긴 자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성벽에 접한 건물들은 그 용도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숙식(宿食)하거나 무기 및 군용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벽 가까이에 있는 건물은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 특히 불화살 등의 공격을 받아 화재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11건물터에서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세운 흔적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고 성벽 위에 담장과 같은 여장(女牆)이 있어 몸을 숨기며 공격할 수 있는 구조물이 남아 있지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벽 바로 안쪽에 열을 지어 건물들이 배



그림15. 8건물터



그림16. 주좌

치되어 있는 점은 성벽을 보호하고 적을 감시하기에 유리한 시야 확보를 위해 이들의 건물에 군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건물들은 사람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건물터에는 마룻바닥을 받치는 동자석(초석의 일종으로 건물의 마루를 받쳐 주는 기둥의 밑받침)이 확인되어 누각형의 건물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건물 내부의 보온을 위한 온돌이나 고래(구들장을 받치고 구들 아래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만든 통로의 벽)가 없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릇과 조리할 수 있는 화덕과 부뚜막 등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 건물들은 군인들이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던 곳이 아닌 것이다.

출토된 유물은 식기나 용기로 사용되었던 토기류는 불과 몇 점뿐이다. 따라서 동고산성은 즉 사람들이 항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난이 일어날 경우 대피하여 적들이 지쳐 돌아가기를 기다렸던 피난성이었던 것이다.

4. 성을 돌보는 시설

성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는 치성(雉城 : 성벽의 바깥에 사각형으로 덧붙여서 만든 성벽)과 적대(敵臺 : 성문 좌우에 돌출시켜 쌓은 성벽), 익성과 성벽 위의 여장(女牆 : 성벽 위의 담장 시설로 적의 화살이나 총알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토루(回郭道(廻郭道)) 등을 들 수 있다.

동고산성을 지키기 위한 시설들 중 현재 확인되는 시설은 익성과 토루가 있다. 익성은 성안에서 밖의 관찰이 장애물로 인해 어려운 지형과 모퉁이 부분에 성벽을 돌출시켜 효율적인 감시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고산성의 익성은 동·북·남쪽 등 3곳에 있다. 먼저 동고산성의 서문터로 추정되는 남쪽과 북쪽에는 익성이 각각 자리하는데, 남쪽의 익성은 기암 절벽을 이루는 중바위산을 포함하며 일부분은 성벽을 쌓았다. 이 익성은 절벽이라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성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좁은목(전주에서 남원 방향의 나들목)을 감시하기에 좋은 자리이다. 북쪽의 익성은 기린봉 방향의 산줄기를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성벽을 쌓았으며, 전주 시내 및 아중 저수지의 동쪽 부분이 잘 바라다보인다. 그리고 동익성은 동고산성의 남성벽의 동쪽에 치우쳐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벽을 쌓았다. 이 익성에서는 전주-남원 간 도로가 훤히 바라다보인다. 이 익성의 서쪽 건너편 산에는 남고산성의 동북 각루(角樓: 성벽 밖의 장애물의 지형을 이루거나 성벽의 모서리에 만든 다락집)가 전주-남원 간 도로를 감시하고 있어 옛부터 전주의 남쪽 나들목이 군사적·교통적으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토루는 성벽 위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순찰하기 위한 통로이다. 동고산성에서는 동익성에서 동성벽을 따라 이어지며, 북쪽으로 꺾이어 북익성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 토루는 성벽 윗부분에 해당되며 너비 4~5m의 평탄면이 산줄기 아래 경사면에 만들어져 있다. 성벽의 상단에는 여장과 같은 보호 시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고산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붕괴 등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장은 인근의 남고산성에서 여장의 기초 부분(眉石: 여장 밑에 눈썹처럼 약간 바깥



그림17. 토루



그림18. 남고산성 여장 기초 시설

쪽으로 나오게 설치한 돌, 여장의 기단)만 남아 있다.

5. 성을 드나드는 문

성의 안팎을 출입하는 통로가 바로 성문이다. 성문은 보통 동·서·남·북 4방향에 둔다. 동고산성에서 성문이 확인되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북문터와 동문터이며, 서문과 남문이 추정되고 있다.

성문에는 주(主)가 되는 문이 있는데 동고산성에서는 서문이 정문에 해당한다. 서문터는 남익성(승암산 쪽)과 북익성(기린봉 쪽) 사이의 작은 계곡에 자리하는데, 전주 시내 경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낙수정(樂水亭) 군경묘지 산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 전인 2013년 5월에 추정 서문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성문의 위치와 형태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문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 유물은 문의 부속으로 사용되었던 크기가 작은 신쇠(화금(靴金): 대문짝의 아래 문장부로 끼우는 쇠)로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문은 개거식(開渠式: 양 성벽이 마감된 형태) 혹은 평거식(平居式: 성벽의 상단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으로 성문의 상단부에는 누각형의 건물이 세워진다. 아마도 이번에 발견된 신쇠는 누각 건물의 2층 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문터는 2007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북문터는 동고산성에서 아중저수지로 내려가는 곳이자 북익성이 시작되는 곡선부에 해당된다.



그림19. 신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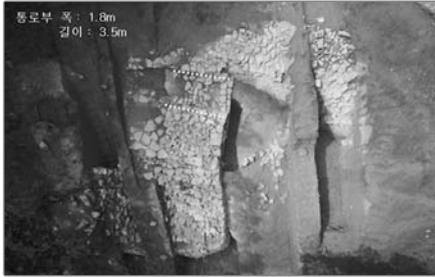


그림20. 북문터



그림21. 북문터 확쇠와 신쇠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성문은 바로 이러한 곳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성문이 만들어지는 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쉽고 주변보다 지형이 완만하고 계곡부에 위치하는 흐름이 많다. 특히 삼국 시대 백제의 성곽 중 성문들은 계곡부에 엇비슷한 방향으로 성문을 두고 있는데, 이 점은 성의 출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북문터의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문의 형식은 중첩문(重疊門: 어긋문이라고도 하는데 성벽이 일자형(一字形)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기어 서로 어긋나게 성벽을 안팎으로 틈을 내어 그 사이로 출입하는 형태이다. 즉 개거식이나 평거식, 현문식은 출입 방향이 성벽과 직각으로 출입하지만 중첩문인 경우는 성벽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첩형의 문은 성문의 정문보다는 그 성격이 암문(暗門: 비밀통로로 이용된 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 형식은 외부에서 볼 때 문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북문은 두 차례 이상 수리를 하였는데, 성문의 통로 양측에 문비주공석(門扉柱孔石: 문짝을 받치기 위한 기둥(문지도리)을 끼워 회전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뚫어 놓은 돌로 둔대석(屯太石)이라고도 한다)에 신쇠(軛金: 문짝 아래에 끼우는 쇠)와 확쇠(確金: 둔대 구멍에 끼우는 쇠)가 끼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쌍여단이문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문의 통로 폭은 380cm이며, 후에 통로의 폭을 1/2 정도로 대폭 줄여 외여단이문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동문터는 2009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동문터는 KBS 송신탑 남쪽에 능선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 두 차례 이상의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문의 형식은 현문식(懸門式 : 다락문식이라고도 하며 성벽의 하단부가 연결되어 있다)으로 문의 위치가 높아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초문(唐草紋) 암막새(지붕의 처마 끝에 덮는 쓰임새로 암·수키와에 마구리가 달린 기와)를 비롯한 기와들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지붕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문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산석(圓山石 : 문을 닫을 때 받는 돌로 문지레라고도 한다)이 발견되어 쌍여닫이 형태의 문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문짝의 폭은 200cm이다. 그리고 성문의 안쪽에는 차단벽이 있고 그 좌우로 두 갈래의 출입로가 계단식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정문보다는 암문의 성격이 짙다.

마지막으로 남문터는 동고산성의 남익성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주 치명자산 천주교회에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위치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경사



그림22. 동문터(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라 할 수 있다.

6. 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시설

성은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땅을 지키는 방어 시설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여 살아남에 따라 풍부한 식량과 물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성이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오랫동안 갇히게 될 경우 지원군을 요청하거나 물자를 도움받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하기 위한 통로, 즉 암문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기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성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고산성은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포곡식의 산성이기 때문에 지하 혹은 지상으로 흐르는 물이 있으며 이를 모아 두는 샘이나 우물 등이 있다.

산성 중 테뢰식(산정식, 테머리식으로도 불리우며 산봉우리의 7~8부 능선에 머리띠처럼 성벽을 두른 형식)의 산성은 계곡이 없을 뿐더러 지하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테뢰식의 산성 안에는 반드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그 간의 성 내부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먼저 땅을 동그랗거나 네모로 깊게 판 후 바닥면과 벽면에 뿔흙(진흙)을 발라 안쪽의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쪽 벽면에 돌을 쌓아 올려 마치 우물처럼 만들어 놓



그림23. 원주 배매산성 정상부 담수고

는다. 만약에 이러한 물 저장 시설이 없다면 적으로부터 성이 포위되면 농성(籠城: 적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고산성에는 우물이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곳은 주건물지 앞이자 성황당의 옆쪽이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며, 성황당의 대지에는 작은 연못이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 곳은 남성벽에서 동익성으로 꺾이는 지점이다. 2009년 발굴 조사를 통해 집수 시설(集水施設: 물을 모아 두는 장소)의 일부가 조사되었다. 집수 시설은 동그란 것과 네모난 것 등 2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집수 시설의 경우 구덩이를 판 후 벽면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들 것으로 동그란 형태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집수 시설에는 성이 만들어진 때와 의식 행위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성에서 가장 필요충분이 되어야 하는 우물은 성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사를 통해 희생물을 받쳤던 동물들의 뼈(소, 말, 돼지 등)가 우물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성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물이 무기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하며 군인과 백성을 통솔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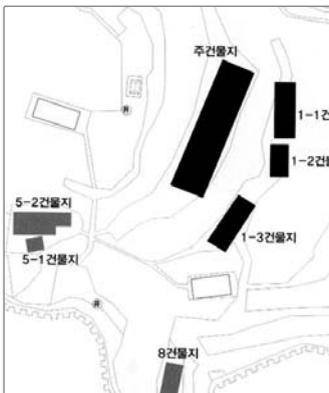


그림24. 성 내부 우물터



그림25. 동익성 서쪽의 집수 시설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는 훌륭한 장수가 그 다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

7. 동고산성은 원래 ‘전주성’의 일부였다

동고산성의 ‘주거물지’에서는 ‘전주성’이라고 한자(漢字)가 찍힌 기와명문 와들이 발견되었다. 이 기와들은 지붕의 처마 끝에 올려놓은 와당(瓦當, 막새라고도 한다)으로 암막새와 수막새가 있다. 먼저 수막새는 둥근 원형이며 둘레의 가장자리에는 연주(聯珠 : 구슬 모양)



그림26. 수막새

가 둘러져 있고 그 안쪽에 8엽 복판의 연꽃 무늬가 있으며, 자방(子房 : 연꽃의 씨방)에는 쏠州城이 삼각 형태로 한 자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혀있다. 원래 자방에는 연자(연꽃의 열매)가 배치되어 있다. 암막새는 가장자리에 연주가 둘러져 있고 중앙에는 수막새의 명문과 같이 ‘전주성’이 찍혀 있고, 명문의 좌우에는 봉황문(鳳凰文 : 봉황은 상상의 동물로 용과 학이 교미하여 낳은 상서로운 새라고 한다.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하는데, 암수가 한 쌍으로 만나면 금실이 매우 좋다고 하며, 성군(聖君)이 출현



그림27. 암막새

하거나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이 대칭되어 있다. 또 다른 암막새에는 봉황문 대신 긴 창을 찌르고 있고 무사(武士)가 대칭되어 있다. 봉황은 새 중의 군주(君主)로 신성시되었으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매체로서 신조(神鳥)로서 여겨져 왔다. 아마도 우리 고장인 전주에 하늘의 자손이 내려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봉황의 문양을 새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28. 관자명 수키와

그리고 명문기와 중에는 벼슬이나 관칭을 뜻하는 ‘관(官) 자가 찍힌 기와가 다량 발견되었다. ‘관’은 정치, 행정, 군사 등을 담당했던 부서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기와에 표시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 자 명 기와는 동고산성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전(慶基殿)의 땅 속에서도 발견되며, 조선 시대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선화당(宣化堂) 터 주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전주성’의 판도(版圖)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관’ 자 명 기와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무진고성’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 광주는 후백제왕 견훤이 서기 900년에 전주를 수도로 삼기 이전인 892년에 광주를 점령했던 곳이다. 오늘날의 광주(光州)는 당시 무주(武州)로서 신라 9주5소경의 하나였다. 무진고성 역시 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 등이 밝혀졌는데 동고산성의 건물지처럼 성벽을 따라 배치된 점이 비슷해 견훤의 동일한 계획과 설계하에 산성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지금도 동고산성을 전주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견훤의 궁성이라고 입소문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주 시내 일원에 묻혀 있는 궁터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산에 있으니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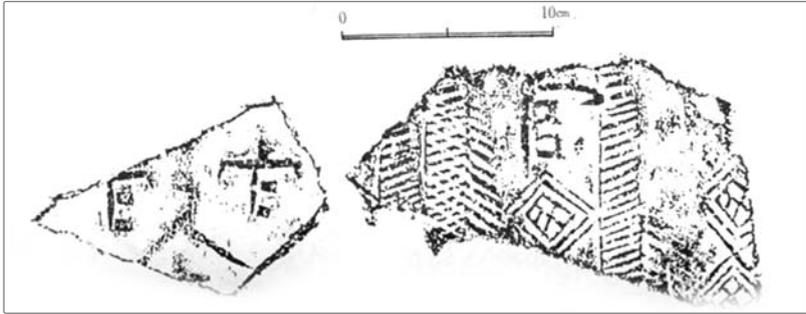


그림29. 광주 무진고성 관자명기와

정서		좌서			입구의 변형				官+行

그림30. '관' 자 명문기와의 여러 형태(전북문화재연구원, 2006)

이요, 평지에 있으니 궁성일 것인데-아마도 익산 왕궁면의 왕궁성처럼 평지에 네모나게 성벽을 쌓은 궁성- 결국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수도 '전주성'이라는 도성의 일부로 전쟁 시 피난할 수 있는 요새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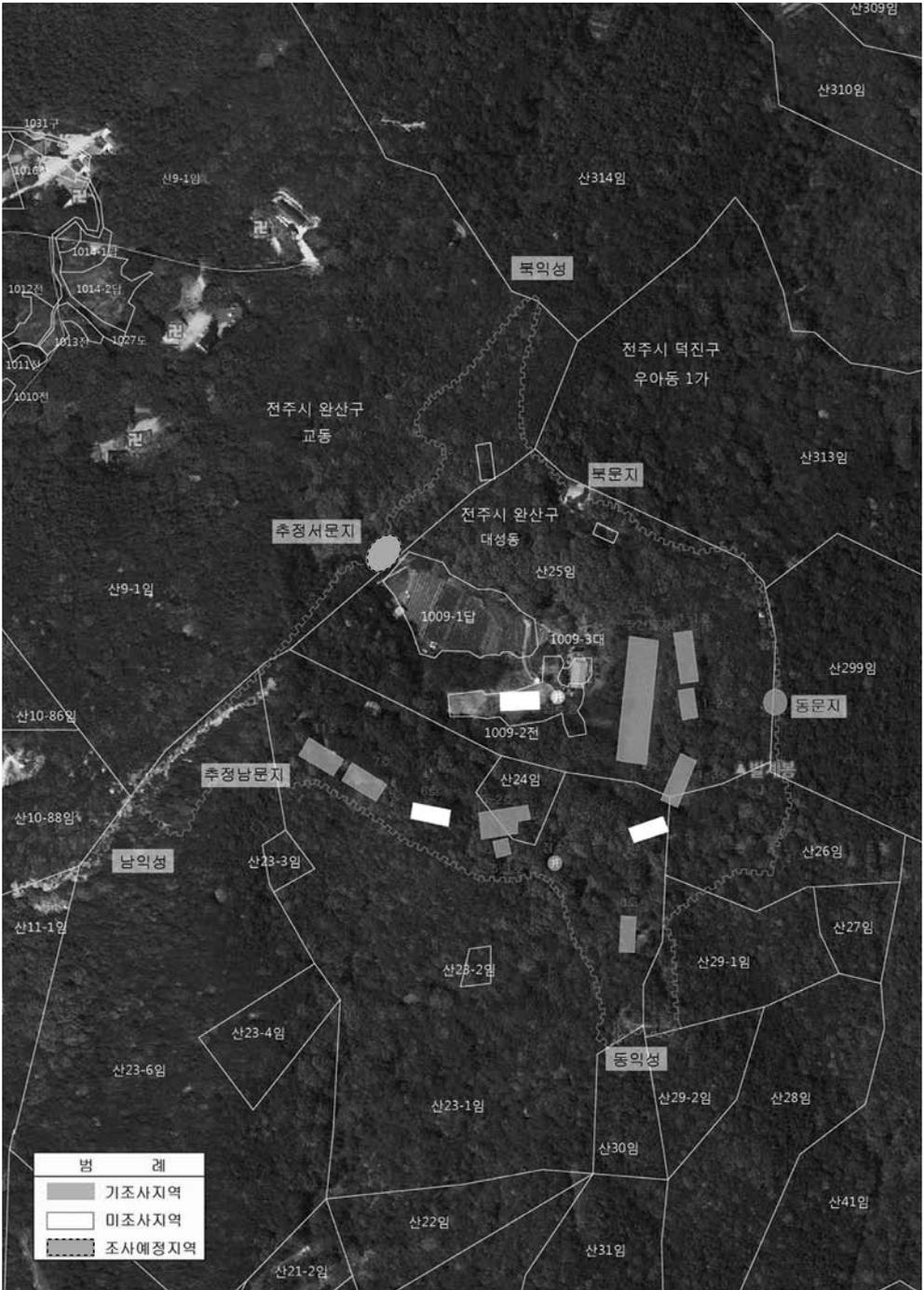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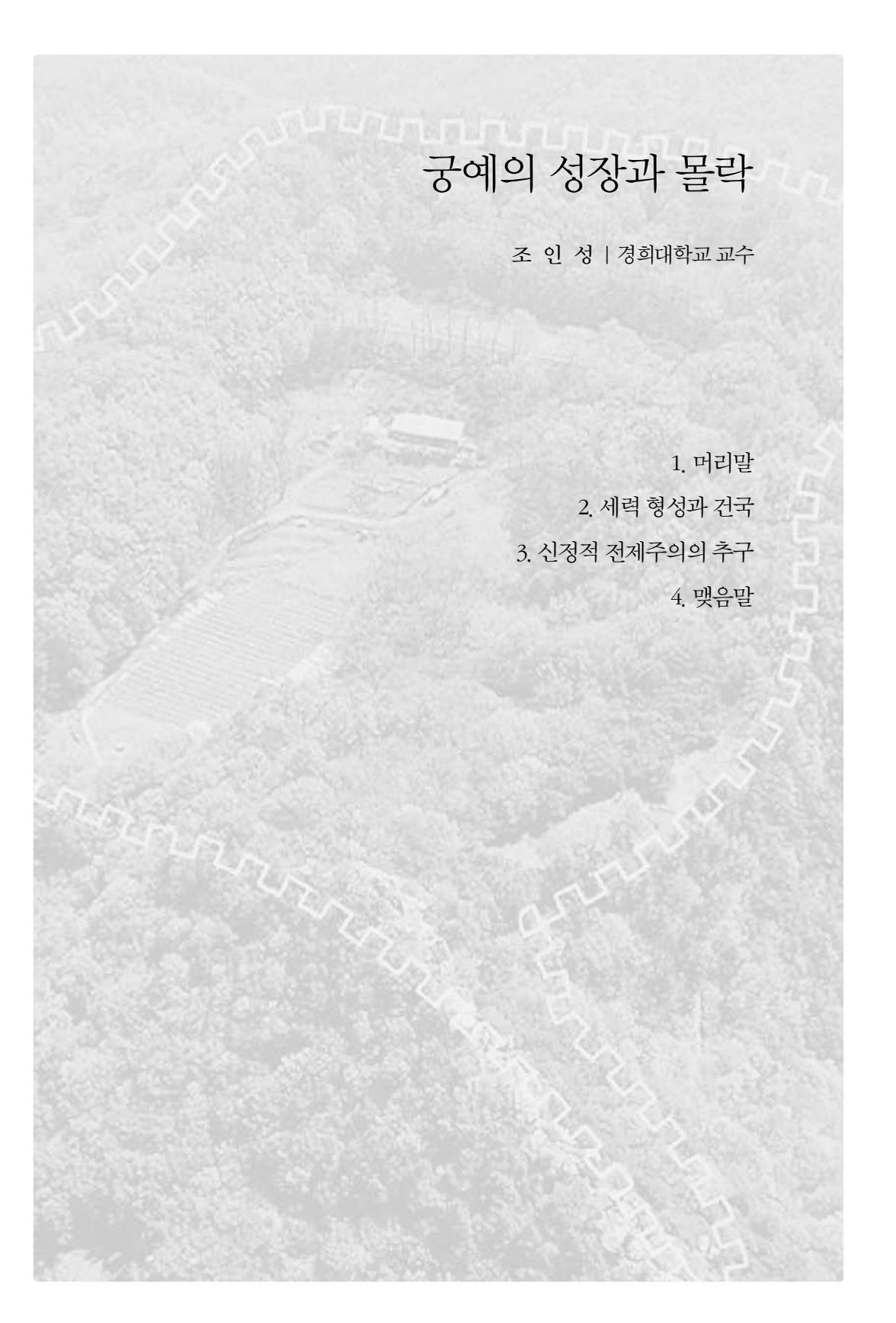


그림31. 동고산성 현황 및 조사 지역



궁예의 성장과 몰락

조인성 | 경희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세력 형성과 건국
3. 신정적 전제주의의 추구
4. 맺음말

1. 머리말

신라 효공왕 4년(900) 견훤은 완산(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궁예가 고려를 세웠다(901). 이들은 신라에 대항하여 각각 백제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였다. 이로써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서로 다투게 되어 마치 삼국 시대와 비슷한 형세가 되었다. 이른바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후삼국 시대의 주도권을 먼저 장악하였던 인물은 궁예였다.

- A. 내가 충선왕을 섬길 때 왕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상략) 우리 태조께서는 시기 많고 포악한 임금 궁예 밑에서 벼슬하셨는데, 삼한의 땅 중 궁예가 그 둘(2/3)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은 태조의 공이었다(하략)”라고 하셨다.

(이제현, 『익재난고』 권9 하(下), 사찬(史贊))

충선왕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궁예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 왕건의 공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왕건이 발탁하고 중용한 이는 바로 궁예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성공의 문턱에 이르렀던 인물은 궁예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918년에 일어난 정변으로 몰려나 죽고, 왕건이 집권하였다. 그 후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태조 18년, 935), 그 이듬해에는 고려군이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정권을 잃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궁예는 실패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궁예의 성패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2. 세력 형성과 건국

궁예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던 계기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B. 신라가 쇠퇴하고 미약하여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흩어지며, 왕도 부근에 떨어져 있는 주현(州縣)들이 배반하고 불음이 반반이었고, 이곳저곳에서 떼도적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고 개미처럼 모임을 보고 선종(善宗, 궁예의 法名)은 어지러운 틈을 타 무리를 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진성왕 즉위 5년, 대순 2년 신해(891)에 죽주(안성)의 적괴(賊魁) 기훤에게 투신하였다. 기훤이 업신여기어 예우하지 않자 선종은 우울하여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몰래 기훤의 휘하인 원희, 신희 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다. 경복 원년 임자(892)에 복원(원주)의 적(賊) 양길에게 투신하니 양길이 잘 대우하여 일을 맡기고, 드디어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동쪽으로 가서 땅을 빼앗도록 하였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궁예는 신라의 쇠약과 이에서 비롯된 혼란을 이용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였다. 신라 말의 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가 어지러워 경주에서 떨어진 주현 가운데에는 신라를 배반한 것과 따르는 것이 반반에 이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이 흩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떼도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전자는 지방 세력가인 호족의 대두를, 후자는 농민의 반란을 가리킨다.

신라 하대에 들어 진골귀족들은 정권을 손에 넣기 위해 보다 자주 다투었다. 가령 김헌창의 난이나 흥덕왕이 죽은 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왕위 계승전이 그 좋은 예이다. 불과 몇 년 동안 희강왕(836), 민애왕(838), 신무왕(839)의 세 왕이 차례로 교체될 정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진골귀족들이 서로 싸움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호족들이 대두하였다.

호족들은 중앙정부에서 과건한 지방관을 대신하여 각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들의 지배권은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일족과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농민 등으로 구성된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하대에 들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더 늘었던 듯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떠돌이가 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당나라나 일본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자손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군대를 동원하여야 할 정도로 도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진성왕 3년(889) 정부가 세금의 납부를 독촉하자 이에 저항하여 전국에 걸쳐 농민들이 반기를 들었으며 이후에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이처럼 국가에 대한 각종 의무를 담당하였던 농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신라의 실질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호족들이 대두하였고, 농민들의 반란 또한 계속되었다. 궁에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금방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달사의 승려였던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궁에는 호족들에게 몸을 의탁한 후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는데, 기훤과 양길이가 바로 그들이었다. 두 사람이 적(賊)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반신라적인 호족이었기 때문이다.

C1. 궁예가 북원으로부터 하슬라(강릉)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600여 인에 이르렀으며 장군이라고 자칭하였다.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8년(894) 10월)

C2. 건녕 원년(894) 명주(강릉)에 들어갔다. 무리 3,500인을 거느렸는데 (중략) 사졸들과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 수고로움과 평안함을 함께하였으며,

상벌(予奪)에 이르러서는 공적으로 하고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이로써 무리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추대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두 자료 중 앞의 것은 궁예가 명주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뒤의 것은 그 후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궁예가 장군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호족들은 성을 쌓고 그 주인을 자처하여 성주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사병을 지휘한다는 명목으로 장군을 칭하기도 하였다. 궁예는 양길의 휘하에서 벗어나 894년 명주에서 독립적인 세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궁예의 병사가 600여 명에서 3,50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명주에서 거의 2,900명에 달하는 병사를 더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본래 그 인근에 살던 가난한 농민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들을 끌어들이었을까. 궁예는 사족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였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였던 것이 아닐까. 궁예는 또 상벌을 공정히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는 균율로써 병사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을 엄히 금하였던 것이 아닐까. 농민 반란을 이용하여 꿈을 이루려고 하였던 궁예였기에 가난한 농민들을 돌보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불교에서는 석가가 입적한 후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법(末法)의 시대, 곧 말세가 된다고 한다. 말세에는 불법이 쇠퇴할 뿐만 아니라 인심이 흉악해지며, 기근, 질병, 전쟁 등과 같이 온갖 나쁜 일이 나타난다고 한다. 9세기 신라의 금석문 중에는 당시를 말세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예를 여럿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대에 들어 기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농민들의 말세의식은 누구보다도 절실하였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경에는 미륵불이 아주 먼 훗날 이 세상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세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미륵불의 하생뿐이라고 믿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승려였던 궁예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미륵불을 자칭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궁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앞으로 미륵불이 하생할 것이며, 이 세상에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끌어들이었을 것으로 헤아려 보게 된다.

명주를 떠난 궁예는 지금의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896년 드디어 철원을 서울로 삼고 건국의 태세를 갖추었다. 평주(평산)의 박씨 가문을 비롯한 패강(예성강) 서쪽 지역의 호족들과 송악(개경)의 왕건 부자가 귀부(歸附)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평산 박씨 가문 중 박직윤이라는 인물은 대모달(大毛達)이었다고 한다. 고구려에서는 장군에 해당하는 무관을 대모달(大模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양자는 같은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직윤은 평산의 호족이었던 셈인데, 그 명칭이 장군이 아니라 하필 대모달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그들이 고구려의 부활 내지는 재건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지배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 점에서 그들은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웠던 견훤과 궁예의 선구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평산 박씨 가문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던 것은 그와 제휴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패서 지역에 설치된 군사 조직인 패강진에 기대어 성장하였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눈앞에 둔 궁예로서는 그들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왕건 집안은 송악의 호족이었다. 특히 그 선대로부터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큰 부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황해도 일부와 강화도, 한강 하류 일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궁예는 송악에 발어참성을 쌓게 하고 왕건을 그 성주로 임명하였으며, 그 아버지 왕륜은

도읍지 철원의 바로 옆에 위치한 금성(김화)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궁예는 왕건 집안을 상당히 우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898년 궁예가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궁예는 가난한 농민들을 모아 세력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농민들이 끌고서는 나라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호족들과의 제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901년 후고구려의 건국과 함께 성립된 궁예 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3. 신정적 전제주의의 추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궁예는 미륵불을 자칭하였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D. 선종이 미륵불을 자칭하며 금색 머리싸개를 하고 몸에 네모진 승려의 옷을 입었으며,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평보살이라고 하였다. 외출할 때에는 항상 백마를 타고 비단으로 그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어린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로 하여금 깃발, 일산(日傘), 향과 꽃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도록 하고, 또 비구 200여 명에게 명하여 범패를 부르면서 뒤따르게 하였다. 또 스스로 경전 20여 권을 지었는데, 그 말이 요망하고 모두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때로는 바로 앉아 강설하였는데, 승려 석총이 이르기를 “모두 사악한 설과 괴상한 말로 교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니, 선종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첩퇴로 그를 때려 죽였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각각 청광 보살, 신광보살이라고 하였다. 마치 불교 조각에서 미륵불을 주존불로 하고 양 옆에 보살상이 배치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궁예는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신격화하였던 것이다. 그가 외출할 때 백마를 타고 어린 남녀를 앞에 세우고 비구들로 하여금 범패를 부르며 따르게 하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미륵불의 장엄을 꾸밈음을 일러준다.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궁예를 따르면서 비구들은 미륵불 궁예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궁예는 경전과 강설을 통해 자신이 하생한 미륵불이며,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미륵불이 하생한 이상세계임을 주장하였을 것이다. 궁예는 경전과 강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E. 당시에 궁예가 반역죄를 터무니없이 꾸며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 장군과 대신 중에서 해를 당하는 자가 10 중 8, 9나 되었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관심법을 체득하여 능히 부인의 사사로운 비밀(陰私)을 알아낼 수 있으니 만약 나의 관심에 걸리는 자가 있으면 곧 준엄한 법을 집행하리라”라고 하고는 드디어 석 자나 되는 쇠방망이를 만들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곧 이것을 달구어서 그 음부를 찌르면 연기가 입과 코로 나오며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들이 무서워 떨며 원한과 분노가 날로 더하여 갔다.

(『고려사』 권1, 태조 즉위전)

궁예는 미륵관심법으로 부인의 사사로운 비밀을 찾아내어 잔인하게 처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관심’의 대상이 비단 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F. (궁예가) 하루는 급히 태조를 불러 궁궐에 들어갔다. 궁예는 바야흐로 살해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금과 은으로 만든 보배로운 그릇과 상장(床帳)의 기구(器具)를 점검하다가 노한 눈으로 태조를 노려보며 말하기를 “경(卿)은 어젯밤 무리를 모아 반란을 꾀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였다. 태조가 안색을 변하지 않고 태연히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궁예는 “경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관심(觀心)할 수 있어 아는 것이다. 내가 곧 선정(禪定)에 들어서 (너의 마음을) 보고 그 일을 다 말하리라”라고 하고는 이에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는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한참 동안 하였다. 이때에 장주(掌奏) 벼슬을 하던 최옹이 옆에 있다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리고 뜰에 내려와 그것을 줍는다는 핑계로 서둘러 태조를 지나치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따르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곧 깨닫고 말하기를, “신이 실로 반역을 꾀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궁예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은 가히 정직하다고 하겠다”라고 하고는 금은으로 장식한 안장과 고삐를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경은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 태조 즉위전)

위에 따르면 궁예는 왕건에게 모반의 혐의를 추궁하였는데, 그때에도 미륵관심법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앞에서 궁예가 지어낸 터무니없는 반역죄 때문에 해를 당했다는 장군과 대신 가운데에는 미륵관심법의 피해자가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궁예가 터득하였다는 미륵관심법은 남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다는 술법으로서 미륵불 궁예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궁예는 이제 국왕의 권위와 권능에 미륵불의 권위와 권능을 더하게 되었다.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지배자가 신(神), 신의 후손 혹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신정(神政)이라고 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개인이 쥐고 개인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것을 전제주의라고 한다. 이 점에서 궁예가 신정적(神政的) 전제주의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력

기반을 마련할 때에 변혁의 논리로 이용되었던 미륵하생신앙이 체제 유지의 논리가 되었다.

궁예의 신정적 전제주의는 궁예와 그에게 충성하는 측근의 인물들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궁예의 신정적 전제주의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G. 정명 원년(915)에 부인 강씨가 왕의 법에 어긋난 일(非法)을 많이 행하므로 안색을 바르게 하고 그를 간(諫)하였다. 왕이 그를 미워하여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니 강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왕이 “내가 신통력으로 보았다”라고 하고는 뜨거운 불로 쇠방망이를 달궈 그 음부를 찢어 죽이고 그 두 아들까지 죽였다. 그 후로는 의심이 많고 화를 잘 내니 여러 보좌관과 장수, 관리로부터 밑으로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자주 있었으며, 부양(평양)과 철원 사람들이 그 해독을 이기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궁예가 부인 강씨의 간통을 알아내었다고 하는 신통력은 다름 아닌 미륵관심법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궁예는 미륵관심법으로 부인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내고 쇠방망이를 달구어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였는데, 부인 강씨의 죽음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궁예가 부인 강씨를 죽인 것은 그녀가 그를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부인 강씨가 간하였다는 ‘비법’은 궁예가 신정적 전제주의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일 것이다. 가령 미륵관심법과 그에 따른 처벌이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부인 강씨의 비판은 궁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가 부인뿐만 아니라 보살이라고 신격화하였던 두 아들까지 살해한 것이나 이후 궁예가 일종의 공포정치를 행한 것은 이를 일러준다. 요컨대 궁예의 최측근에서

도 신정적 전제주의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이는 그에 대한 반발이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

누구보다도 신정적 전제주의에 반감을 품었던 자들은 정치적 진출을 기대하였던 호족 출신의 관리들과 호족들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족 출신의 관리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왕건이 미륵관심법의 희생자가 될 뻔하였던 일이나, 궁예가 반역죄를 꾸며 살해하였다는 장군과 재신들의 대부분이 호족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H. 북방 골암성 장군 윤선이 와서 귀부하였다. 윤선은 침착하고 용맹하였으며, 병법을 잘 알았다. 궁예 말년에 화를 피하여 달이나 북쪽 변방 지역에 들어갔다. 무리 2,000여 인을 거느리고 골암성에 살면서 흑수(黑水)의 오랑캐들을 불러 변방의 고을을 침범하여 손해를 끼쳤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사신을 보내어 초유(招諭)함을 듣고 드디어 와서 항복하니 북쪽 변방이 평안해졌다.

(『고려사절요』 1, 태조 원년 8월)

윤선이 용맹하고 병법에 능했다고 하고, 달이나서도 골암성 장군이 되었다는 것에서 사병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염주(연안) 출신이었다고 하므로 윤선은 본래 염주의 호족이었다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윤선은 궁예 말년에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달아났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부인 강씨 사건 이후의 공포정치를 피해 망명하였을 것으로 헤아려지는데, 이러한 예는 더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에 남아 있던 호족들도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기대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신정적 전제주의에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I. 신라 말에 토지제도가 고르지 못하여 세금이 무거워 도적이 떼 지어 일어났

는데 태조께서 왕업을 일으켜 즉위하신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하여 보시고 슬퍼하며 탄식하시면서 “근세에 마구 거두어들여 1경(頃)의 조(租)로서 거두어들임이 6석(石)에 이르러 백성들은 즐겨 살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이제부터는 마땅히 십일세법(什一稅法)을 써서 전(田) 1부(負)에 조(租) 3승(升)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민간의 3년 동안의 조세를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삼국이 정립하여 군웅이 서로 다투므로 재화의 쓰임이 바야흐로 급하였으나 우리 태조는 전쟁에서의 공을 뒤로 돌리고 백성의 진흙을 먼저 하였으니 곧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는 마음이요, 요 임금과 순 임금, (주 나라) 문왕과 무왕의 어진 정치였습니다.

(『고려사』 권 78, 식화1 전제 녹과전, 우왕 14년 7월 주준 상서)

이에 따르면 궁예는 1경당 6석의 세금을 거두었지만, 왕건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 십일세법에 따라 1부당 3승, 곧 1경당 2석만을 거두도록 하였다고 한다. 궁예는 10분의 3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으며, 이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조준은 왕건이 십일세법을 시행한 것과 조세를 면제한 조치가 갖는 의미를 전쟁 비용의 확보보다 민생을 더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궁예가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였던 것은 우선 전쟁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삼국의 영역 중 2/3를 차지하였던 인물이 바로 궁예였던 것이다.

J. 조(詔)하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마땅히 힘써 절약하고 검소해야 하는데 백성이 넉넉하고 창고가 차 있으면 비록 홍수와 가뭄, 굶주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갖고 있는 내장(內庄) 및 동궁식읍(東宮食邑)에 쌓여 있는 양곡은 세월이 오래되어 반드시 많이 썩어 손상되었을 것이니 내봉량 중 능범을 심곡사(審穀使)로 삼노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을축)

위는 태조가 즉위하고 며칠 되지 않아 나온 조서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내장(전)과 동궁의 식읍이나 그곳에 쌓여 있다는 양곡은 궁예 이전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장전은 왕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왕실 소유지였다. 동궁의 식읍이란 동궁의 재정적 기반으로 주어진 특정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두 곳에 이전부터 상당량의 양곡이 쌓여 있어 손상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왕건의 지적이 흥미롭다. 내장전을 경작하였던 농민들과 식읍의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었을 양곡의 양이 왕실이나 동궁의 재정이 넉넉하였다는 것은 궁예가 신정적 전제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수취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궁예가 미륵불로서의 장엄을 꾸미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치세가 미륵불이 하생한 이상세계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신정적 전제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궁예가 과중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정적 전제주의를 유지하는 경제적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예의 신정적 전제주의는 호족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궁예는 가난한 농민들을 병사로 끌어들이어 건국의 태세를 갖추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 열중하였다. 또한 궁예는 호족들과 제휴함으로써 건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그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권력을 추구하였는데, 농민들의 경제적 불만과 호족들의 정치적 욕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왕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왕건은 즉위한 직후 십일세법을 시행하는 등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태조 17년(934) 예산진(예산)에서 왕건이 신하들에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삼갈 것을 강력히 명하였음(『고려사』 권1, 태조 17년 5월 을사)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역시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왕건은 호족들에게 사신을 나누어 보내 선물을 후하게 하고 말을 낮추어 그들의 협조를 구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원년 8월 계해). 앞에서 본 윤선의 귀부는 이에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후에도 왕건은 호족들이나 호족 출신 관리들을 각별히 대우하였다. 가령 29명이나 달하는 그의 부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들의 딸이라는 점은 왕건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음을 알려 주는 좋은 예이다.

왕건은 진성왕 3년(889) 농민들이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고 봉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고 있었다. 또는 그는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호족들의 지지가 정권의 존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후삼국 통일의 관건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들과 호족들은 모두 지방인이다. 따라서 후삼국의 분열은 지방인들이 중앙인, 곧 경주인들에 대해 반발함으로써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왕건은 물론 그 조상들이 경주와 어떤 관련을 맺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의 아버지 왕룡은 사찬이라는 신라의 관등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호족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칭한 것이었다. 그들 부자는 송악의 호족으로서 궁예의 건국에 협조함으로써 비로소 중앙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그런 만큼 왕건은 농민들과 호족들의 바람을 잘 알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궁예는 왕건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에 따르면 그는 신라 경문왕 혹은 현안왕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탄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부왕이 궁예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유모와 함께 시골에서 숨어 지내다가 10여 세 때 세달사에서 승려가 되었으며, 기훤에게 투신할 때까지 승려로 지냈다고 한다. 궁예가 과연 왕자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그가 유력한 진골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정쟁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몰려난 인물이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궁예가 몰락한 진골귀족이었으리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일찍부터 궁예는 반신라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좌절을 안겨 준 진골귀족들과 그들이 지배하였던 신라에 대하여 반항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가졌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점에서 궁예는 왕경인, 특히 진골귀족 중심의 골품제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궁예는 몰락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을 진골귀족으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회복하려고 남다른 집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궁예의 가문이 유력한 진골귀족 가문이었다면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좌절감이 남달리 컸으리라는 점, 그리고 그 좌절감이 크기에 비례해서 진골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었을 특권과 권위에 대한 갈망 역시 컸을 것이라는 점 등은 쉽게 상상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궁예는 자연히 농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진다거나 권력을 남과 나눈다거나 하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나아가 궁예가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거나 지배 세력을 확대하는 문제에서는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 이 글은 나의 글, 「궁예 -미륵불을 자칭한 전제군주-」(『한국사 시민강좌』 31, 2002: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것임.

왕건과 후삼국 통일

김 갑 동 | 대전대학교 교수

1. 왕건의 성격과 자질
2. 태조의 등극과 후삼국 통일
3. 통일 정책

1. 왕건의 성격과 자질

왕건(王建)은 877년(헌강왕3)에 송악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다. 6대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호경(虎景)이 활을 잘 쏘았다든가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와 송악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작제건(作帝建)도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고구려의 건국자인 고주몽(高朱蒙)도 명궁이었는데, 이러한 공통점은 왕건의 가문이 고구려계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송악에 정착한 그의 가문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송악개성 자체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과의 해상무역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5대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강충(康忠)이 부자였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당나라 숙종(肅宗)과 진의(辰義) 사이에서 태어난 작제건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가다 용왕의 딸인 용녀(龍女)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설화도 그의 가문이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이미 작제건 대에는 그 일대를 장악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작제건이 용녀를 맞아 오자 개주개성·정주개풍군 풍덕·염주·백주의 4주와 강화·교동·하음 3현의 백성들이 그를 위해 영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 줬다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세계(高麗世系)」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왕건은 어떻게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어떤 자질을 가졌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우선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896년(진성여왕10)에 아버지 왕룡(王隆)과 같이 궁예에게 귀순하였던 그는 발어참성(勃禦斬城)의 성주가 되었다. 898년(효공왕2)에는 궁예 휘하에서 정기대감(精騎大監)에 임명되어 정복 전쟁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위협을 무릅써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목숨을 담보한다. 죽음

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왕건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선봉을 맡았던 것이다.

899년(효공왕3)부터 왕건은 전국 각지로 정복 전쟁을 떠났다. 우선 그는 광주(廣州)·충주·당성(唐城: 경기도 화성군 남양)·청주·괴양(충북 괴산) 등지를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의 장기인 항해술을 이용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수군을 이끌고 금성군을 공격하여 취하였다. 궁예는 이에 금성군을 나주로 승격시키고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했다. 양주(경남 양산)에서 원병을 요청하자, 왕건이 출선하여 이를 구하기도 하였다.

견훤과의 대결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상주의 사화진(沙火鎭)에서 견훤군과 싸워 여러 번 승리를 하였다. 909년(효공왕13)에 그는 해군대장군에 임명되어 광주와 진도군·고이도를 함락시키고 덕진포(德眞浦)까지 진격하였다. 견훤이 이에 맞서 배를 늘어놓자 장수들이 자못 걱정하였다. 이때 왕건은 “군사가 이기는 것은 서로 화합하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화공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자 연이어 있던 배가 모두 타 버리고 견훤은 겨우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 마치 유비의 군대가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화공작전으로 조조의 군대를 물리친 적벽강 전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그는 용감하기도 하였지만 전략·전술에도 뛰어난 바가 있었다.

그는 적의 동향을 잘 파악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손자 병법(孫子兵法)』의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은 견훤의 휘하에 있던 수달(水獺: 본명은 能昌)이란 자가 압해도에서 활약하면서 왕건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첩자를 보내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던 왕건은 오히려 해염 잘 치는 자 10여 인을 몰래 파견하여 능창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 공으로 그는 시중(侍中)에 임명되었다.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엿볼 수 있다. 많은 신하들이 공을 내세우며 궁예에게 아첨하고 있

을 때에도 왕건은 변방에 지원하여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부장이었던 김언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장군님!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아무런 포상이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라리 수도로 쳐들어 가 새로운 정권을 세웁시다.” 이에 왕건은 조용히 말하였다. “삼가 게으르지 말고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왕이 방자하고 잔학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유언비어와 모함이 난무하고 있다. 이때에 왕궁 안에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밖에서 정벌에 종사하면서 왕도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듯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다. 진정 기다림의 미학과 철학을 알았기에 후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썼다. 시중(侍中)의 자리에 까지 올랐으나, 국사를 처리하면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매사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은 가까이 두었지만 악하고 간교한 사람은 멀리하였다. 누가 착한 사람을 헐뜯는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옹호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청주인이었던 아지태(阿志泰)는 궁예에게 아첨하여 고관에 오른 자였다. 그런데도 같은 고향 사람인 입전·신방·관서 등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모함하였다. 사람들은 아지태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최고 권력자인 궁예의 비위를 거스르려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진위를 가렸다. 알고 보니 실은 아지태가 관직을 빙자하여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지태를 감옥에 집어 넣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왕건은 시중직에서 해임되어 수군을 거느리고 다시 나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될 줄을 알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공명정대한 권력을 행

사하였던 것이다.

2. 태조의 등극과 후삼국 통일

그러나 그에게도 위험은 있었다. 태봉 말기에 궁예는 부쩍 의심이 많아지고 포악해졌다. 왕건은 이에 개의치 않고 맑은 바 임무에만 충실하였다. 하루는 궁예가 왕건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반역의 혐의를 추궁하였다. 당시 궁예는 자신이 미륵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미륵관심법(彌勒觀心法)이라 하였다. 왕건은 모반 혐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것은 궁예의神通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궁예는 다시 말했다. “경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선정(禪定)에 들어가서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이때 궁예 곁에 있던 최응이 일부러 붓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이를 주으러 가는 척하면서 왕건에게 속삭였다. “사실처럼 말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자 왕건은 깨닫고 말하였다. “신이 진실로 반역을 꾀했사오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옵니다.” 궁예는 비로소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경은 진실로 정직하도다.” 이로써 가까스로 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심은 바른 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당나라의 상인 왕창근(王昌瑾)이 저잣거리에서 거울을 샀는데 거울에 햇빛이 비치자 왕건의 등극을 예언하는 글귀가 나타났다.

삼수중(三水中) 사유하(四維下)에
상제(上帝)가 아들을 진한·마한에 내려보내어
먼저 닭(鷄)을 잡고 뒤에 오리(鴨)를 칠 것이다

사년(巳年) 중에 두 용이 나타나
 한 용은 청목(靑木) 속에 몸을 감추고
 한 용은 흑금(黑金)의 동쪽에 몸을 드러낼 것이다.
 혹은 성(盛)함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쇠(衰)함을 보이기도 하여
 악을 떨하고 진재(塵滓)를 없앨 것이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신라[四 + 維=羅] 땅에 상제가 아들을 낳
 한·마한 땅에 내려보내 먼저 계림신라를 제압하고 후에 압록강까지 진
 출할 것이다. '사(巳) 자 들어간 해에 두 영웅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청목
 즉 송악에서 몸을 감추고 있고 하나는 흑금 즉 철원에서 이미 왕위에 올랐
 도다. 그러나 송악에 있는 영웅이 곧 나타나 물러서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
 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새롭게 등극하리라는 뜻이었다. 누군가 민심을
 대변하여 하늘의 뜻으로 왕건의 등장을 예견했던 것이다.

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최치원도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개창을 점쳤
 다. “계림(鷄林)은 황엽(黃葉)이요, 곡령(鵠嶺)은 청송(靑松)이라” 했다. 신
 라는 이제 누런 낙엽이 되어 멸망할 것이고, 곡령송악에서 일어난 왕건이
 왕업을 열어 청송처럼 늘 푸르게 뻗어나간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예언은 맞아떨어져 918년 6월, 왕건은 홍유(洪儒)·배현경(裴玄
 慶)·신송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의 장군에게 추대되어 왕위에 올
 랐다. 5백 년 고려 왕업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실로 889년(진성여왕3)에
 농민봉기가 시작된 이래 30여 년만의 일이었다. 민심의 승리였다.

이렇게 왕건은 궁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창업주인 태조(太祖 :
 918~943)가 되었다. 그는 우선 나라 이름을 고려(高麗)라 하였다. 이 국호
 는 이미 궁예가 사용한 바 있으나 신라의 왕실 출신이었던 궁예에게는 어
 울리지 않는 국명이었다. 그러나 왕건은 고구려의 유민 출신이었으므로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할 만하였다. 그리고 궁예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대개 옛 고구려 지역이었으므로 지역민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으

로 작용하였다.

신라에 대해서도 궁예와는 달리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궁예가 새로 설치한 관계와 군현의 명칭을 다시 신라식으로 환원하였다. 신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후대하였다. 특히 6두품 계열을 많이 수용하였다. 최언위나 최은함·최승로 부자와 같은 세력을 영입하였다. 최언위는 당나라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인물로 신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 왕건에게로 온 인물이다. 그는 태조 휘하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태자의 사부가 되었으며, 문필을 관장하여 한림원(翰林院)의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최승로 부자도 귀순해 오자 그 실력을 인정하여 어린 최승로를 원봉성(元鳳省)의 학생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신라와의 관계를 단탄히 다져 놓은 왕건에게 남아 있는 숙제는 후백제 견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왕건이 즉위한 초기에 그들은 외형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왕건이 즉위하자 견훤 측에서 사신을 보내 공작같이 좋은 부채와 지리산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선물하였고 왕건도 이에 화답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920년(태조3)에 견훤이 신라의 합천·초계를 공격하고 신라의 구원 요청에 고려가 응하면서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924년에 일어난 조물군(曹物郡 : 구미 부근으로 추정) 전투 이후 인질 교환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그들은 927년(태조10)에 왕건이 용주(龍州 : 지금의 예천)를 선제공격 함으로써 다시 대립하였다.

같은 해 견훤이 신라의 수도를 침범하여 경애왕(景哀王 : 924~927)을 살해하면서 양자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때 신라를 구원하러 가던 왕건은 공산(公山 :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후백제군을 만나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여기서 그는 신숭겸(申崇謙)·김락(金樂) 등 두 장수를 잃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이에 충격을 받은 왕건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930년(태조13)에 고창군(古昌郡 : 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길(張吉) 등의 도움으로 견훤군을 크게 무찔렀다. 지금도 안

동에는 이 세 사람을 모신 3태사묘(太師廟)가 존재하고 있다.

승기를 잡은 왕건은 견훤과 경순왕(敬順王 : 927~935)의 귀순을 받고 후백제 신검(神劍)과 선산 부근의 일리천(一利川)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였다. 여기서 패배한 신검은 황산군(黃山郡 : 지금의 충남 논산군 연산면)으로 도망하여 진영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를 추격한 고려는 여기서도 크게 승리함으로써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 기념으로 왕건은 연산에 개태사(開泰寺)라는 절을 세우기도 하였다.

3. 통일 정책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자질과 역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호족(豪族)’들의 협조 덕택이기도 했다. 호족은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로서 권력·무력뿐 아니라 문화적 능력도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 호족들의 지위는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동족집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신라 말 이들은 지방에서 성주·장군의 호칭을 가지고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처음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관망의 자세를 보였으나 혼란이 계속되자 농민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섰다.

이러한 호족들을 왕건은 온건개혁정책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휘하에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전국의 호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편 말을 낮추어 공경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에게 귀부해 오는 호족들에게는 토지와 저택을 주기도 하고 관계(官階)를 수여해 주면서 통치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또 그들의 딸과 혼인을 추진하여 혈연적 친분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그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여기서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혼인정책이 호족

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왕건의 회유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출신 배경이 송악의 호족으로서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

호족들의 자제들을 기인(其人)으로 삼아 수도에 올라오게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평상시에는 이들을 잘 대우해 주었지만 유사시 인질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대호족들이 서울로 올라올 경우 그들을 사심관(事審官)으로 삼아 출신지의 향리들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통제케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선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궁예 시절에는 수확의 반 가량을 수탈해 갔지만, 태조가 집권한 후부터는 10분의 1 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흑창(黑倉)이라는 빈민구제기관을 설립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또 억울하게 남의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풀어 주는 정책도 추진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로 인하여 889년(진성여왕3)부터 시작된 전란은 끝을 맺게 되었다. 무려 47년간이나 계속된 내부적인 진통을 수습하고 나서야 고려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왕조도 사실은 936년(태조19)까지는 후삼국 시대에 속한다고 하겠다. 결국 한국사에서 '후삼국 시대'란 태봉의 뒤를 이어 후백제가 건국한 900년부터 936년까지 36년간을 가리킨다 하겠다. 이 시기는 한국의 '전국 시대(戰國時代)'라 불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신라의 반도 통일이나 조선의 건국이 중국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이루어진 반면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은 중국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이 당말 오대(五代)의 혼란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반도 통일 때에 찾지 못했던 고구려 영토를 많이 획득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왕건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아 북방을 개척하기도 했던 것이다.

왕건의 후삼국 통일로 경주 진골 중심의 골품제 사회가 붕괴되고 지방 호족 중심의 능력 사회가 되었다. 지방민들도 실력이 있으면 과거를 보아 중앙의 관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병존하였다. 불교, 유교는 물론 풍수지리나 전통 신앙이 같이 성행하였다. 이는 불교 중심 국가였던 신라가 멸망한 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룩된 것이었다.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조화시켰던 것이다. 이는 사상·문화적으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동북아시아사의 전개에 있어 중국 및 북방민족과 함께 삼각의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高麗)—송(宋)—요(遼) 또는 금(金)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주고 받는 초석이 되었다. 통일 왕조로서 동북아시아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요(遼)의 침략과 금(金)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후비 일람표

	후비명칭	성 씨	출신지	현지명	후비의 아버지
1	신혜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천궁(天弓)
2	장화왕후	오씨(吳氏)	나주	나주	다련군(多憐君)
3	신명순성왕후	유씨(劉氏)	충주	충주	궁달(兢達)
4	신정왕태후	황보씨(皇甫氏)	황주	황주	제공(悌恭)
5	신성왕태후	김씨(金氏)	경주	경주	억림(億廉)
6	정덕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덕영(德英)
7	헌목대부인	평씨(平氏)	경주	경주	준(俊)
8	정목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경(景)
9	동양원부인	유씨(庾氏)	평주	평산	검필(黔弼)
10	숙목 부인		진주	진천	명필(名必)
11	천안부원부인	임씨(林氏)	경주	경주	언(彦)
12	홍복원부인	홍씨(洪氏)	홍주	홍성	규(規)
13	대량원부인	이씨(李氏)	협주	합천	원(元)
14	대명주원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예(乂)
15	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6	소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7	동산원부인	박씨(朴氏)	승주	승주	영규(英規)
18	예화부인	왕씨(王氏)	춘주	춘천	유(柔)
19	대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0	소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1	서전원부인				
22	신주원부인	강씨(康氏)	신주	신천	기주(起珠)
23	월화원부인				영장(英章)
24	소황주원부인				순행(順行)
25	성무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지윤(智胤)
26	의성부원부인	홍씨(洪氏)	의성부	의성	유(儒)
27	월경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문(守文)
28	몽량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경(守卿)
29	해량원부인		해평	해평	선필(宣必)

왕건 관련 연표

연 대	왕건의 나이	주 요 사 건
877	1	송악군에서 왕건 출생
889	13	진성여왕이 조세를 독촉하자 농민봉기 시작
896	20	궁예, 태봉을 세움 왕건 부자, 궁예에게 귀순
900	24	왕건이 광주·청주·충주 등지를 공략 견훤이 후백제를 세움
903	27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나주 경략
909	33	왕건이 덕진포에서 견훤을 격파
913	37	왕건이 시중의 지위에 오름
918	41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여 고려를 세움
922	46	왕건이 서경에 가서 관리를 두고 재성을 쌓음
926	50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 멸망
927	51	견훤이 경주를 침범하여 경애왕을 자살케 함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견훤에게 크게 패함
930	54	왕건,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견훤군을 대파함
935	59	견훤과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함
936	60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군을 일이천(선산)에서 대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함
943	67	왕건이 훈요10조를 남기고 죽음

후백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후백제의 역사적 평가

신 호 철 | 충북대학교 교수

1.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 후삼국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후백제왕 견훤은 누구인가
3. 후백제는 왜 몰락했는가
4. 후백제 · 견훤왕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5.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1.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후삼국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나라 역사상 후삼국 시대는 매우 독특한 시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사상 가장 급변하던 일대 변혁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천년왕국인 신라가 멸망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을 누리던 중앙의 왕족 및 귀족 세력들이 몰락하고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이른바 ‘호족의 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흔히 이 시기를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후삼국 시대’를 하나의 독립된 시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오로지 신라왕조에서 고려왕조로 넘어가는 왕조교체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후삼국의 존재는 고려왕조의 성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는 후백제나 후고구려(혹은 태봉)를 독립 왕조로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다만 건원 궁예열전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것도 두 왕에 대한 독립 열전을 마련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그것도 반역 열전에 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김부식의 인식은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후 조선 시대의 역사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현재의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도 ‘나말여초’라는 용어와 함께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후삼국 시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역사 인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명 새롭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후삼국 시대에 대한 관심도 주로 고려의 건국 과정이나, 태조 왕건에 의한 후삼국 통일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는 그동안 역사 무대의 뒤편에 몰려서 우리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던 후삼국의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후삼국 건국의 주

역이었던 견훤 왕이나 궁예 왕에 대해서도 기존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2. 후백제왕 견훤은 누구인가

견훤의 처음 성은 이(李)씨였으나 15세가 되어 스스로 견훤이라 하여 견(甄)씨를 자칭하였다고 한다. 그는 신라 말 경상북도 상주 가은현에서 아자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본래 가은현의 농민이었으나 아버지인 아자개 대에 이르러 사벌성(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의 장군으로 성장한 호족 출신이었다. 견훤은 20여 세가 되던 880년대 중반에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들어가 군인이 되었고, 그 후 서남해안을 수비하던 해군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여 해군의 장교로 출세하였다. 이때가 진성여왕 초기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견훤은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의 인심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그가 거느리고 있던 해군의 휘하 장병들을 비롯하여 전라도 일대의 주민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견훤은 892년(진성여왕6)에 무진주(지금의 전라도 광주)를 점령하여 드디어 왕이라 칭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 후 900년에 이르러 전주로 수도를 옮기어 본격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함과 동시에 영토를 내륙으로 확장하여 지금의 전라도와 충청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다.

견훤은 궁예 및 그의 뒤를 이어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도 치열하게 대립, 경쟁하였지만, 신라 정구군을 기반으로 한 견훤의 후백제 군대가 가장 강성하여 초기에는 이들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는 등 월등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견훤은 대외적으로는 신라의 수도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이

는 등 신라인의 반발을 사는 한편 왕건의 고려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견훤의 자식들 간에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말미암아 정권 자체가 크게 약화되어 후삼국 통일에는 실패하였다. 즉 견훤은 장남인 신검 대신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신검과 둘째, 셋째 아들인 양검과 용검이 반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동생인 금강을 살해하였다.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몰래 금산사를 탈출, 나주를 거쳐 왕건의 고려에 항복하였다. 936년 고려는 왕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견훤을 앞세워 후백제 군과 황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여 승리함으로써 약 반세기 동안 존속했던 후백제는 멸망되었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왕건을 도와 신검군을 물리친 견훤은 결국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앞장선 셈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화병(등창)이 나서 수일 만에 죽고 말았다.

3. 후백제는 왜 몰락했는가

견훤의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방대한 지배 영역을 차지하면서, 고려의 왕건을 압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 1, 2년 만에 갑자기 몰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후백제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긴 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견훤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넷째 아들인 금강만을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고 하자, 이에 장남인 신검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둘째와 셋째인 양검과 용검은 각각 경상남도 진주와 전라남도 광주의 군사령관(도독)으로 나가 있었는데, 중앙의 고위관직에 있던 능환이라는 인물이 이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한 후, 신검을 왕위에 추대하

였다. 그러나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3개월 만에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였고, 이어 후백제 내에 있던 견훤의 사위 박영규도 이에 내응하여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견훤과 박영규의 도움을 얻게 된 고려는 936년 신검이 이끈 후백제군과 황산에서 결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신검·양검·용검 3형제는 항복하였고 곧 후백제는 멸망되었다.

이처럼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신검 3형제와 금강 사이의 왕위 쟁 탈전을 둘러싼 내분에서 비롯되었고, 거기에 견훤과 박영규가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급진전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후백제 멸망의 원인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견훤의 금강 편애에 의한 형제간의 알력에만 초점을 둔 지극히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견훤이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자 한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전적으로 견훤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전통적 유교 사관에 입각한 해석은, 그것이 고의적이던 아니던 간에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왕실의 내분이 후백제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내분의 원인이 전적으로 견훤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후백제의 복잡한 지배 세력의 구성 등을 통해서 그 멸망의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후백제는 군사적으로 고려와 신라를 압도하고 있었고, 대외정책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오월이나 후당과 외교사절을 교환하는 등 매우 선진적이었으며, 후삼국 중에 제일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930년 이후 후백제 말기 1, 2년 만에 전세는 급격히 역전되었고 주변의 호족들도 다투어 후백제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백제 내의 정치적 혼란, 즉 형제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견훤이 신검 3형제를 제쳐두고 금강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검 3형제와 금강 간의 싸움도 오직 견훤의 금강에 대한 편애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들 형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정치 지배 세력의 존재라든가 그 세력을 구성하였던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견훤은 왜 자신의 후계자로 당시 전투에 나가 활약하던 신검을 비롯하여, 양검과 용검의 3형제를 제쳐두고 나이 어린 금강을 왕위에 지목하였을까. 금강은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이에 비해 신검 형제들은 금강과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이 왕위에 추대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즉 신검 3형제와 금강은 서로 모계를 달리하는 이복형제 간이며, 신검과 금강 간의 왕위 쟁탈전도 결국 이들 두 외척집단 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신검과 양검, 용검은 그들의 나이와 이름이라든가 고려전에서의 활동 등을 미루어 볼 때, 견훤이 처음 광주에서 결합한 광주 호족 세력의 소생이었던 데 비하여, 금강은 전주로 천도한 후에 새로 맞아들인 다른 왕비의 소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검 3형제와 금강 간의 내분은 그들을 둘러싼 외척 지배집단 간의 정권 쟁탈전이었고, 그것은 후백제의 몰락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4. 후백제 · 견훤왕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후삼국을 건국한 견훤, 궁예, 왕건 등 3인의 인물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인 평가는 고려 태조 왕건을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군주의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견훤과 궁예는 포악하거나 무능한 인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궁예의 성격은 ‘포악’하거나 ‘미신적’으로 묘사되었고, 그리하여 궁예가 몰락한 원인을 모두 궁예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돌렸다. 그는

‘과과주의자’요 ‘폭군’이며 심지어는 ‘노망기’까지 낀 ‘과대망상증’ 환자이자 ‘성격분열증’ 환자쯤으로 평가하였다.

견훤에 대한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즉 왕건은 민생을 걱정하는 군주인데 비하여 견훤은 무력의 과시만을 일삼은 인물로 묘사하였다. 이 시대를 연구한 한 유명한 역사학자는 견훤과 궁예, 왕건 등 후삼국의 국왕 3인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장군의 자격은 있으나 왕자의 정치 능력을 못 가진 치기 가득한 궁예나 사태 수습에는 민활하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경륜을 가지지 못하였던 견훤은 그들의 일생을 허비하여 왕건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 주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김부식은 견훤열전의 끝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궁예는 본시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종국(宗國)을 원수로 삼아 멸망시킬 것을 도모하여 선조의 화상을 칼로 치기까지 하였으니 그 불인(不仁)함이 심하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신라의 녹을 먹고살았는데 속으로 화심을 품고 나라가 위태로움을 다행으로 여기어 도읍을 침략하고 군신을 살육하기를 금수 죽이듯이 풀 베듯이 하였으니 실로 천하의 원악(元惡)이요 대죄이다. 그러므로 궁예는 그 신하에게 버림을 당하고 견훤은 그 화가 아들에게서 일어났으니 모두 자초한 것이다. (중략) 하물며 궁예와 견훤 같은 흉악한 인간이 어찌 우리 태조에게 항거할 수 있으리오. 다만 태조를 위하여 백성을 몰아다 준 것이었다.(『삼국사기』, 견훤열전)

견훤과 궁예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는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견훤과 궁예에 대한 사료가 모두 그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 고려 시대 인들에 의해 기술·편찬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료가 갖는 한

계성을 극복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해서 견훤이나 궁예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김부식이 견훤이나 궁예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아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미리 보내진 인물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더구나 궁예의 부하였다가 주군을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한 왕건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궁예를 ‘폭군’이나 ‘정신분열증 환자’쯤으로 왜곡해야 했을 것이고,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고전했고 특히 견훤이 이끈 후백제 군과의 팔공산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왕건은 후백제나 견훤에 대한 원한 또한 깊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에 임박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 후백제 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후대 고려인들이 견훤이나 궁예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견훤과 궁예가 국가를 건국한 군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삼국사기』의 ‘본기’에 수록하지 않고 ‘열전’에, 그것도 반역 열전의 말미에 수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사에서는 동시대의 역사를 『오대사』로 기술하여 정사로 편입시킨 것과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견훤을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한 김부식의 평가는 아마도 견훤이 경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견훤이 경주를 침공한 것과 경애왕을 폐위시킨 사실은 새롭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견훤은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도성에 쳐들어가 포석정에서 유희를 즐기던 경애왕을 비롯하여, 비빈들을 겁탈하고 왕족 및 귀족들을 다수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견훤의 경애왕 살해 사실은 견훤의 포악성 내지 반신라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너무나 많다. 우선 견훤이 경주를 침공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경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죽였으면서도 신라를 합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부를 경순왕으로 옹립시키고 돌아왔을 뿐이다. 더구나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이 신라의 진골귀족들에 의해 별다른 저항 없이 왕위를 유지하였다. 또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은 견훤보다는 왕건과 더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결국은 왕건에 항복하고 말았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견훤이 경주에 침입했을 때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쇠한 신라왕조라 할지라도 국왕이 경주 교외의 포석정에서 유희를 즐기는 중에 적병을 맞았다는 사실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경애왕이 적군을 유희장에서 맞았다는 사실은 견훤의 침공 사실에 대한 정보나 방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는 후삼국 간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고, 특히 견훤이 도성에 들어오기 수개월 전부터 신라의 수도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었다. 즉 경주 침공 2개월 전인 927년 9월에는 경주의 인접 지역인 고을부(영주)가 함락되자, 경애왕은 위기를 느끼고 고려 왕건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등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군이 궁성을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국왕이 비빈 척족들을 거느리고 교외에 나가 한가하게 유희를 즐기고 있었을까.

특히 견훤군이 도성에 쳐들어온 시기가 음력 11월 동짓달로 가장 추운 엄동설한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얼음이 푹푹 얼었을 한겨울에, 더구나 적군이 도성 근처에 쳐들어와 고려에 원군을 청한 아주 위급한 시점에, 왕이 근교에 나가 포석정의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놓고 비빈 종척들과 함께 한가로이 유희를 즐겼다면 과연 이를 그대로 믿어도 좋은 것일까. 견훤열전에 보이는, 경애왕이 최후를 맞는 장면은 아무래도 국가를 몰락의 경지로 몰아간 왕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의도적인 폄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경애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있었

음을 기술함으로써 결국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애왕과 견훤을 함께 비판하고 아울러 고려 통일의 정당성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했던 고려의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에게는 이처럼 교훈적 사실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설명이라면, 견훤에 의해 살해된 경애왕보다는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견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경순왕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순왕은 태자나 일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를 들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왕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반면 경애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라 계열의 귀족인 김부식이 고려에 귀부한 경순왕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고, 김부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견훤의 경주 침공의 목적은 신라를 멸망시키고 이를 병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라 왕실 내의 문제와 깊게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즉 견훤이 제거한 경애왕은 ‘박씨 왕’으로 신라의 ‘김씨 왕’과는 다른 계통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신라 왕실은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견훤은 바로 신라 왕실의 분열과 박씨 왕인 경애왕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그를 제거한 것이고, 정통인 김씨 왕을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순왕을 옹립한 것이다. 그것은 견훤 스스로가 “의풍(義風)을 살려 종사(宗社)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견훤의 경주 침공과 경애왕 제거를 단순히 견훤의 포악성 내지 반신라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김부식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면적인 해석으로 채고 되어야 할 것이다.

5.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은, 견훤이 이미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정권을 수립한 때이다. 아울러 군사적으로도 왕건의 고려군은 견훤의 후백제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양국의 전투는 최후의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후백제가 연전연승하는 형세였다. 그러나 결국 왕건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 그에 의해 통일이 이룩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왕건과 견훤을 승자와 패자로 만들었는가. 종래의 평가에 의하면, 전적으로 견훤 개인의 잘못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전통적 유교 사관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의식적이던 아니던 간에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견훤·왕건의 두 인물의 성격이나 능력 등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양국의 지배층을 구성한 정치 집단의 성격이나, 국가의 운영체제, 신라를 비롯한 중국과의 대외관계, 피지배층에 대한 정책, 경제적·군사적 여건 등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다 실증적이고 다양하게 탐구 비교해야 한다.

역사상 승자와 패자의 행위가 곧 옳고 그름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율곡 선생이 명쾌하게 지적한 바 있다. 즉 그는 역사적 사건의 옳고 그름과 성패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성패는 행·불행과 관련된 것이지 시·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성공한 자를 무조건 옳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해야 하며, 따라서 역사 해석은 결과가 아닌 동기의 선악으로 그 시비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의 변동이나 성패를 모두 우연이나 요행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대시(待時-때

를 기다림)와 ‘승세(乘勢-세를 타는 것)가 역사 변동의 중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이이, 『성학집요』 ‘독사지법’, ‘천도인사책’)

오늘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율곡 선생의 이와 같은 엄정한 사관을 새삼 본보기로 삼아, 그동안의 견훤에 대한 평가가 기왕의 사료를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였거나 선입관에 따른 결과론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